

강화




 온라인에서도
 <KTX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섬이라는 즐거움

영월




 온라인에서도
 <KTX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04

마침내 봄, 영월이 그대에게 | 서울역 주변에서 하루 놀기 | KTX 개통 기념, 기차역 배경 영화

CONTENTS

2023.04

034

테마 여행
영월



조선의 여섯 번째 왕 단종은 육지 속 섬 청령포로 유배를 왔다. 그때 처럼 오늘도 소나무 숲은 울창하며 솔바람 맑게 흐른다. 강원도 영월이 유장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monami®



Navy



Linen

The class of Me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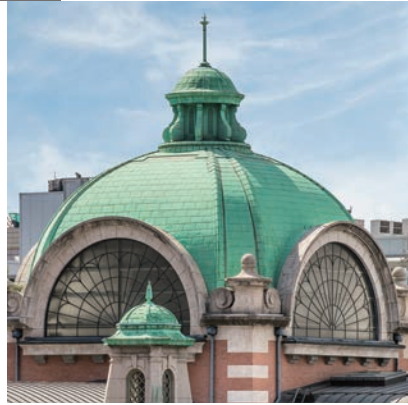
Maroon

(주)모나미 고객센터 080-022-0153 www.monami.com | 온라인 공식쇼핑몰 www.monamimall.com

153 ID

FOUNTAIN PEN_EF

2023.04



008

세계 도시 이야기

멕시코 유카탄반도 동쪽의 휴양도시 바칼라르에서 세상의 모든 파랑을 만난다.

014

주방 속 여행

바질김치부터 아스파라거스동치미까지, 우리가 몰랐던 김치를 감각한다.

016

맛집 탐방

맛은 기본, 외관까지 사랑스러운 서울 성수동의 디저트 가게를 찾았다.

052

이 계절 이 여행

인천 강화군의 두 섬, 강화도와 교동도에서 꽃노래 흥얼거리며 걷고 또 걸었다.

060

기차 타고

서울역 근처에서 발견하고 누린 풍경이 시간 여행하는 기분을 선사했다.

070

촬영지 여행

수많은 사람과 이야기가 교차하는 곳, 기차와 기차역을 소재로 한 영화를 모았다.

074

문화 돋보기

유튜브 코미디 채널의 긴밀한 개그 설정, 그 매력적인 세계관을 파헤쳐 본다.

078

위스키 인사이트

잭 다니엘스는 미국 테네시위스키의 상징이자 위스키 그 자체다.



KORAIL INFORMATION

094

한국철도 소식

102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104

열차 이용 안내

106

비상시 행동 매뉴얼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 서 들려주며, 60여 개 언어로 번역도 지원합니다. 자동 번역기를 사용하기에 번역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Panasonic

봄, 미각여행의 필수템-
파나소닉
휴대용 구강세정기

봄 여행을 떠날 때 가방안에 필수템으로 챙겨 봄
식사후 1분이면 개운하게 입속을 세정해 봄
구강관리하면서 미각을 마음껏 즐겨 봄

파나소닉 휴대용 구강세정기
DJ31



들어가는 글



서울역 옆, 쓰이지 않는 주차 램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쓸모가 사라져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치기만 하던 곳이
 지금은 '도킹 서울'이라는 예술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우주를 콘셉트로 꾸며 오묘한 분위기가 나지요.
 길을 따라가 작품을 감상하면 주차 램프가 이렇게
 매력적인 공간이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밖을 보세요. 새싹으로 땅이 푸릇하고, 나뭇가지에
 꽃이 피었습니다. 겨우내 생기를 잃은 듯했지만,
 자연은 부지런히 힘을 내 올해도 작품 같은 봄을 가져왔습니다.
 일상에서 지나쳤던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우주만큼 신비한 것이 가득하답니다.
 부디 당신도 숨어 있는 풍경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KTX매거진> 기자 남혜림

KTX

바로 지금, 여행

APRIL 2023

2023년 4월호 제20권 제4호 통권(제226호)
 2023년 4월 1일 발행

발행인 고준영(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편집
 (주)서울문화사 02-3785-0900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 221-19

편집인 심정섭

편집장 김현정 kimhj@seoulmedia.co.kr
부편집장 김규보 kkb@seoulmedia.co.kr
기자 강은주 unddu@seoulmedia.co.kr
 남혜림 nhr@seoulmedia.co.kr

교열 오미경 번역 박경리

디자인
아트 디렉터 권영주 kyj@seoulmedia.co.kr
디자이너 임보영 lby@seoulmedia.co.kr
객원 디자이너 엄정윤

사진
 라이트팩토리(LIGHT FACTORY)
 070-4119-3014
디렉터 신규철
실장 이규열 조지영 이철 박정우

광고
팀장 조현익 jony2@seoulmedia.co.kr
부장 심재우 jwshim22@seoulmedia.co.kr
사원 김수연 ktxad@seoulmedia.co.kr

배포 소장 이재우

경영지원실 본부장 정영기

제작팀 팀장 이수행
차장 정승현 **과장** 정수호

기획팀 팀장 임용욱 **차장** 박선주

인쇄 (주)타라티피에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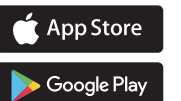
<KTX매거진>은 KTX와 ITX-새마을, ITX-청춘 열차 내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보신 뒤에는 다음 승객을 위해 제 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 **편집** 02-799-9338 **광고** 02-799-9175



DAEGU Trip

- #맛집 #카페 #투어_엑티비티 #패스 #숙박 #할인쿠폰 #추천코스 #길안내
- #음악분수 #수성투어버스 #가상미술관 #디지털가이드 #이_모든걸_하나의_어플에서!



*대구트립 어플은 4월 10일 정식 오픈 합니다.



내 손안에 펼쳐지는 KTX매거진

SNS에 #KTX매거진을 태그해 올려 주세요.

@walkanddrive

기차에서 오랜만에 만난 광주. 뜨겁고 정겨웠던 장소들을 복기하게 된다.

#KTX매거진
#광주_비엔날레
#기차_좋아
#광주_여행

@ggoggoma_ss

매달 새로운 여행 정보를 담은 <KTX매거진>. 올봄 여행지는 너로 정했어. 포항!

#좋아하는_잡지
#봄_여행
#포항
#KTX매거진

@chun33kim

올해는 벚꽃 보러 창원에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마침 진해군항제 기사가 보여서 찰라.

#진해군항제
#KTX매거진_3월호
#KTX매거진
#벚꽃

@ktxmagazine

선물받아 가세요!

기차 안 SNS에 선정된 분께는 고농축 풀빅산을 함유해 두피 및 모공 관리에 도움을 주는 탈모 예방 샴푸 풀빅 헤어 샴푸&토닉 세트를 선물로 보내 드립니다. 두피와 모발 케어에 적합한 약산성 샴푸로 온 가족이 사용하기 좋습니다.

제품 문의 1522-9158

손안에 펼쳐지는 <KTX매거진>

QR코드를 스캔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로 <KTX매거진>을 만나 보세요!



A HILO

*당첨자에게는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드립니다.



BACALAR

세상 모든 파랑, 바칼라르


푸르다고 다 같은 푸른색이 아니다. 멕시코 유카탄반도 동쪽에 자리한 휴양도시 바칼라르의 석호는 푸른색의 정의를 다시 내리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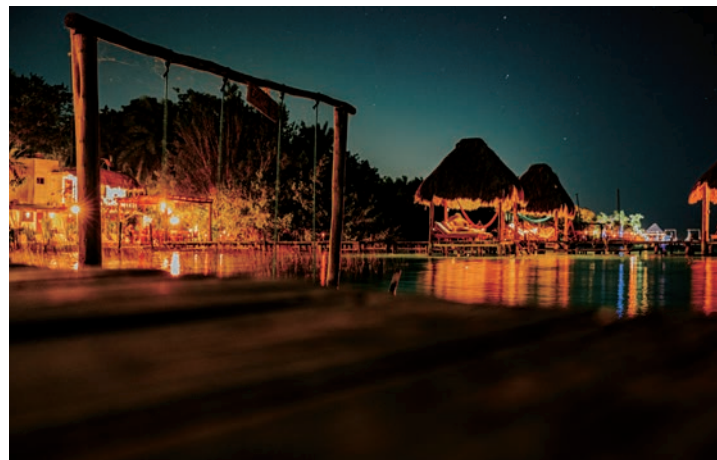


석호의 물빛이 다채로운 이유는 수심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호수에서 가장 깊은 세노테 네그로는 수심이 90미터에 이르고, 주변은 아득한 검푸른색으로 빛난다. 카약이나 패들 보드를 타고 수면을 가로지르며 낙원의 풍광을 두 눈 가득 아로새긴다.

멕시코 유카탄반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지명은 아마도 칸쿤일 것이다. 칸쿤을 품은 키타나로오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지명이 있다. 바칼라르다. 자꾸 입안에서 굴리고 싶어지는 바칼라르란 이름은 마야어에서 기원한다. 해석 하면 '갈대가 둘러싼 곳'. 한때 마야인의 땅이었으나 17세기부터 스페인·영국·프랑스·네덜란드 해적이 목재를 찾는다는 구설로 침략을 일삼으면서 오랜 평화는 깨지기 시작한다. 이에 맞서기 위해 선주민들이 세운 산펠리페 요새는 오늘날 바칼라르의 해적 수난사를 망라한 박물관이 되어 마을을 굽어본다.

산펠리페 요새와 소칼로 광장은 바칼라르 여행의 출발점이다. 이어지는 코스는 다음과 같다. 아가지기한 골목을 따라 걷다가 산호아킨 교회와 바칼라르 문화센터를 마주치고, 거리 곳곳을 누비며 공예품 상점을 구경한 뒤,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타케리아를 찾아 신선한 재료를 잔뜩 투하한 유카탄 전통 음식을 맛보는 것. 살부트, 소페 등으로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두툽한 토르티야에 각종 채소와 고기를 얹어 먹는다는 점에서 꽤 비슷한 요리다.

여정의 근사한 마침표는 라구나 데 로스 시에테 콜로레스, 즉 일곱 빛깔 석호다. 얼핏 바다처럼 보일 만큼 드넓은 이 호수는 코칼리토스, 네그로, 에스메랄다라는 이름을 가진 청량한 물빛의 세노테(석회암 침식으로 형성된 우물)도 거느린다. 청록색부터 감청색까지, 언어로 분류하기 어려운 온갖 푸른색이 수면에 드리워 두 눈을 황홀하게 한다. 자연의 신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여기서 발견된 화석 스토로마톨라이트는 지구 최초로 광합성을 시작한 시아노박테리아가 35억 년 전 퇴적한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이 푸른 별의 역사가, 이토록 푸른 호수에 잠들어 있다. 





모든 몸이 누리는 즐거움

어떤 신체를 가졌든 누구나 자유로이 감각하는 세상을 꿈꾼다. 열린관광지부터 어댑티브 패션까지,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배리어프리 지향 움직임을 탐색한다.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 남들 다 본다는 인기 시리즈를 통근 길에 몰아 본다. 덜컹거리는 전철 소음 때문에 자막 기능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신비로운 음악이 흐른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등 부대 상황을 설명하는 문구가 어색하게 느껴졌으나 이제는 미처 인지하지 못한 내용을 텍스트로 따라잡을 수 있어 편리하다는 생각이 앞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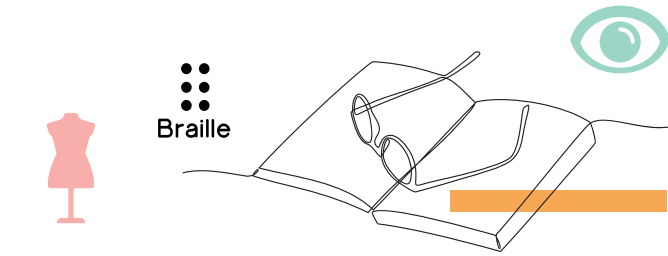
화면 전반의 시청각 정보를 문자화해 보여 주는 폐쇄형 자막은 본래 청각장애인용으로 고안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서비스지만 비장애인에게도 편익을 준다. 급진적으로 말하자면, 배리어프리가 모두를 이롭게 한다. 배리어프리란 장애인, 고령자 등 일상에서 물리적·제도적·심리적 장벽을 맞닥뜨리기 쉬운 이들을 위해 그 장벽을 허물자는 움직임이다. 현재 배리어프리 논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분야는 단연 영상 콘텐츠다. 이미 모든 시리즈에 폐쇄형 자막을 제공하고 있는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에 한해 오디오 화면 해설까지 서비스한다. 왓츠, 티빙 등 국산 OTT 플랫폼도 이에 발맞추고자 자막과 화면 해설 서비스를 확대 중이다. 지난달 운영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PTV 사업자에게 한국 수어, 폐쇄형 자막 등 배리어프리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물리적 배리어프리 서비스가 절실한 부문 중 하나는 여행이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지난해 홈페이지 '열린관광 모두의여행(access.visitkorea.or.kr)'을 개설하고 다양한 열린관광지 정보를 제공해 왔다. 열린관광지란 장애인, 고령자는 물론이고 임신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대한민국 인구 약 30퍼센트를 점유하는 관광 약자를 위해 편의 시설과 보행로 및 체형 시설 등을 갖춘 여행지를 뜻한다. 열린관광 대문 페이지에 가면 두 가지 전자책을 내려받을 수 있다. <열린관광 추천 코스 20선>은 여행지 정보는 물론 접근성이 좋은 객실 찾는 법 등 요긴한 여행 팁을 망라하고, 촉각·큰글자·점자·음성으로 제작한 <특별한 관광 가이드북>은 경북 고령 대가야 역사테마관광지와 충남 부여 궁남지, 전북 전주 한옥마을, 경기도 수원화성, 경남 거제 칠천량 해전공원 등 열린관광지 다섯 곳에 대한 정보를 아우른다.

신체와 밀착한 패션 영역에서도 배리어프리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두드러

지고 있다.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나이와 성별과 체형과 장애 유무 등을 초월해 모두가 편안한 옷을 추구하는 것을 유니버설 패션이라 하고, 이들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운신을 고려해 디자인한 옷을 어댑티브 패션이라 부른다. 한국에서는 삼성물산 패션 부문 브랜드 하티스트와 태평양물산의 리바이브, 뇌병변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 의류를 생산하는 베타베이직 등이 꼽힌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달리 보면 블루오션인 산업이다.

4월 20일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다. 누구나 즐기고 싶은 콘텐츠를 마음껏 누리고, 가고 싶은 곳을 실컷 여행하고, 입고 싶은 옷으로 한껏 멋 부리를 꿈꾼다. 모두가 힘을 보탠다면, 그 어떤 장벽도 허물 것이다. **k**



+다양한 몸, 넓은 가능성

장애인과 이동 약자를 위한 여행을 계획한다면 모아스토리(moa-story.com)의 영상 콘텐츠와 두리함께(duritrip.com)의 여행 상품이 영감을 줄 것이다. 액티비티 특화형 유니버설 여행사 무빙트립(movingtrip.co.kr)은 휠체어 이용자인 신현오 대표가 직접 체험하고 기획한 여행 상품을 서비스한다. 이제 웹툰도 배리어프리 서비스로 즐겨 본다. 네이버는 보이스오버, 토크백 등 음성 기능으로 베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배리어프리 영화는 매년 가을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로 만나 왔는데, 이달 개막하는 전주국제영화제도 국내 국제영화제 최초로 배리어프리 상영작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으로 더 많은 몸이 더 넓은 세계와 닿기를 기대한다.

문화로 온 직장 모집중

신청기간 ****
04.01
04.28



2023 문화가 있는 날 [직장 문화활동 지원]

선발기간	2023년 5월 1주 (예정) / 권역별 주관단체 직접 선발	지원내용	- 문화가 있는 날 주간 문화활동 지원 (직장별 평균 3회) - 문화가 있는 날 참여 직장간 교류 프로그램 지원 (연중 1회 이상 / 필수참석) *세부내용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 참고(http://www.rcda.or.kr/)										
접수방법	상단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	신청대상	각 권역별 문화활동에 관심있는 기업 (직장) *사업주, 인사 담당자 등 기업(직장) 단위 신청(근로자 개인 신청 불가)										
신청규모	5개 권역별 20개 직장, 총 100개 내의 직장 선정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h colspan="5">권역구분(5개 권역, 100개사 내외)</th> </tr> <tr> <td>수도권 (서울/경기/인천) 20개 직장</td> <td>충청권 (대전/세종/충북/충남) 20개 직장</td> <td>강원권 (강원) 20개 직장</td> <td>전라권 *제주 포함 (광주/전남/전북/전라) 20개 직장</td> <td>경상권 (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 20개 직장</td> </tr> </table>	권역구분(5개 권역, 100개사 내외)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20개 직장	충청권 (대전/세종/충북/충남) 20개 직장	강원권 (강원) 20개 직장	전라권 *제주 포함 (광주/전남/전북/전라) 20개 직장	경상권 (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 20개 직장	문의	- 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 있는 날 기획팀 설치청 주임 02.2623.3151 - 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 있는 날 기획팀 배도아 주임 02.2623.3133
권역구분(5개 권역, 100개사 내외)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20개 직장	충청권 (대전/세종/충북/충남) 20개 직장	강원권 (강원) 20개 직장	전라권 *제주 포함 (광주/전남/전북/전라) 20개 직장	경상권 (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 20개 직장									



한양도성 순성놀이

대도시 서울의 봄을 가장 다정하게 즐기는 방법, 둘레 18.6킬로미터의 옛 수도 한양을 걷는 것이다.

오늘날 도시를 만든다 하면 무엇보다 할까. 과거엔 성벽을 먼저 쌓았다. 한양은 그냥 도시도 아니고 수도다. 조선 태조 이성계는 길한 땅인지, 수많은 백성이 먹고살기 부족함 없는 환경을 지녔는지, 전쟁을 대비할 만한 지형인지를 심사숙고해 새로운 나라의 중심으로 서울을 택했고 백악산·낙산·남산·인왕산을 이어 성을 지었다. 1392년 개국한 조선이 한양도성을 축조한 때가 1396년. 네 개 산이 이루는 산세를 빌려 비스듬한 원으로 건축한 도성이 곧 한양이라는 도시의 경계가 되었다. 지금은 서울 중심의 일부인 총길이 18.6킬로미터 도성이 현대인 눈에는 '귀엽게' 다가올지 모르겠다만 이는 걸어 다니던 시절의 규모다. 조선 시대엔 이 '큰' 성에 입성해 세상을 논하고 경영하겠다고 수많은 사람이 공부하고 경쟁했다.

그런 이에게나 도성 안 사람에게나 잠깐의 여유를 선사한 유회가 순성놀이다. 산을 이용한 도성은 경치가 일품이었다. 조선의 학자 유득공은 "도성을 한 바퀴 빙 돌아서 안팎의 멋진 경치를 구경하는 놀이"라 기록했다. 실로 모든 산은 이름이 같은 산이되 모두가 각각 다른 산이고, 위치와 고도에 따라 보이는 풍경도 천차만별이다. 치열한 도심에서 물러나 찬찬히 걷고 감상하는 일은 눈을 즐겁게 하고, 뻑뻑한 마음에 여백을 내 주었을 것이다. 언젠는 울창한 숲 공기에 취하고, 어디서는 얼마나 더 올라가야 하느냐고 불평했다

가, 어느새 탁 트인 전망에 그 아픔을 시원하게 잊은 채 웃고, 마침내 거대한 승례문 등 대문에 이르러 감탄한다. 전쟁을 비롯해 온갖 희로애락 겪은 도시에 600년 전 구획해 놓은 한양도성 원형이 남았다는 사실은 기적이다. 올봄은 선조처럼 즐겨 보자. 순성놀이 하기 좋은 계절이 왔다. ❶

완주 인증서와 배지 받기

먼저 스탬프 운영 장소에서 지도를 수령하고, 한양도성 네 개 구간을 걸 으면서 스탬프와 인증사진을 찍으면 완주 인증서와 배지를 받을 수 있다. 계절별로 4회 완주한 이에게는 메달 배지를 준다.

문의 02-779-9870(한양도성 유적전시관)
seoulcitywall.seoul.go.kr

- 
지도 수령
- 
스탬프 찍기
- 
인증사진 촬영
- 
발급 신청
- 
방문 수령

자료 제공 서울시정, 종로구청, 중구구청

1코스 백악산 구간

창의문~해화문 4.72km
2시간 45분 소요



백악산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지만 조선 시대엔 백악산이라 불렀다 하여 구간 이름도 그렇게 정했다. 북소문인 창의문을 출발해 북대문인 숙정문을 거쳐 해화문으로 이어진다. 해발 342미터 백악산은 성벽이 놓인 네 개 산 가운데 가장 높으며, 숲도 그만큼 깊다. 1968년 1월 간척이 침투한 뒤 40년 가까이 출입을 통제하다 2007년 개방했다. 총탄 흔적이 남은 1·21사태소나무가 그날의 역사를 증언한다. 일제강점기에 건립해 대법원장 공관, 서울시장 공관으로 쓴 건물은 한양도성 해화동 전시안내센터로 변모해 손님을 맞는다.



완주 인증사진 지정 장소
창의문 표지



완주 인증사진 지정 장소
인왕산 정상 샷바위

2코스 낙산 구간

해화문~광희문 3.19km
1시간 30분 소요



해발 124미터 산이 이런 전망을 보여 줄 수가 있나, 감탄이 절로 나오는 구간이다. 고도가 낮고 길이 닦여 있어 산행이나 걷기 초보자도 도전하기 좋다. 경사를 높이다 조금씩 아래를 향할 즈음, 이화마을의 정다운 지붕 너머 서울 도심이 들어오고 좀 더 지나서는 성 바깥쪽으로 창신동 풍경이 눈을 사로잡는다. 흥인지문(동대문)이 가까워지는 지점, 도로를 내느라 끊긴 성벽이 아쉽지만 한양도성박물관에서 온전한 옛 모습을 관람하며 마음을 달랠다. 흥인지문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공존. 서울의 어제와 오늘이 한 그림에 담겼다.



완주 인증사진 지정 장소
낙산공원 표지판



완주 인증사진 지정 장소
목멱산 봉수대 터

4코스 인왕산 구간

승례문~창의문 5.3km
2시간 55분 소요



평지 구간은 건물과 도로를 짓느라 성벽이 멸실된 데다 소의문(서소문)과 돈의문(서대문)까지 사라져 안타깝다. 그 대신 정동의 근대 건축물이 자아내는 고유의 분위기가 그윽하고, 돈의문 박물관마을이 1960~1970년대 마을 풍경을 전한다. 건너편에는 김구 선생의 저택인 경교장이 보존돼 있어 관람 가능하다. 이제 산행이다. 경복궁이 저 아래 보이더니, 범바위·기차바위·치마바위를 지나 윤동주문학관에 이른다. 시인이 대학생 시절 인왕산을 자주 찾았다 한다. 이 풍경이, 오늘의 이 걸음이 시가 되었을까. 마침내 창의문이다. 끝과 시작이 이어진다.

3코스 남산 구간

광희문~승례문 5.43km
2시간 50분 소요



도시 변화로 일부 멸실된 성벽은 장충체육관 부근에서 다시 나타난다. 해발 271미터 남산을 오를 때다. 줄지는 계단에 힘이 부치다가도 뒤를 돌아보는 순간, 시원한 전망에 씩씩한 마음을 먹게 된다. 한양도성은 태조 이성계가 세운 이후 세종, 숙종, 순조대에 보수했는데 후대로 올수록 축성 기술, 돌 다듬는 기술이 발전해 초기 도성과 중·후기 도성을 비교하는 일도 재미있다. 남산 구간에서 각각 다른 시기 성벽이 나란히 놓인 부분을 찾아보자. 승례문(남대문)으로 내려가기 전에 꼭 뒤를 돌아서 도성 곡선의 아름다움을 만끽해야 한다.



미지의 김치를 찾아서

서울 안국동 골목, 최적의 김치 숙성 온도인 6.5도를 상호로 삼은 한식 타파스 와인 바 '온6.5'가 들어섰다. 그곳에서 온갖 재료로 김치를 담그는 이승미 명인과 김치로 온갖 요리를 시도하는 이정수 셰프를 만났다.

바질김치, 샐러드김치, 아스파라거스동치미가 한데 놓인 광경을 본다. 이국의 재료가 김치로 거듭날 때 일어나는 절묘한 화학작용을 눈에서 입으로, 다시 입에서 눈으로 천천히 감각한다. 분명 새로운 맛인데 어떻게 이토록 이질감 없이 조화롭고 자연스러울까. 알근한 뒷맛에 오렌지 와인 한 잔을 더해 여운을 늘이기로 한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머금고 싶은 맛이어서다. 이 모든 미각적 경험을 직조하는 두 사람, 이승미 한식 명인과 이정수 헤드 셰프가 저 너머 주방에서 벌이는 실험에 대해 소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새로운 김치의 모색 (이승미) 김치라는 전통에 새로운 식재료를 더하면 어떻게 상상했습니다. 처음엔 로즈메리장아찌, 고수동치미 등을 만들면서 바질김치까지 닿게 되었죠. 적당히 발효했을 때 더욱 청량해지는 풍미가 매력적인 바질김치는 나이, 성별, 국적을 불문하고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정수) 명인님의 김치를 토대로 새롭지만 익숙하고, 익숙하지만 새로운 김치 요리를 선보이는 게 제 몫입니다. 김치의 범주를 확장해 현대적 요리로 만드는 일이지요. 일례로 보쌈김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개발한 배추쌈은 레드 와인으로 조리한 돼지고기와 장김치를 볶아 소를 만들고 배추로 곱게 싸 음식인데, 담음새만 보면 어떤 맛인지 짐작하기 어려워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몰랐던 김치 (이정수) 김치의 잠재력은 놀랍습니다. 흔히 고춧가루를 이용해 소를 만들어 배추나 무와 담그는 게 김치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이곳에선 김치를 크게 붉은 김치, 동치미, 장김치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장김치를 얘기할 때 고개를 가웃거리는 분이 계시죠. 간장, 고추장, 된장 등 발효 식품으로 절인 김치를 아우르는 표현이 바로 장김치입니다. 온6.5에선 전복장 등으로 만든 장김치를 맛볼 수 있죠. (이승미) 지난해 한식 페스티벌 총괄 셰프로 아르헨티나에 방문했을 때 파프리카백김치를 선보였어요. 현지 사람들의 반응과 관심이 한국에서보다 뜨거워서 늘



이승미 명인과 이정수 셰프가 즐겨 찾는 미식 공간
(이승미) 경기도 수원 광고호수공원을 마주한 채식 라이브 다이닝 두수고방을 좋아해요. '내가 식재료가 되고, 식재료가 몸을 통해 내가 된다'라는 정관 스님의 메시지를 힘 있게 전달하는 곳이에요. (이정수) 제가 근무했던 비체나를 소개하고 싶어요. 서울 롯데월드타워 81층에 위치한, 세계 최고층 한식 파인다이닝인 이곳은 6년 연속 미쉐린 스타를 받았죠. 한식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공간입니다.

랐던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그곳 식당에서 예기치 못한 김치 요리를 맛닥뜨리기도 했어요. 한국과는 거의 대척점에 위치한 머나먼 나라에서 김치를 맛봤을 때, 새삼 위대한 음식이라는 말이 실감 나더군요. 김치가 더 넓은 세계, 더 다양한 세대와 만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를 게을리하지 않을 겁니다.

한식이 이어 준 인연 (이승미) 처음 한식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어머니 영향이 큼니다. 많은 손님을 성의껏 대접하려고 다양한 발효 음식을 만드셨거든요. 이를테면 취나물김치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덕에 자연스레 한정식 파인다이닝으로 흘러 들어가 실무를 쌓게 됐고, 대형 호텔 한식 파트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온6.5와 김치 브랜드 온달33을 운영하는 CICW에서 이정수 셰프를 만났습니다. (이정수) 저 또한 어머니 음식을 보고 배우며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겠다고 결심했고, 해외 곳곳을 여행하며 요리에 필요한 감각을 익혔습니다. 특히 외국에 체류하는 동안 한식 당에서 일하면서 한국 음식에 깊이 매료되어 한식 파인다이닝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마침 김치를 확장해 새로운 미식 경험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받아 이승미 명인님과 손을 맞추게 되었죠.

주방에서 가장 귀한 것 (이정수) 온6.5의 주방은 집 같습니다. 명인님이 어머니처럼 직원을 챙겨 주시거든요. 늘 흥겨운 기운을 음식에 전달하기 위해 웃으며 일합니다. 우리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리사의 손

온6.5를 대표하는 네 가지 메뉴
먼저, 입맛을 돋우는 김치 플레이트를 소개합니다. 바질, 아스파라거스, 샐러드를 활용해 각각 붉은 김치, 동치미, 장김치를 담갔죠. 이 김치는 따로 먹어도 좋고, 다른 음식과 곁들여도 좋습니다. 한 입에 쏙 넣기 좋은 두 가지 핑거 푸드를 준비했는데, 전복장김치김밥은 다진 묵은지와 참기름을 넣은 밥을 감태로 감싼 뒤 콜리플라워 동치미와 전복장김치를 곁들여 얹고 콜리플라워 푸레로 장식했어요. 김치튀김은 새우 살을 다져 김치소처럼 양념한 후 백김치와 김으로 말아 튀겨 낸 메뉴로, 동치미사워크림을 올려 몽블랑 형태로 완성했죠. 보쌈김치에서 영감을 받은 배추쌈은 다진 돼지고기에 고추장김치와 도라지장김치를 넣어 농밀한 풍미가 일품입니다.

입니다. 요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무엇보다 한식은 손맛이잖아요. (이승미) 주방에서 사람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기물이나 도구는 매뉴얼대로 조작하고, 고장 나면 수리하거나 새것을 들이면 됩니다. 조리 공간의 구성원은 그렇지 않죠. 끊임 없이 소통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안전하고 건강한 주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김치 여행 (이정수) 세계 150여 개 도시를 둘러봤을 만큼 여행을 좋아합니다. 이제껏 다녀온 모든 여행지에서 영감을 받아 오늘의 요리가 탄생한 셈입니다. 요즘 제가 동료들과 즐겨 찾는 미식 여행지는 서울 경동시장입니다. (이승미) 전국을 다니는 동안 별별 식재료를 김치 담그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북 영덕에 갔을 때 대개 우린 물을 사용해 배추김치 담그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어요. 동시에, 대개를 김치 양념에 버무려 걸절이 형태로 내면 더 맛깔스럽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언젠가 꼭 한 번 주방 식구들과 함께 김치를 중심으로 한 음식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②



이정수 셰프와 이승미 명인은 그들의 주방에서 가장 귀한 것을 사람이라 꼽았다.



디저트는 '힙'하고 성수동은 달콤해요

어제도 오늘도 뜨거운
서울 성수동의 디저트 가게를 찾았다.
맛은 기본, 아기자기한 외관까지 사랑스럽다.



프롤라

☞ 크로스타타 7000원 에스프레소 티라미수 5500원
☞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17길 5 ☞ @frolla_seongsu



이곳의 메뉴 크로스타타는 걸 부분에 맛이 응축됐다. 일반 타르트 생지와 다르게 버터를 듬뿍 넣어 자체로 훌륭한 디저트가 된다.



TRAVEL TIP

커피 향 그윽한 카페 거리, 각종 복합 문화 공간, 통통 튀는 팝업 스토어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인 서울 성수동에 발을 디디면 언제나 마음이 들쭉인다. 실내에서 문화생활을 즐겨도 좋지만, 4월에는 서울숲을 거닐며 봄이 빛어낸 풍경을 음미하는 것은 어떨까. 곳곳에 놓인 미술 작품이 걷는 재미를 더하고, 꽃사슴 방사장과 곤충식물원 등에서 살아 숨 쉬는 자연을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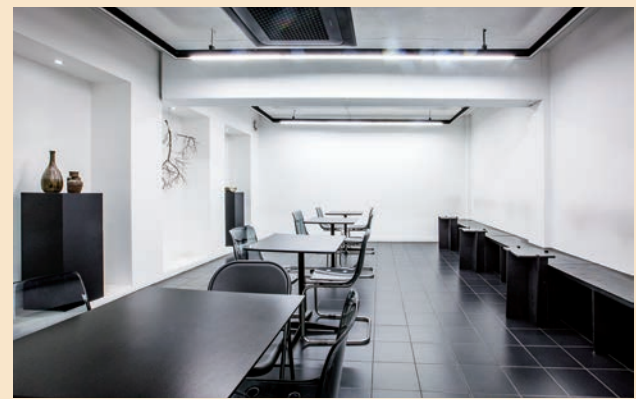
프롤라 사람이 붐비는 거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 강렬한 분홍빛 간판을 단 '프롤라'에서 감각적인 음악이 흘러나온다. 안으로 들어가자 알록달록한 포스터와 벽에 붙은 색색의 접시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카운터에서는 이탈리아 출신 바리스타 파우스토가 손님을 맞이한다. 파우스토는 이탈리아와 호주에서 10년 넘게 카페를 운영한 노하우로 진하고 깊은 에스프레소를 내린다. 자체 개발한 에스프레소 티라미수 등 메뉴도 범상치 않다. 식기 전에 에스프레소 한 잔을 털어 넣고, 포크를 집어 든다. 오늘의 주연인 이탈리아 정통 디저트 크로스타타를 만날 시간이다. 밀가루 반죽에 과일 잼을 얹어서 만든 파이인데, 프롤라는 시기마다 잼 종류를 바꾼다. 파이를 작게 잘라 입에 넣으니 상큼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시나브로 퍼진다. 복숭아와 자두를 섞은 잼이 새콤달콤해 물리지도 않는다. 여기에 젤라토처럼 쫄쫄한 바닐라 크림을 곁들이면 금상첨화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침 식사로 크로스타타와 라테를 먹죠. 파이를 라테에 찍어 먹기도 해요." 배우희 대표가 활기찬 목소리로 팁을 건넨다. 맛을 즐기는 새로운 방법이라니,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라테 한 잔 더 주문할게요."



칸토

☞ 블랙 파운드 5500원 블랙에이드 7000원
 ☞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길 20 지하 1층 @kanto_cafe

칸토 성수동에서 콘셉트에 '진심'인 공간을 꿈꿀 때 빼놓을 수 없는 카페다. 정갈한 간판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면 흑백 세상이 펼쳐진다. 카운터부터 의자, 테이블이 다 검정과 흰색으로 이뤄졌다. 음료와 디저트마저 콘셉트에 충실하다. 블루베리 에이드인 블랙에이드, 검은 파운드케이크에 흰 크림을 올린 블랙 파운드 등 칸토의 시그니처 메뉴는 모두 무채색이다. 당일 생산, 당일 소진이 원칙인 디저트는 당도도 높지 않아 음료와 궁합이 잘 맞는다. 무채색 옷을 입고 가 사진을 찍어도 좋겠다.



감도성수

☞ 조약돌 바질 들판 2만 1000원 말돈소금 아이스크림 6900원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83-21 디타워 서울포레스트 지하 1층 @gamdo.official

감도 성수 '아이스크림 파인다이닝'이라는 소개가 어울릴 정도로 고급스러운 아이스크림을 낸다. 영화 196도 식용 액화 질소로 아이스크림을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희뿌연 연기가 입구에서 손님을 반긴다. 주문 즉시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데, 생김새가 심상치 않다. 들판을 그대로 옮겨 온 듯한 조약돌 바질 들판은 조약돌 머랭 쿠키와 바질 아이스크림, 유자 매리네이트 토마토와 쿠키 크림블을 조합한 메뉴다. 바질과 토마토의 산뜻함, 머랭 쿠키와 크림블의 바삭함이 더해져 청량한 맛을 선사한다.



북바람 타고 온 은빛 열치

제27회 기장 anchovy 축제

The 27th Gijang Anchovy Festival

2023.4.21(금) ▶ 23(일)
 기장군 기장을 해변항 일원

행사프로그램

21일(금)
 풍물퍼레이드 | 멸치축제감쪽경매 | 멸치회무료시식회 | 워터보드쇼
 기장주민문화자랑 | 도전!멸치왕 | 기장버스킹페스티벌
 은빛뮤직페스티벌 | 칼놀이퍼레이드 | 개막식 | 기장은빛콘서트

22일(토)
 풍물퍼레이드 | 멸치축제감쪽경매 | 멸치회무료시식회 | 워터보드쇼
 기장멸치가요쇼 | 미역채취체험 | 도전!멸치왕 | 맨손활어잡기
 기장재즈 락 페스티벌 | 기장품바쇼 | 기장멸치은빛가요제(예선)
 기장은빛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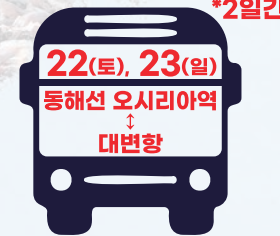
23일(일)
 풍물퍼레이드 | 멸치축제감쪽경매 | 멸치회무료시식회 | 워터보드쇼
 멸치댄싱스타 | 미역채취체험 | 7080기장라이브 | 맨손활어잡기
 기장 멸치 가요쇼 | 도전!멸치왕 | 은빛퓨전국악페스티벌
 기장멸치은빛가요제(결선) | 폐막식(가요제 시상 및 경품추첨)

초청가수



21일(금) 장윤정 22일(토) 박서진 23일(일) 이호섭

무료셔틀버스 운행



*2일간 *수시운행 : 09:00 ~ 18:00

무 료 체 험 : 맨손활어잡기(사전접수) | 미역채취체험(현장접수)
특 별 행 사 : 기장멸치가요제(사전접수) | 멸치회무료시식회 | 워터보드쇼
문 의 | 접 수 : 기장멸치축제추진위원회 (051-721-4063)

| 주최·주관 | 기장멸치축제추진위원회 (문의:051-721-4063)
 | 후 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의회, 기장군의회, 한국수력원자력(주)고리원자력본부, 기장수협, KBI건설, 해운대비치골프앤리조트, 대변멸치유자망협회, 대변항상가변영회, 기장수협중소매인협회, 대변해조류양식협회



구욱희씨

☞ 레몬에 빠진 딸기 4500원 초코 스콘 5000원
 ☞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4길 12-22 @koowookheecafe

구욱희씨 '쿠키'라는 단어를 한국 이름같이 표현한 상호명처럼 '구욱희씨'는 그야말로 쿠키의 세계 그 자체다. 주메뉴는 쿠키, 케이크 등 구움 과자 디저트. 가게 로비에는 3~4센티미터 두께의 르뱅쿠키, 컵케이크 모양으로 만든 컵쿠키, 쿠키 사이에 크림을 바른 샌드쿠키 등 아기자기한 생김새의 쿠키가 즐비하다. 레몬에 빠진 딸기는 아몬드 파우더로 만든 샌드쿠키다. 레몬 필과 레몬 크림, 동결건조 딸기가 들어가 달달하면서도 새콤한 반전 매력이다. 초콜릿을 녹여 쿠키를 캐릭터화한 초코 스콘도 인기가 높다.



소소하게

☞ 백설기 5800원 살라테 5500원
 ☞ 서울시 성동구 성덕정길 27 ☎ 02-465-5554

소소하게 김성미 대표는 아토피피부염으로 고생하면서 자신이 먹기 어려운 밀가루를 빵 재료로 써야 했다. 쌀 베이킹의 존재를 알고 난 후, 그는 쌀 빵을 만들기로 다짐한다. 우유 케이크와 비슷한 시그너처 메뉴 백설기는 우유 크림과 쌀 시트만으로 달콤하면서 담백한 맛을 자아낸다. 떡과 같은 식감일 거라 상상하면 곤란하다. 밀가루를 사용한 빵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식감을 자랑한다. 쌀 케이크 숙절미에 시그너처 음료인 살라테를 곁들여 보자.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편안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6,000만원대로 누리는
 2억원가치의 독보적 혜택 프리미엄 멤버십 출시!!



글로벌 리더 컴퍼니로 도약하는 대명리조트의 새 이름 2023년 소노호텔앤리조트 신규회원모집

새 브랜드로 글로벌 체인 사업에 나선 **소노호텔앤리조트(구. 대명리조트)**가 **VIP 고객을 대상으로 '이그제큐티브클럽(Executive Club)' 멤버십을 출시했다.** 이그제큐티브 클럽은 럭셔리 호텔 서비스와 실속있는 리조트 서비스를 결합한 프리미엄 회원권으로 식음, 골프, 승마, 요트 혜택 등을 담아 고객에게 스페셜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한다.

소노호텔앤리조트는 국내 최대 규모인 전국 16곳 체인망과 11,000여개가 넘는 객실을 보유하여 업계 1위를 자부한다. 폭넓은 여행지 선정은 물론 레저&스포츠 시설을 신규 회원권 하나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개인 및 법인 명의로 분양이 가능하며, 이번 이그제큐티브 클럽은 회원제 상품으로써 20년 만기시 전액을 반환 해준다.

이그제큐티브 클럽 멤버십은 기존의 회원권과 완전히 차별화하여 신규 특별 혜택뿐만 아니라 입회 기간 내내 상시 혜택을 제공받는 것이 특징이다. 정회원은 연간 2인 10회 조식 뷔페와 노블리안 라운지 음료 30회가 무료이며, 호텔 내 휘트니스, 수영장, 사우나, 발렛 파킹 서비스 등이 상시 제공된다. 또한 정규 18홀의 소노펠리체 CC(비발디파크 WEST, EAST/델피노), 오션월드, 스키, 승마클럽, 요트 등 다양한 레저&스포츠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소노호텔앤리조트 측은 "타 업체와 다른 전문 교육을 이수 레저컨설턴트가 상담부터 계약 및 예약까지 1:1 회원 전담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소노호텔앤리조트 회원권의 가치는 '지속적인 개발과 인수 사업'으로 지난 **2021년 10월 소노펠리체 델피노가 그랜드 오픈**했으며, 브레이크힐스 등이 개발 중이다. 특히 이그제큐티브 클럽 멤버십은 회원권 시장에 없는 **독보적인 혜택을 담은 멤버십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이번 신규회원 모집에 대한 분양 카탈로그를 배송해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문자 메시지로 성함 및 주소를 보내주세요. **H.P 010-4140-6540**

문의전화 **02)2222.5917**
 (주말 및 24시간 상담가능)





강원도 영월 쌀과 국산 포도로 빛은 보라색 맥걸리

동강주조_얼떨결에 퍼플 4.4점

김현정 맛있어서 소음~ 정말 맛있다고요. '술알못'인 내가 무려 50밀리리터는 마신 것 같다. 오늘 과음했네. 와, 맛있어요. 취해서 주정 부리는 거 아니에요. 맛있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영월을 사랑할 또 다른 이유가 생겼당♡ ★★★★★ / 김규보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아서 이름을 불렀다. "얼떨결에 퍼플!" 청량하게 터지는 포도 맛이 나에게로 와서 술이 되었다. ★★★★★ / 강은주 얼떨결에, 알딸딸해, 어떡해 나. (아직 원고도 다 못 썼는데...) 블루베리 요거트에 샴페인의 청량감을 더한 것 같은 이 맛, 기분을 온통 보랏빛으로 적신다. ★★★★★ / 남혜림 깜찍한 보랏빛에 호감! 달달한 포도 향에 호감 한 번 더! 툭툭 튀는 탄산까지? 얼떨결에 퍼플, 너 이렇게 귀여운 맥걸리였어? ★★★★★

4.1점 너드 브루어리_너디호프

김현정 바질+맥걸리라서 겁났지만 내가 누구지? '에디터 체험기'를 위해 민트초코도 도전한, 포기를 모르는 에디터지. 용기 내어 한 모금 하니 은은한 단맛이 기분 좋다. 상주의 옛 술을 복원하는 청년들이 만든 술, 응원해요~ ★★★★★ / 김규보 "너디호프 맥걸리!"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바질 향기 감미로운 술이 내 이름을 불렀다. "김규보!" 나도 너에게 술이 되고 싶다. ★★★★★ / 강은주 귀여운 패키지가 10점, 바질 향과 새콤한 맛을 조화시킨 풍미 100점. 당장 너드브루어리의 다른 제품 너디키와 너디핀치를 주문하러 간다. ★★★★★ / 남혜림 바질 페스토, 바질 토마토 피자 등 바질이 들어간 음식이라면 뭐든 좋아하는데요, 바질과 맥걸리의 만남은 말리고 싶어요. 바질 맥걸리아, 미안. 우리 다음 번에 다른 형태로 만나자. ★★★★★



경북 상주 바질과 쌀이 만난 내추럴 맥걸리

맥걸리 신세계

톡톡 튀는 매력에 맛과 색까지 다양한 맥걸리에 취한다. 네 명의 에디터가 지역의 특이한 맥걸리를 모아 마셔 봤다.



전남 곡성 쌀, 머스크멜론으로 만든 멜론 맛 맥걸리

시향가_우주멜론미 4.3점

김현정 우주멜론미? 네, 결혼합시다. 술 못 마시는 나도 홀리는 맛이다. 달달한 곡성멜론 먹고 설탕은 한 번 빼 보시죠. 마시려면 병따개가 필요한 구조라 오랜만에 주방 서랍 뒤져 봐야겠다. ★★★★★ / 김규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멜론의 풍미가 가득해서 "우주멜론미!" 불러 주었다. 누가 또 내 이름을 불러 다오. 우리는 모두 술이 되고 싶다. ★★★★★ / 강은주 이름만큼 귀여운 맛. 전남 곡성이 쌀과 멜론으로 유명한 고장이었다는 걸이 제품 덕에 알았다. 은은한 달콤함이 혀끝에 오래 남는다. ★★★★★ / 남혜림 당도 높기로 이름난 그 곡성멜론이 들어갔다니 믿고 마시니다(저는 멜론을 정말 정말 사랑해요). 멜론과 달큰한 맥걸리의 조화, 실패할 리가 없죠. 우유를 먹는 것 같은 오묘한 뒷맛이 마음에 쏙 들어요. 한 병 더 주세요! ★★★★★

4.6점 독 브루어리_디오케이 애플 맥걸리

김현정 맥걸리가 이렇게 상큼할 리가...! 고정관념을 뒤흔든다. 사과 요구르트 맥걸리 맛이라고 이름 붙여 출시해도 되겠다. 라벨에 '맛있어서 미안하다'라고 쓰여 있는데, 그 '사과' 받아들일게요. ★★★★★ / 김규보 "김규보!" 사과 맛이 정말 상큼한 술이 또 내 이름을 불러 주었다. 나는 너에게 맞지 않는 하나의 술이 되고 싶어 나도 불렀다. "디오케이 애플 맥걸리! 별이 다섯 개!" ★★★★★ / 강은주 경기도 파주와 김포, 두 접경 지역의 특산물로 빛은 맥걸리라 어쩐지 금단의 맛일 것 같았는데 이렇게나 부드럽다니. 어떤 경계도 허물 맛이다. ★★★★★ / 남혜림 아아, 맥걸리가 이렇게나 맛있는 술이었던가요. 상큼한 사과와 우윳빛 맥걸리가 저와 춤을 추는 것 같아요...! 헉! 정신을 차려도 다시 마시게 되는 마성의 맥걸리. 재구매 의사 100퍼센트입니다. ★★★★★



경기도 파주 사과와 김포 금쌀의 만남! 사과 맛 맥걸리

문근영*

http://www.youoneja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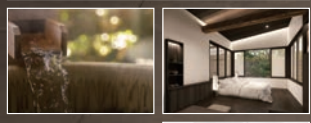


유원재 스파&호텔



몰입 가능한 휴식

하루 동안 정원을 바라보며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 유원재 수안보가 품은 아름다운 풍경과 심신에 마스함을 더하는 온천. 진정성이 담긴 공간적 체험을 통해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온전한 몰입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충북 홍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305

수안보온천 留園文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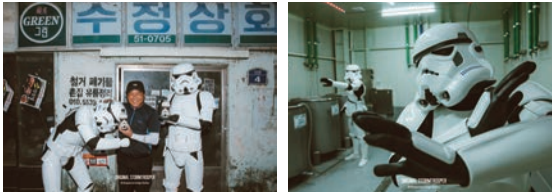
밀양의 진심

성실하게 만들어 건네주는 경남 밀양의 상품들이 이 고을을 오래 기억하게 한다.

밀양

1

(스툼탁주) 긴장하라. 영화 <스타워즈>의 악당, 스톨트루퍼가 나타났다... 응? 밀양쌀만 쓰며 인공감미료는 가미하지 않아 맛나고 깔끔하기로 소문난 밀양클래식술도가의 탁주다. 크리에이터 그룹 우주라이크와 협업한 라이선스 상품으로, 맛과 향을 배가하고자 발효할 때 클래식 음악을 트는 정성 그대로 정갈하니 깊다. 탁주를 마시는데 우주를 정복하는 기분이 드는 건 덤. **밀양클래식술도가 055-356-1616**



2

(돼지감자 감식초) 다른 건 몰라도 식초 하나만은 누구보다 잘 만든다 자신하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연구와 실험을 거듭했다. 조숙재 대표는 감꼭지를 하나하나 제거하고 발효한 뒤, 향아리에 담아 다시 발효하고 3년간 숙성한다. 이렇게 공들여 빚는 식초에 경남한방향노화연구원에서 전수한 기술을 접목해 돼지감자 감식초를 개발했다. 마음을 다한 자연의 맛이 싱그럽다. **감익는마을 천연식초 010-9327-6651**



3

(예술대장간 밀양 굿즈) 밀양을 방문한 여행자 가운데 아는 이는 꼭 찾는다. 내이동에 위치한 이곳에서 지역 작가들은 밀양 굿즈를 선보인다. 표충사와 영남루 같은 명소와 밀양 출신 독립운동가 김원봉 등을 부채, 머그잔, 마그네틱, 미니어처 소품처럼 다양한 굿즈로 표현했다. 공장에 맡기지 않고 지역 풍경과 이야기를 살려 손수 담아낸 밀양 예술가의 진심이 고맙다. **예술대장간 010-3994-1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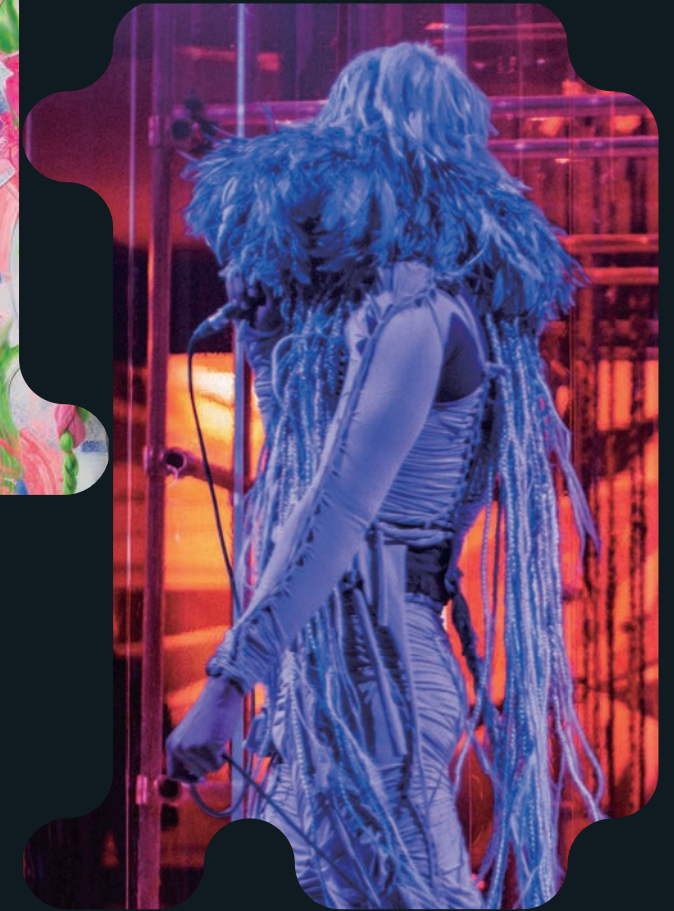
(국바비) 밀양 사람의 애환을 달래 주다가 그 맛이 대단해 한국인이 사랑하게 된 밀양돼지국밥. 이제 국바비도 만나니 밀양 여행이 더 즐겁다. 밀양돼지국밥 캐릭터인 국바비의 이름은 국밥을 부드럽게 발음한 것이다. 초롱초롱하고 양증맛아 국밥을 함께 먹으면서 친해지고 싶다. 밀양의 여러 축제에 등장하기에 기회가 없진 않아 다행. 밀양역 관광안내소에서 인형 등을 판매한다. **밀양시청 055-359-5788**

4

리뷰

캐네디

Mar 16th 2023 — June 4th
Jeonnam Museum of Art



에이시

2023.03.16 — 06.04.

전남도립미술관 전시실5

듀시

Q. 남도 문학 또는 남도 문인에게서 영감을 받은 동시대 미술 작품을 모은 전시 <시의 정원>에 '스틱스 심포니'로 참여하셨습니다. 감회가 궁금합니다. A. 국내외 곳곳을 오가며 작업과 연구를 이어가던 제게 팬데믹은 한때 붙들고 가까이 두었던 것을 돌아보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시집을 펼쳐 들고 오래전 좋아했던 문장, 여전히 내게 소리치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는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조금씩 다시 읽고 쓰면서 생각을 거듭하던 중 지난해 서울 리움미술관에서 열린 <아트스펙트럼 2022>에 초대되어 '스틱스 심포니'를 처음 선보였습니다. 작업에 몰두하던 2021년은 마침 '스틱스 심포니' 제4악장에 등장하는 고정희 시인이 타계한 지 꼭 30년이 되는 해이기에, 시인에 대해 다시금 여러 사람과 함께 사유하고 이야기 나눌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시의 정원>전 참여 제안을 받았을 땐 전남 해남 출신인 고정희 시인의 문학적 원류에서 작업을 선보일 기회라 더욱 반가웠습니다.

Q. 전시 개막일에 인상적인 만남을 경험하셨다고요. A. 관람객 한 분이 제게 오시더니, 자신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장에 있었던 사람이며, 1978년도에 광주에서 고정희 시인과 잠시나마 활동을 함께 한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스틱스 심포니'에 담긴 이야기와 소리, 이미지에 대해 누구보다 풍부한 해석과 감상도 들려주셨죠. 작가인 제게 전시 오프닝은 늘 긴장되고 초조한 일이지만, 응당 만나야 할 인연과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하더군요. 오프닝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그 만남을 한동안 곱씹었습니다.

Q. '스틱스 심포니'에는 고정희 시인을 포함해 정치적·역사적 아픔을 몸과 마음에 새긴 여성 시인의 시가 등장합니다. 시인의 존재감과 시어가 곧 스틱스(저승의 강, 또는 그 강의 여신)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왜 네 사람의 시여야 했을까요. A. 전 고정희 시인을 통해 여성의 언어와 글쓰기, 시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필두로 여러 여성 시인의 작품을 읽으면서 다양한 세계와 언어의 가능성을 발견했지요. 무엇보다 소수자와 약자, 변방의 목소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인 구리하라 사다코, 나치와 전체주의를 경험한 비스와바 심보르스카, 흑인 인권운동가 마이아 앤절로, 5·18민주화운동을 겪어 낸 고정희까지. 생존자이자 목격자인 네 시인은 시어에 증언과 고발의 메시지를 담고, 위로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시가 흐르는 강가에 서서

시인의 문장과 시어를 낭독하는 목소리가 신비로운 영상 위로 휘몰아친다. 전남 광양 전남도립미술관 <시의 정원>전문을 열어젖히는 작품 '스틱스 심포니'의 안유리 작가와 공감각적 대화를 나눴다.

▶ 안유리 작가가 기차 여행자에게 추천하는 시와 음악

"몸이 떠나거나 마음이 움직이는 상황을 그린 시, 그리고 기차에서 자주 듣는 음악입니다."

- 📖 '빙하기의 역', 허수경
- 🎵 '땅의 사람들 14-남도행', 고정희
- 📖 '태양의 서쪽', 김선재
- 🎧 'Universal Traveler', 에어(A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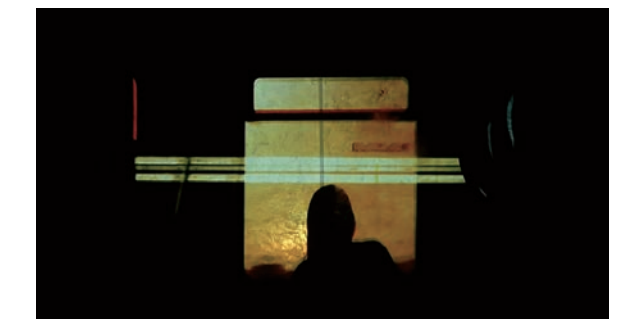
안유리, '스틱스 심포니', 2채널 영상 설치, 15분 51초, 2022 © 강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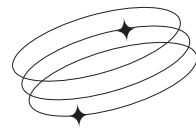
Q. 작업의 소재로 시와 영상을 다루는 연유는 무엇인가요. A. 저는 보통 텍스트로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떠오르는 단어 혹은 문장을 적어 내려가다가 그것을 소리 내 읽어 보면 예기치 못한 이미지와 사운드가 떠오르곤 했죠. 그건 마치 하나의 직물을 짜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텍스트와 이미지와 사운드라는 씨실과 날실이 교차하고 횡단하면서 작업이 시작될까요. '스틱스 심포니'의 경우 텍스트로 이루어진 시어가 소리와 이미지로 옮겨 가는 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시공간에 존재했던 역사적 사건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현재 관점에서 다시 불러내는 일을 상상했습니다. 여기에 4악장의 구성을 지닌 심포니 형식을 빌려 와 구조를 완성해 텍스트, 사운드, 이미지라는 세 요소를 공감각적으로 체험하도록 했죠.

Q. 가로 길이가 긴 2채널 영상 작업 '스틱스 심포니'는 언뜻 열차의 창가 풍경과도 비슷하게 다가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기차 여행의 순간이 있나요? A. 상대성이론에 대해 알아보다 막막한 마음에 독일 포츠담의 천체물리학 관측소 아인슈타인투어에 찾아가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살았는데, 경비를 아끼고 여행도 할 겸 일곱 시간에 걸쳐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차창 너머 달려가고 밀려 나가는 풍경을 맞닥뜨리면서 자연스럽게 상대성이론의 '기차 실험'이 떠올라 곧장 그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했죠. 훗날 이 촬영본은 동명의 이론을 빌려 와 '동시성의 상대성'이란 단채널 영상 작업으로 완성했습니다. 기차라는 공간이 물리적 감각을 혼동해 빠트리며 풍경의 이중적 속도를 감각하게 했고, 뜻밖의 결과를 낳은 셈입니다.

Q. 작가님의 다음 여정이 궁금합니다. A. 최근 자주 하는 질문은 '인간은 왜 이렇게 나와 다른 존재를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일까?'입니다. 국적, 인종, 계급 등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모색해 온 제 오랜 물음표와 궤를 같이하죠. 현재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찾아보는 중인데, 올해 안에 조금은 진척된 작업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포에트리 위버(poetry weaver)'로서, 이미지와 텍스트와 사운드를 직조하는 자로서 영상 매체를 활용해 보다 자유롭게 메시지와 감정을 재생하려 합니다. 지워지거나 이름 없이 사라진 목소리들을 지금 여기로 불러내어 우리와 연결시키는 일이기도 하지요. 📌

안유리 1983년 서울에서 태어난 안유리는 텍스트와 이미지, 시간과 공간, 지역과 문화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미술가다. 시와 영상을 중첩하거나 병치하는 작업 방식이 기묘한 감흥을 자아낸다. 그는 시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어쩌면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곳'에 수많은 사람과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의 작품 '스틱스 심포니'는 전남 광양 전남도립미술관 <시의 정원>전에서 6월 4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what's up



• FESTIVAL •

2023 섬 튜립축제

신안	04.07~16
----	----------

부드럽게 부는 봄바람에 튜립이 활짝 피었다. 전남 신안 입자도가 탐스러운 튜립의 향연으로 여객자를 초대한다. 튜립을 직접 화분에 심거나 튜립 무드등 및 액세서리, 압화 엽서를 만드는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기본, 조희룡미술관 1층에서는 '입자도 흥매화에 물들다'와 같이 튜립 외에도 봄꽃인 흥매화를 주제로 한 작품 20여 점과 미디어 아트를 전시한다. 색색의 튜립이 만든 물결로 아름다운 입자도에서 인생 사진을 남기고, 봄꽃도 마음껏 감상할 기회다.

장소 전남 신안 신안튜립공원 일원 문의 061-240-4041



프로모션

노래하며 춤추며, 경기도로 떠나는 음악 여행

빈티지 오디오를 비치한 매력적인 음악 감상실부터 책과 음악을 아우르는 도서관까지, 속살거리는 계절의 노래를 따라 경기도 소재 음악 문화 공간 여섯 곳으로 봄나들이 떠난다.



파주 흥인용 뮤직스페이스 카메라타

헤이리 예술마을에 자리한 카메라타는 아날로그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클래식 음악 감상실이다. 건축가 조병수의 손길이 닿은 장중한 노출 콘크리트 건물에 들어서면 100년 전에 만들어진 빈티지 오디오와 1만 5000여 장의 LP가 경이로운 음향을 구현하며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주소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83
문의 031-957-3369



의정부 의정부음악도서관

음악, 책, 공간이라는 세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음악 전문 공공 도서관이다. 1·2층에는 다양한 분야의 책과 악보를 비치했고, 하이라이트인 3층 뮤직스테이지에는 재즈, 클래식, 힙합 등 온갖 음악 장르를 아우르는 CD와 LP를 진열했다. 듣는 즐거움을 한껏 누리며 오래 머물고 싶은 곳이다.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280
문의 031-828-4850



동두천 두드림뮤직센터

신중현과 조용필, 패티김과 나미의 공통점은 동두천 보산동의 클럽 무대를 거쳤다는 것이다. 한국 록 발원지인 동두천에 밴드 음악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문화 공간이 올라섰다. 1층은 공연장, 2층은 미 8군 무대에서 활동한 1세대 뮤지션을 소개하는 전시실, 3층은 녹음실과 연습실로 이뤄진다.

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로216번길 42
문의 031-860-2726

가평 음악역1939

가평역이 영업을 시작한 1939년을 상징하는 복합 음악 문화 공간이다. 공연장과 '1939 시네마' 영화관, 북 카페 등을 갖춘 뮤직센터, 스튜디오·연습실·레지던스 등 음악 관련 시설, 지역 특산물 매장 등을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콘트라베이스를 다섯 배 키기로 확대한 조형물이 시선을 끈다.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00
문의 031-580-4321



성남 신해철거리

뮤지션이자 시대의 아이콘, '마왕' 신해철의 삶과 음악을 기리는 거리다.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160미터 남짓한 길에 신해철 동상과 밴드 넥스트의 머리글자 'N'을 형상화한 대문이 음악 여행자를 반긴다. 거리 한편엔 그의 흔적이 고스란한 작업실이 자리해 마음을 몽클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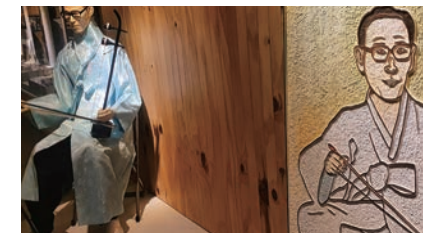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발이봉로3번길 2
문의 031-711-0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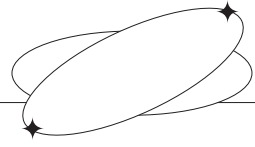


평택 지역희곡극관

구전민요 채보, 국악관현악단 창단, 한국인 최초 미국 카네기홀 공연 등 국악의 대중화·현대화·세계화를 이끈 지역희 선생의 생애를 소개하는 곳이다. 평택호관광단지에서 위치한 전시관에는 선생이 사용한 해금과 피리, 태평소, 친필 악보 등 소장품이 고아한 자태로 진열되어 있다.

주소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평택호길 147
문의 031-8024-8689





what's up



• EXHIBIT •

<리처드 케네디: 에이시-듀시>

→ 광양 → 03.16~06.04

독일 베를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미국 예술가 리처드 케네디의 개인 전시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공연을 펼치고, 음악을 작곡하는 등 일찌감치 예술에 재능을 드러냈다. 오페라는 그의 작품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학교에서 배운 오페라에 매료된 후 이를 작업 세계의 기반이자 자신의 삶에 대한 은유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의 삶과 경험이 녹아든 신작 영상과 20여 점의 회화를 감상한다.

장소 전남 광양 전남도립미술관 문의 061-760-3242



• EXHIBIT •

<다시, 자연에게 보내는 편지>

→ 서울 → 04.04~06.04

그 자체로도 문화재인 문화역서울284가 공예의 미를 알리는 전시를 연다. 공예품은 본래 모두 땅에서 온 것이라는 신념 아래, 자연에 가깝거나 자연과 닮은 작품을 모아 소개한다. 1층에는 2022년 밀라노 한국공예전을 재구성한 코너 '다른 말, 같은 숨'을 마련했고, 2층에서는 한국 신진 작가들의 시각을 투영해 상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설치 작품과 유리 공예품 등을 선보인다.

장소 서울 문화역서울284 문의 02-3407-3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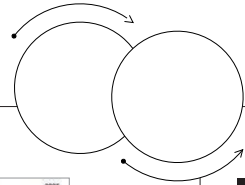
가슴이 뻥! 뚫리는 이곳

서북부 최전방 정원
화개정원으로 오세요

화개정원

GRAND
2023. 5.
OPEN





what's up



• SHOW •

2023 스프링페스티벌

● 대전 ● 04.14~05.02

대전예술의전당이 '봄, 다시 봄'이라는 주제로 각종 예술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는 축제는 청년 안무가 정석순의 작품 <기도>, 독일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연극 <갈릴레오 갈릴레이>, 클래식 음악 공연 <브람스 아벤트>로 이루어진다.

장소 대전예술의전당
문의 042-270-8333



• FESTIVAL •

<깊이에의 권유 I - 노인과 바다>

● 인천 ● 04.21~22

동서양의 문학작품을 판소리, 음악, 연극으로 재창작하는 시리즈의 첫 번째 공연이다. 미국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소리꾼이자 음악감독, 연출자 등 광범위한 활동을 펼치는 이자람의 판소리로 만난다. 판소리가 관객을 적막한 망망대해 한가운데에 데려다 놓는다.

장소 아트센터 인천
문의 032-453-7700



• SHOW •

<추남, 미녀>

● 서울 ● 04.12~05.21

프랑스 작가 아멜리 노통브의 소설 <추남, 미녀>를 각색한 연극이다. 2019년 초연에 이어 4년 만의 앙코르 공연으로, 데오다 역과 트레미에르 역을 맡은 두 배우가 100분 동안 스무 역을 맡는다. 두 배우는 실 틀 없이 다역을 소화하면서 캐릭터의 개성도 놓치지 않는다. 트레미에르와 데오다가 각자의 시련, 아픔을 딛고 사랑에 이르는 과정에서 내면의 아름다움이 지닌 힘을 보여 준다.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문의 02-580-1300



• FESTIVAL •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 전주 ● 04.27~05.06

'우리는 늘 선을 넘자'라는 슬로건으로 전주국제영화제가 돌아왔다. 배우나 감독이 프로그래머가 되어 상영작을 기획하는 'J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 전주시네마프로젝트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등 프로그램이 가득하다. 지난해 수상작 세 편을 배리어프리 버전으로도 상영한다.

장소 전북 전주 영화의거리 일대
문의 02-2285-0562



• FESTIVA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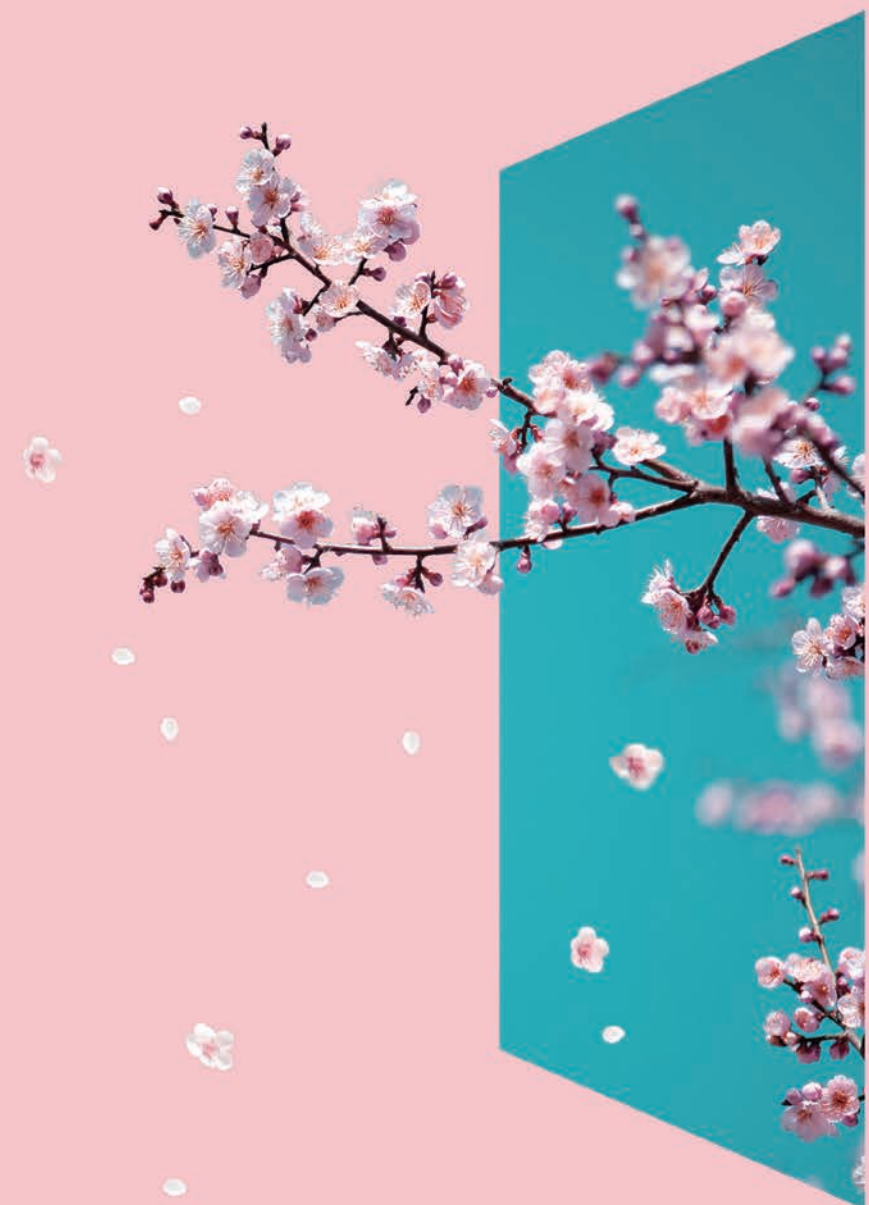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

● 진도 ● 04.20~22

전남 진도 고군면 회동리와 의신면 모도리 사이, 조수 간만의 차로 약 2킬로미터에 이르는 바닷길이 드러난다. 축제 기간 동안 진도의 찬란한 무형 문화유산인 진도아리랑, 남도들노래, 진도씻김굿, 진도다시래기, 진도북놀이 등 잔치 한마당이 벌어진다. 다양한 즐길 거리는 덤이다.

장소 전남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일원
문의 061-544-0151

다시
찾아
오는
영월의
봄



제56회 단종문화제

KING DANJONG CULTURE FESTIVAL

2023. 4.28(금) ▶ 4.30(일)

세계유산 장릉 · 문화예술회관 · 동강둔치

영월이 그대에게

숲이 우거지고 강이 굽이도는 곳, 강원도 영월은 들려준다.

슬프고 기쁘게 제 품에 깃들여 산 생명들의 길고 긴 이야기를.

寧 越



조선 6대 왕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청령포로 유배됐다. 삼면이 서강에 둘러싸이고 나머지는 산에 막힌 육지 속 섬이다. 지금도 배를 타야 들어간다. 문의 033-372-1240

려준다. 산천이 기억하는 이야기를 짚어 저를 찾아온 객 앞에 펼친다. 첫 장은 이곳, 어린 왕의 유배지 청령포다.
 단종은 조선의 여섯 번째 왕이다. 아버지 문종이 즉위 2년 만인 1452년에 요절하자 그해 임금이었다. 무르익은 계절은 꽃을 피우고 함박눈을 내려 세상을 덮는다. 임금은 열두 살이었다. 이른 계절, 꽃봉오리는 연약하며 꽃눈은 가늘어 사라지기 쉽다. 시간이 필요했다. 봄이든 겨울이든 세월이 지나 어김없이 온다. 결국 꽃이 피어날 것이었다. 대지는 하얗게 물들 것이었다. 하나, 임금은 열두 살이었다. 나라를 지고 가기에 연약하고 가늘어 사라지기 쉬웠다. 즉위 이듬해 숙부가 계유정난을 일으켰다. 수양대군은 좌의정 김종서를 습격해 제거하고 연이어 신하들에게 칼을 휘둘렀다. 아들을 지켜 달라는 선왕의 당부 받들던 중신들이 역모의 누명을 뒤집어쓴 채 망자가 되었다. 이제 임금을 지킬 사람은 없다. 서러운 마음을 앞장서 다독여 줄 사람도 없다. 1455년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양위했다. 꽃봉오리는 꺾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임금이 탄식했다는 기록이 남았다. 길게 내

뉘 숨에 작더라도 희망이 숨었는지 모른다. 어제로 되돌리자는 게 아니라 단지 내일을 살겠다는 희망. 하지만 왕은 한 명이어야 했다. 권력의 꼭대기로 치닫는 숙부에게 조카는 넘어야 할 마지막 고개였다. 1457년, 청령포로 유배를 왔다. 서강이 삼면을 에워싸고 나머지 서쪽을 산이 막은 육지 속 섬, 청령포는 여전히 배를 타야 들어가는 벽지다. 단종 또한 보았을까. 가는 빛이 모여 낸 길을 따라 오직 솔바람만 계속 청령포를 빠져나가고 있다.
 송림 한편, 그가 머문 집을 복원한 단종어소에 들었다. 봄의 온기가 사위를 적신다. 마당에서 자라는 나무는 몇 그루뿐이어서 하늘이 마음껏 넓고 푸르다. 막다른 곳이 왜 이리 아름다운가. 아이는 열일곱 청년이 됐는데 깊숙한 여기에 갇혔다. 한창 뻗을 시기를 숨죽이고 굵어 살았다. 홍수를 피해 영월의 객사 관풍헌으로 유배지를 옮기기 전까지 두 달간 청령포는 웅그린 청년의 온 세상이었다. 그 세상은 꽃이 피지 못하고 함박눈은 닿지 않는다. 우리는 하늘을 당겨 마당에 내려놓았다. 꺾였어도 보이기를, 향기롭고 순백한 지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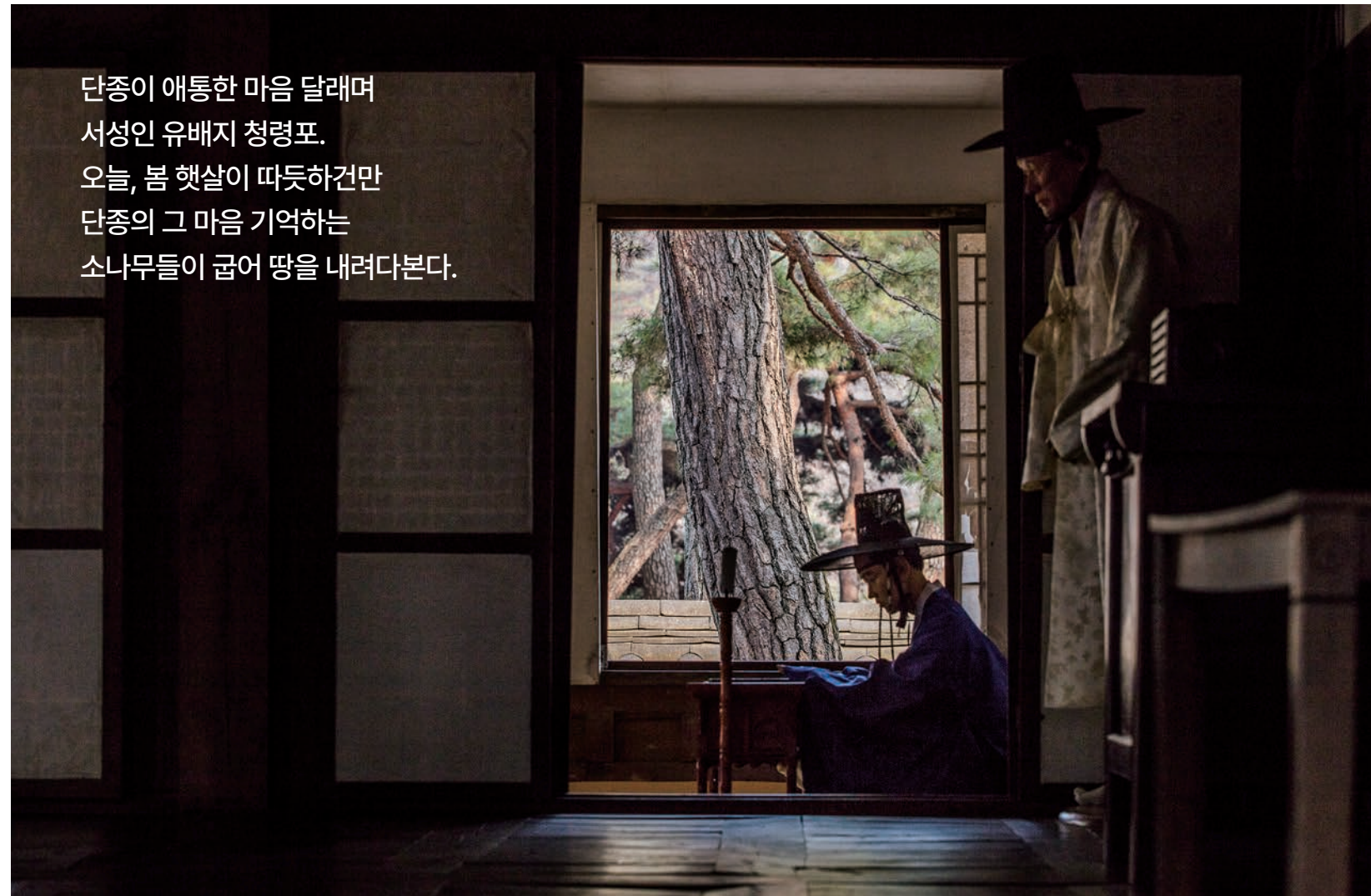


책을 펼쳐 첫 장을 읽는다. 영월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청령포에 바람이 분다.” 불어오는 대로 송림 나뭇가지들이 흔들린다. 살짝, 그러나 서걱 소리는 오래 울려 번진다. 송림은 높고 울창하다. 솔잎 무더기에 가린 하늘이 성긴 햇발을 뿌린다. 질으며 뻑뻑한 소나무 그림자 사이에서 몇 가닥 빛이 땅에 튕겨 쏜다. 가는 빛이 모여 낸 길을 따라 바람이 솔바람 되어 청령포를 빠져나간다. 어떤 때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고요하게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다.

하늘이 푸르러 서러운 유배지, 청령포

영월은 글을 읽어 주는 것 같다. 한편에서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맞은편에서 차령산맥이 장벽을 쳤기에 여기는 곡곡이 험준하다. 산간에 터를 틀어 산 까닭이 아니 간절했을까. 능선과 골짜기를 오르내리는 삶에 곡절 하나쯤 없었겠고. 산마다 그것을 붙잡아 올라야 한 사연, 강마다 그것에 기대 흘러야 했던 이유가 박혀 오늘도 영월은 들

단종이 애통한 마음 달래며
 서성인 유배지 청령포.
 오늘, 봄 햇살이 따듯하건만
 단종의 그 마음 기억하는
 소나무들이 굵어 땅을 내려다본다.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청량리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영월역까지 2시간 10분 정도 걸린다.

단종이 바라본 소나무와 서강의 풍경

어소에는 단종의 모습을 재현해 두었다. 소나무 하나 외로이 선 마당 옆, 어두운 방에 앉아서 무언가 읽는다. 다 썼으니 한 번 더 다듬어 들려주겠다는 듯 몸을 낮춰 글을 살핀다. 이야기는 아주 길 것이되 끝이 촉박하다. 관풍헌으로 유배지를 옮기고 두 달 뒤 단종은 죽음을 당한다. 사약을 마셨다거나 목을 졸랐다거나 설이 많지만 모두 제 뜻은 아니었다. 송림에서 마주한 어떤 때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서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어소에서 나와, 그가 걸터앉아 선 관음송을 올려다봤다. 시름에 잠겨 서성였다는 노산대 인근 절벽에서는 서강을 내려다봤다. 울울창창한 숲이 위에서부터 맑다. 아래에서 서강의 빛이 샘솟는다. 열일곱 청년이 한 움큼씩 집어 가슴에 묻은 풍경들이다. 너무 고와 아리다. 속절없이 돌아서는 객을 숲과 서강이 붙잡아 들려준다. “하늘은 귀가 먹었는지 애달픈 하소연 어이 듣지 못하시는지/ 어찌해서 슬픔 많은 이 몸의 귀만 홀로 밝은 것인가”(단종 ‘자규시’ 중). 청령포에 봄이 왔다. 이제는 들리시는가. 이름은 홍위(弘暉), 조선의 여섯 번째 왕이다.



송림이 울창한 청령포를
건고 걸어서 절벽에 오르면
저 아래 서강은 별처럼
반짝여 준다. 단종이 가슴에
담던 풍경들이다.

청령포엔 단종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송정원일기>의 기록에 따라 복원한 단종어소, 걸터앉아 쉬었다는 관음송, 시름에 잠겨 한양 방향을 바라본 곳인 노산대 등이 그때 단종의 마음을 떠올리게 한다.



<KTX매거진> x MBC 라디오 <노중훈의 여행의 맛>
영월에 다녀온 <KTX매거진>이 MBC 표준FM <노중훈의 여행의 맛>을 통해 독자, 청취자 여러분과 만납니다. 기자의 생생한 목소리로 취재 뒷이야기, 지면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여행 정보를 함께 들려 드립니다.
* 4월 1일 오전 6시 5분(수도권 95.9MHz)
* QR코드를 스캔하면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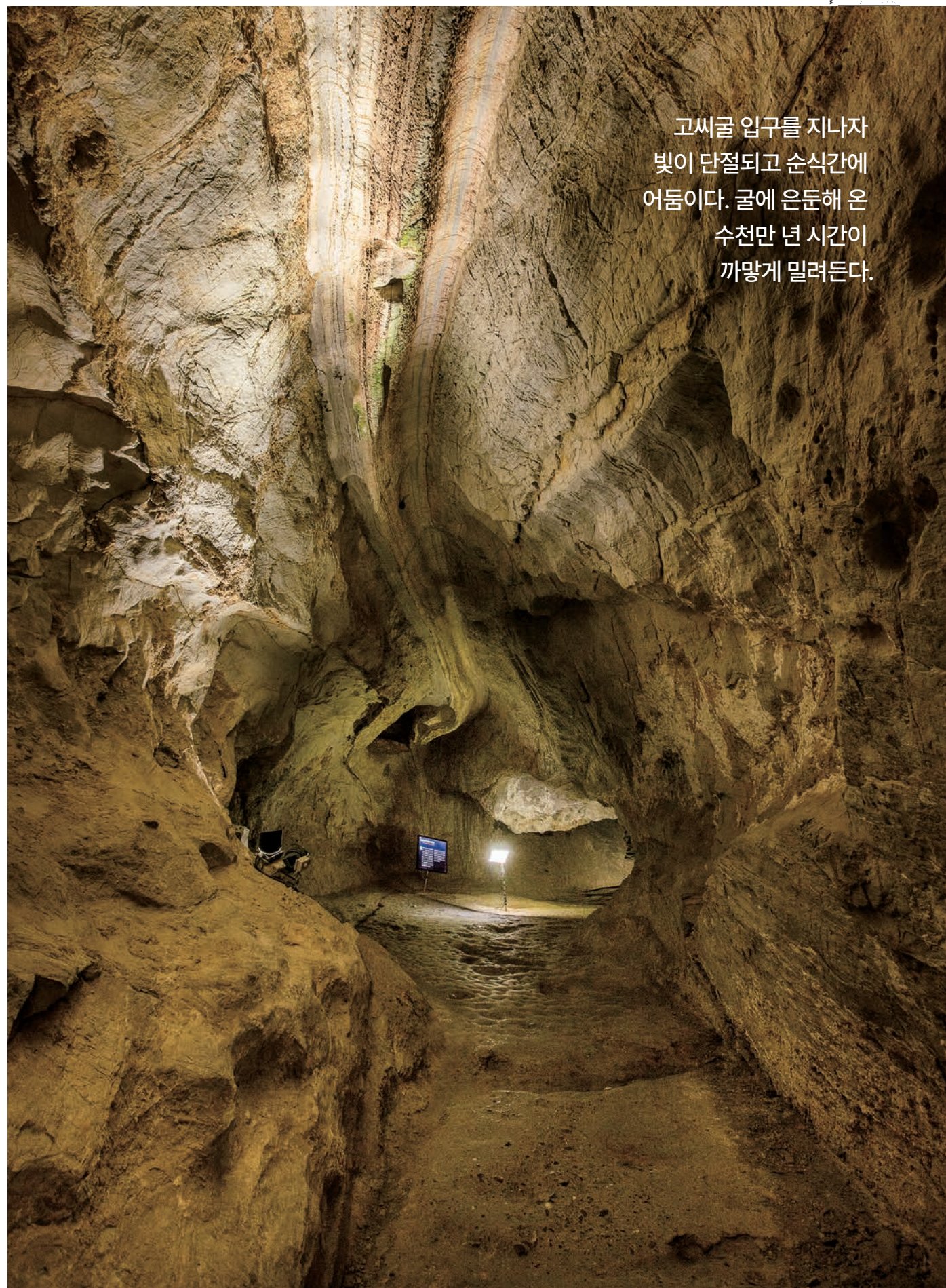
영원한 세월의 바로 지금, 고씨굴

저 남한강은 동강과 서강이 합한 것이다. 얼마 뒤에 북한강을 만나고 한강이 되어 서해로 간다. 서로 다른 곳에서 나왔다가 마주 보고 하나로 흐르는 강의 여정은 대양에서 원점으로 회귀한다. 증발하여 구름으로, 구름에서 비로, 비가 내리고 모여 각자 발원지로. 무궁한 순환의 한 점인 이곳 남한강은 태화산 자락을 어루만져 나아간다. 풍경은 선명하건만 오고 가는 영원의 시간은 아득해다가가려 해도 희미하다. 우리는 멈춰서 시간을 지우고 봤다. 대양에 뿌린 씨앗, 발원지에서 움튼 싹이 남한강 줄기에 떠올라 태화산을 비춘다. 시간이 벌린 아득한 거리를 거두어 내니 이 순간은 강과 산의 영원이다. 고씨굴로 향하는 길에서 영월이 들쭉 장을 펼쳤다. 유구하고 찰나 같은 시간의 이야기다.

4억 4400만 년 전, 혹은 4억 8800만 년 전에 바다 아래에서 석회암이 쌓여 지층을 이루었다. 당시 적도 부근에 생성된 지층은 이후 천천히 북진했다. 변형, 이동, 재차 변형과 이동의 오랜 세월을 통과해 현재 한반도 위치에 다다랐을 때 지층이 용기했다. 석회암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은 지하수에 담긴 이산화탄소에 녹으며 깎인다. 용식작용이라 부르는 이 화학반응이 지표면에 노출된 지층을 안에서 허물었다. 인간이 일생을 관찰한 대도 알아채기 힘들 만큼 조금씩, 그러나 오늘날까지 수천만 년간 지하수는 석회암을 파냈다. 태화산 지하수가 남한강으로 빠지는 통로인 고씨굴은 마침내 길이가 주굴 950미터, 지굴 2438미터, 총 3388미터가 되었다. 몇 미터쯤 더 길 수도 있다. 자연은 무궁하게 순환한다. 다리를 밟아 남한강을 건너서 고씨굴에 들어갔다. 빛이 단절되고 순식간에 암흑이다. 굴에 은둔한 수천만 년 시간이 까맣게 밀려든다. 바로 이 순간이다. 발원지와 대양 사이의 한 점, 그리고 영원.



김삿갓면 진별리 태화산 자락엔 물이 수천만 년 동안 석회암 지층을 허물어 만든 고씨굴이 자리한다. 임진왜란 때 고씨 가족이 피란했다 해서 이름 붙였으며, 1969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문의 033-372-6871



고씨굴 입구를 지나자
빛이 단절되고 순식간에
어둠이다. 굴에 은둔해 온
수천만 년 시간이
까맣게 밀려든다.

고씨굴이 빛는 풍경의
변주가 지굴들이 합쳐지는
공간에서 절정을 이룬다.
하나도 서로 같지 않은데,
모든 것이 조화롭다.



입구에서부터 굴은 폭을 좁힌다. 두 사람이 나란히 가기 어려운 구간도 여럿이다. 조명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부딪치고 넘어진다. 무엇보다 어둠은 좁은 길에서 더 어두워진다. 빨아들이는 듯 깊은 암흑을 조명에 의지해 더듬어야 한다. 조심히 몸을 다뤄 걸음을 댈는다. 길에 순응하느라 유순해지는 몸짓과 반대로 굴은 점점 장엄하다. 시선이 꽂히는 곳마다 천장의 종유석, 바닥에서 돌아난 석순이 따로 함께 들고 난다. 어디는 회황색 암

석이 물기에 젖어 반들반들하고, 다른 어디는 마른 돌덩이들이 모래 알갱이인 양 느슨하게 흘러내렸다. 돌의 변주는 지굴들이 합쳐진 은하수광장에 이르러 절정에 달한다. 갑작스레 터진 광대한 공간에서 갖은 모양새가 아우러져 축전을 벌인다. 동일한 화학반응에서 드러나는 형태는 전부 상이하다. 모두 같지 아니한데, 모든 것은 조화롭다. 서로 다른 곳에서 나왔다가 마주 보고 하나로 흐르는 강의 여정처럼.

순환하는 영월의 시간

문득 들리는 소리를 쫓아 돌바닥 틈을 들여다보다. 물이다. 용기한 석회암 지층을 허물어 굴을 낸 물이 계속 움직인다. 이 물도 발원지에서 나왔겠고 남한강에 합류해 결국에는 대양으로 간다. 어느 날 증발해 구름과 비로, 다시 발원해 돌바닥 아래 바로 이 순간이다. 영월에는 시간이 흐른다. 그것은 영원하게 유구하고 언제나 찰나 같다.

고씨굴은 길이가 주굴 950미터, 지굴 2438미터, 총 3388미터다. 종유석, 곡석, 석주, 석순 같은 다채로운 동굴 생성물이 곳곳에서 자랐고 담흑물결자나방, 아시아동굴옆새우 등 70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



이 감소한 1972년 잠시 폐광했으나 재개발 이후 1970년대 후반엔 최대 6만 명이 마차리에 거주했다 추정한다. 영월 인구의 절반이었다. 온통 산인 오지의 가파른 비탈에 집이 들어찼다. 상점과 음식점이 북적였고 영화관은 서울에서나 볼 법한 신작을 상영했다. 석탄은 당시 말마따나 검은 황금이 되어 주었다. 걸은 이리 화려해도 속은 달랐다. 사람들은 판잣집을 스무 개로 쪼개 하나씩 사용했다. 시설은 방 한 칸과 부엌이 다였다.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마땅찮은 환경 탓에 집 주변은 늘 구저분했다. 광부들은 쪽방에서 자고 일어나 버려진 것들을 지나서 막장으로 향했다. 생활관 전시실에서 1960년대 마차리의 일상을 엿본다. 강원도탄 광문화촌은 집과 골목을 과거 모습 가깝게 짓고 곳곳에는 탁주를 마시는 사람, 생필품을 배급받는 사람, 공동 수도에서 물을 길는 사람 인형을 놓았다. 탁주 심부름을 하는 아이가 천진하게 웃는다. 담벼락에 걸린 그림 속 광부의 미소가 참으로 깨끗하다. 감상하기 적당하게 꾸민 얼굴이겠거니, 하다가 멈춰 서서 사람을 생각했다. 다닥다닥한 판잣집에 몸을 누이며, 나갈 때는 돌아오겠

다 기약해야 하는 고된 일상이었다. 다시 아이와 광부의 얼굴을 본다. 산다는 건, 무엇이 어떠한지 언정 살아야 한다는 것일는지. 근심스럽고 애달프기에 살아 있는 지금이 더욱 귀하다. 마차리의 역사는 걸이 화려해도 속은 고단했다. 마차리의 삶은 겉으로 고단했으나 속으로는 아마 그대로 삶이었다. 슬픔과 기쁨을 녹여 담은 탄광촌의 얼굴이 천진하고 깨끗하다. 생활관 옆은 야외 채탄 시설 전시장이다. 광차에 싣고 탄광을 나온 석탄을 쏟아내는 티플러, 와이어로프로 광부를 나르는 권양기 등 각종 장치가 즐비하다. 장치 너머엔 폐석이 쌓였다. 유용한 석탄과 쓸모없는 폐석을 가리는 선탄 작업은 대부분 여성이 해 왔다. 탄광에서 몸이 망가진 광부, 숨을 거둔 광부의 가족은 당장 생계가 급해서 광업소는 그들이 선탄 작업을 전담하도록 했다. 선탄부라 불린 그들은 아내, 엄마였고 그보다 먼저 사람이었다. 누구에게나 불의의 현실은 아프다. 먹고사는 일은 모두에게 무겁다. 그래도 선탄부들은 쪽방에서 일어나 버려진 것들을 지나서 선탄장으로 향했다. 선탄장은 그들의 막장, 온몸으로 생을 캐낸 곳이다.



막장을 앞에 둔 삶, 강원도탄광문화촌

광부는 막장이 시작이다. 탄을 캐서 광차에 실어 보내고 뒤돌아 켜다. 채탄할수록 탄맥은 물러난다. 광차에 실어 보낸 광부는 새로운 막장으로 전진한다. 그들은 줄곧 위태로웠다. 석탄가루가 폐에 들러붙고 산은 육중해 갱도를 압박한다. 겹겹이 보이지 않는 앞은 도무지 환해지지 못하는 것이어서 검은 채로 두어야 한다. 따끈한 밥 한 그릇 벌여 결과 나누는 삶은 거기가 시작이었다. 우리는 영월 마차리 강원도탄광문화촌을 걸어 옛일을 헤아리고 있다. 하루가 간절하던 이들의 흔적이 갱도와 탄광촌을 재현한 전시실에 생생하다. 감히 세상은 막장을 흔하게 말해 왔다. 허투루 형용하고 되는데로 빚었다. 앞을 검은 채로 두어야 하는 삶의 깊이는 밖에서는 알 수 없다. 광부는 막장에 파고들어 온몸으로 생을 캐냈다. 1935년 마차리 기슭에서 영월광업소가 문을 열었다. 일제가 영월화력발전소 가동을 위해 개발한 광업소는 외진 산골을 영월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대여섯 가구만 살던 마차리로 외국에서까지 사람이 몰려들었다. 영월화력발전소 사용량



돌아오리라 기약하고
어두운 탄광에 몸을 넣어
막장을 헤집으며 탄을 캐고는
광부는 정말 돌아왔다.
광산촌의 하루는 그렇게 저문다.



강원도탄광문화촌은 1935년에 문을 열어 2002년 완전 폐광한 영월광업소 탄광과 마을을 복원해 전시한다. 생활관, 갱도 체험관의 재현 시설에서 1960년대 마차리 풍경을 엿볼 수 있다. 문의 033-372-1520



갱도 체험관에서는 광부가 굴을 파서 채탄하고 석탄을 옮기는 과정을 갱도 모형과 광부 인형을 통해 차례차례 만난다. 영월광업소가 활발하던 당시 광부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도 감상할 수 있다.

걷고 걸어서, 끝을 넘어서

강원도탄광문화촌 한편에 실제 갱도였던 공간을 활용한 체험관이 자리한다. 생활관과 마찬가지로 갱도 모형을 짓고 광부 인형을 설치했다. 그 덕분에 광부가 들어가서 석탄이 나오는 과정을 차례차례 만난다. 굴진은 탄맥에 닿기 위해 갱도를 뚫는 작업을 총칭한다. 경로를 가로막는 암석은 폭약을 터뜨려 무너뜨리는데, 이를 발파라 한다. 쇠나 나무 기둥을 받쳐 갱도를 지탱하는 동발설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나가 어긋나면 지압이 뭉쳐 갱도를 짓누르는 힘이 점차 커진다. 이렇게 굴진한 다음 광부는 채탄한다. 탄을 캐서 광차에 실어 보낸 뒤 새로운 막장으로 전진한다. 동발로 생명을 받치고 굴을 파내 삶의 경계를 넓혀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니 막장은 끝일 수 없다. 석탄가루가 날아드는 육중한 산의 후미진 안쪽, 앞을 검은 채로 두어야 하지만 저 암흑에 길이 있다. 무엇이 어떠할지언정, 닫힌 것들을 열어서 사람은 나아간다.

체험관 끝에서 벽화를 봤다. 일을 마친 광부가 어둠을 거슬러 탄광 입구로 돌아왔다. 숲이 울창하고 하늘이 파랗다. 능선에 걸친 태양이 환하다. 햇살로 향하는 광부의 뒷모습이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다. 감사하오, 영월. 우리는 내일을 기다리며 파란 하늘과 햇살 속으로 들어갔다. ㉠



광부가 탄광에 들어가고 탄광에서는 석탄이 나온다. 사람을 덮혀 주는 석탄엔 위험을 감수하는 고된 노동의 피와 땀이 맺혔다.



Yeongwol Speaks to You

Yeongwol, a county in Gangwon-do Province, tells stories of the lives it has witnessed, both happy and sad.

The story of Yeongwol begins, “A wind blows at Cheongnyeongpo Cape.” The branches of the pine trees sway in the wind, and the sound of rustling leaves lingers for a long time. Sometimes, it is silent all around. I wait quietly for the next story.

Cheongnyeongpo Cape, a Melancholy Place of Exile

Yeongwol seems to read to us. The area is rugged and rough, with the Taebaek Mountain Range and Sobaek Mountain Range on one side and Charyeong Mountain Range on the other. Life here has been one filled with struggles, as can be expected from the high ridges and deep valleys. The stories that the mountains and streams remember are told to visitors who come seeking them.

The first chapter is about Cheongnyeongpo Cape, where the young king was exiled. Danjong was the sixth king of the Joseon Dynasty. He became king at the age of twelve but was exiled by his uncle, Grand Prince Suyang, to Cheongnyeongpo Cape in 1457. He lived there for two months. The beautiful Cheongnyeongpo Cape, covered with pine trees, exudes a melancholy atmosphere, as though reflecting the young king’s plight. He was only 17 when he was executed, and Cheongnyeongpo Cape offers a glimpse of his tragic life.

After visiting Cheongnyeongpo Cape, I headed to Gossigul Cave. This cave was created over


thousands of years by groundwater eroding the limestone layer. Located at the foot of Taehwasan Mountain, the cave is 950 meters long in the main tunnel, and 2,438 meters long in the secondary tunnel, making it a total of 3,388 meters. Various cave formations such as stalactites and stalagmites can be observed in the dark cave, creating a spectacular sight. They are all different, yet everything is harmonious. Following the sound, I peered into the cracks in the stone floor. It was water. The water that created the cave by eroding the limestone layer continues to flow to this day.

Rediscovering the Plight of Miners

The Gangwon-do Coal Mine Culture Town in Macha-ri is an exhibition hall that reproduces the coal mine and village of Yeongwol Mining Company. The living quarters, one of the facilities, takes you back in time to the daily life of a miner in the 1960s. The restored alleyways features dolls of people drinking rice wine and receiving their daily supplies. A child running an errand to fetch rice wine is grinning brightly. The painting on the wall shows a miner with a sincere smile. They lived in cramped shacks, and left



the house with a promise to their loved ones that they would return. Looking back at the faces of the child and the miner, I realize that they could smile as they did because they lived in more worrying, distressful times.

Next to the living quarters is an outdoor exhibition hall for various equipment, including a tippler that pours out coal loaded on a mining wagon. A pile of waste rock can be seen beyond the equipment. Women were usually assigned to the task of separating useful coal from waste rock. They were family members of miners who had passed away in mines, but they had to make a living despite such painful memories. They had to put up with the unfair reality and earn every penny they could to survive. Their workplace was a battlefield, a place of physical and emotional suffering. The story of Yeongwol ends here today. Thank you, Yeongwol. I bid farewell to Yeongwol for now. 



영월에서 여기도 가 보세요



즐길 거리



단종문화제 조선의 여섯 번째 왕 단종을 기리는 단종문화제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장릉, 영월문화예술회관, 동강 둔치에서 열린다. 팬데믹이 끝나 가는 올해는 행사를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일 없이 내용과 규모 면에서 영월을 대표하는 행사다운 모습 그대로 기획했다. '다시 찾아온 영월의 봄'을 주제 삼아 강원도 무형문화재 단종제향, 진혼 의식인 영산대제부터 단종 유배길 체험까지 각종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마련한 것이다. 4월 29일 영월군 시내 일원에서 단종문화제의 상징인 단종국장 야간 행렬을 펼쳐 외롭게 떠난 님을 위로한다.

문의 033-375-6353



젊은달와이파크 영월은 '박물관 도시'로 불린다. 스무 곳 넘는 박물관 중에서도 젊은달와이파크는 영월 여행객이 놓치기 힘든 여행지다. 한동안 운영되지 않은 술샘박물관을 조각가 최옥영이 재생과 순환의 의미를 덧붙여 재구성한 결과 활기 넘치는 예술 공간으로 거듭났다. 2만 6000제곱미터(약 7800평) 규모 젊은달와이파크는 전체가 시각의 축제장이다. 하얀 미술관과 강렬하게 대비하는 작품 '붉은 대나무'를 통과해 소나무 장작을 엮은 '목성木星', 미술관 위에 조성한 '붉은 파빌리온' 등이 색채의 향연을 벌인다.

문의 033-372-9411

먹거리



마차집 강원도탄광문화촌은 일을 마친 광부들이 들러 탁주를 마시던 대포집을 생활관에 재현해 두었다. 가게 이름은 마차집. 피로를 푸는 심터였던 마차집이 강원도탄광문화촌에 또 있다. 애호박돼지고기찌개와 감자옹심이칼국수를 만들어 파는 진짜 식당이다. 문화촌 입구 앞 식당에 들어서자 수십 년 전 대포집 풍경을 그린 벽화가 반긴다. 정겨운 분위기가 물씬한 식당에 앉아 애호박을 송송 썰어 넣은 돼지고기찌개, 들깨 국물로 끓여 낸 감자옹심이칼국수를 먹어 본다. 그 시절에도 이랬을까. 탁주를 마시며 오래 즐기고 싶은 맛이다.

문의 0507-1311-5908



고씨굴 찜국수촌 고씨굴을 들른 이는 굴 건너편 식당 거리가 찜국수 가게로 가득한 장관을 마주한다. 외부에 찜국수 세 글자를 내걸지 않았더라도 일단 주문하면 딱딱 만들어 내놓는 데도 많다. 50여 년 전에 한 식당이 영월에서 채취한 찜으로 국수를 요리했고, 이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사람이 밀려들었다. 찜국수 식당이 마을을 이루다시피 빼곡한 지금 또한 '고향식당'을 비롯한 가게들은 영월 찜을 재료로 써 국수를 빚는다. 고향식당에서 찜국수 한 그릇을 주문했다. 찜향이 아무지게 밴 면과 국물이 입맛을 살살 돋운다.

문의 033-372-9117

프로모션

젊음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 줄기세포 활용 프리주비네이션

노화를 예방하는 프리주비네이션의 대표 주자, 청담셀의원의 줄기세포 치료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건강관리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젊은 층은 젊음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중·노년층은 나이보다 젊은 외모와 체력을 만들기 위해 관리에 나선다. 이들의 공통 목표는 노화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다. 노화가 두려운 이유는 외모의 변화만이 아니다. 노화는 일상을 점점 달라지게 만드는 요소다. 체력이 떨어지고 여기저기 불편한 곳이 생긴 뒤에는 평범하게 해내던 일이 어느새 버거워진다. 나이가 은퇴를 앞당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에 전문 의료 기관을 찾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

노화 예방의 핵심, 프리주비네이션

항노화 전문가인 조찬호 청담셀의원 대표원장은 "이제 사람들은 젊어 보이기 위해 해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라며 "그보다는 노화를 예방하는 프리주비네이션(예방 목적의 재생술)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다"라고 말한다. 기존에는 노화한 피부나 신체를 젊게 되돌리는 리주비네이션(재생·회춘술)이 대세였다. 하지만 아프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예방의학이 떠오르듯, 항노화 의학 트렌드도 프리주비네이션으로 향하고 있다.

조찬호 원장은 노화를 최대한 늦추려면 프리주비네이션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우선, 만성질환을 관리하자. 움직임을 불편하게 하는 통증도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 건강 증진을 위해 유산소운동에 나섰다면 젊음을 만드는 근육을 강화하는 데도 신경 쓰자. 조찬호 원장은 이와 함께 건강을 과신하지 말고, 적어도 1년에 두어 번 병원을 찾아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을 권한다. 그는 "내 건강 상태를 잘 아는 '단골 의사'를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조언했다.

전신 항노화 치료에 특화된 청담셀의원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을 시, 좋은 컨디션을 오래 유지하도록 하는 프리주비네이션 기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조 원장은 프리주비네이션을 일종의 노화 예방 주사라고 설명한다. 프리주비네이션 치료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줄기세포다. 이는 자가 재생 능력과 분화 능력을 가진 원시세포다. 청담셀의원은 이 같은 줄기세포 효과에 주목해 전반적인 체력 저하와 노화한 몸을 개선하는 줄기세포 정맥주사 '청셀(淸Cell)'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성



체 줄기세포를 채취하고 링거로 주입해 전신 재생 작용을 향상할 수 있다. 이 밖에 줄기세포를 집중 투여함으로써 평상시에 약하거나 젊음이 사라지는 부위의 회복 역시 기대된다. 성 기능을 건강하게 증진하는 '성셀(性 Cell)', 처진 피부와 주름을 개선하는 '미셀(美 Cell)', 두피에 직접 줄기세포를 주입해 탈모를 치료하는 '모셀(毛 Cell)', 약해지기 쉬운 인대를 견고하고 튼튼하게 하는 '활셀(活 Cell)'이 여기에 속한다. 상황에 따라 유전자 검사로 취약한 부분을 미리 인지하고, 바이오마커 검사를 통해 현재 건강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도 프리주비네이션 치료의 일종이다. 조 원장은 "미래 의학은 병에 걸리거나 노화가 시작되고 난 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노화 현상이 나타나기 전 젊음을 오래 유지하는 선제적 인터벤션에 집중할 것"이라며 "건강한 몸과 아름다운 외모를 오래 유지함으로써 활기찬 인생을 설계하는 게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라고 조언했다. 청담셀의원은 '헬스케어 디자인'을 지향하는 의료 기관으로, 줄기세포를 활용한 전신 항노화 치료에 특화됐다. 특히 한국에서 골수·지방 줄기세포를 모두 활용하는 극소수 의료 기관 중 하나다.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 항노화 줄기세포 치료 부문에서 4년 연속 수상하기도 했다. 병원을 이끄는 조찬호 원장은 항노화 의학 전문가로, 줄기세포 연구로 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강화 섬 걷기 여행

도심을 벗어나 한 시간 반만 달리면 섬에 닿는다. 훗훗한 해풍과 잔잔한 바다가 마음을 일렁이게 하는 곳, 인천 강화군의 두 섬 강화도와 교동도를 어슬렁거렸다.



01

소창체험관 + 동광직물

강화는 섬이다. 이 로맨틱한 지형학적 사실이 우리를 강화로 불러들인다. 고려산에 진달래 피어나고 들녘에 순무꽃 차오르는 계절이면 강화대교를 달려 염하를 건너야 한다. 옛 강화교부터 초지대교까지, 섬과 물을 잇는 강화의 다리들을 헤아리자니 문득 궁금해진다. 오직 뱃길뿐이었을 50여 년 전 강화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시절 섬사람의 생활은 또한 어떠했을까.

날실과 씨실을 좇아서, 강화도 직물 역사 산책

1970년대까지 강화를 먹여 살린 건 직물 산업이다. 한때 강화에는 약 130개의 직물 공장이 자리했다. 그 중 가장 유서 깊고 이름 높은 곳이 바로 조양방직이다. 1933년 순수 한국 자본으로 설립한 최초의 직물 공장인 이곳은 오늘날 인더스트리얼 카페로 부활해 과거 못지않은 명성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가 조양방직이 여전히 기계음으로 요란하던 시대, 강화 여인들은 쉴 틈 없이 날실과 씨실을 교차해 직물을 제



조했다. 만든 물건은 도봇장수와 한 조를 이루어 바로바로 내다 팔았다. 온몸에 뽕집을 이고 진 채 도시로 나가 판로를 개척했는데, 1969년 12월 옛 강화교가 완공되기 전까지 이동 수단은 당연히 배였다. 섬으로 물으로 드나드는 것도 고된 데다 물때까지 맞추는 게 여간 지난한 일이 아니었다.

소창은 이 시기를 대표하는 강화 특산물이다. 소창이란 목화솜으로 실을 만들어 평직으로 짠 천을 뜻한다. 강화에선 23수의 가는 실로 소창을 만든다. 23수는 솜 1그램을 23미터 길이로 뽑아낸 실을 이르는 표현이니, 숫자가 커질수록 실의 굵기는 가늘어진다. 강화의 직물 산업과 소창의 역사를 아우르는 곳, 소창체험관을 이번 걷기 여행의 시작점으로 삼는다. 과거 염색 공장이었던 평화직물 터를 재활용한 시설이니만큼 역사적 명분도 충분하다.

목화 조형물로 장식한 담벼락 너머로 비죽 솟아오른 나무 전봇대가 낯선 객을 맞이한다. 대문과 마주선 소창전시관에서는 원사를 풀어 표백하고, 풀 먹이고, 건조하고, 다시 풀고, 나뭇질하고, 실패에 감고, 직조하고, 옷감을 완성하는 모든 과정을 정교한 미니어처로 전시하고 있다. 그곳에서 소창뿐 아니라 인견을 생산했던 내력도 엿본다. 인견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법한 지명은 경북 영주 풍기읍이지만, 풍

기보다 수십 년 앞서 인견을 생산했던 곳이 강화다. 과거 평화직물과 이화직물에서 제조한 원단을 전시 공간 벽 한편에 죽 넣어놓았는데, 그 색색의 빛깔이 물감을 풀어 놓은 팔레트처럼 알록달록하고 형형해서 자꾸 시선이 머문다.

소박한 정원을 가로질러 소창기념품전시관으로 가면 옛 직물 공예품을 모아 둔 조출한 전시 공간과 함께 고려 복식을 입어 볼 수 있는 대여 공간을 만난다. 이미 한 무리의 가족이 곱게 의복을 차리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 따뜻한 장면을 뒤로하고 마지막 코스인 소창 손수건 만들기 체험을 하러 간다. 하얗고 보드라운 소창을 받아 들고 탁자



강화 원도심에는 직물 산업의 역사를 간직한 공간이 여럿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소창체험관을 중심으로 올봄 개장 예정인 동광직물과 구세의원을 걸어서 둘러볼 수 있다.
문의 032-934-2500

에 평평하게 깎 뒤 순무, 인삼, 고구마, 새우, 섬쌀 등 강화 특산물을 새긴 도장을 찍는다. 순무김치와 인삼막걸리에 대한 진심을 실어 순무와 인삼 도장 두 개를 든 채 하트 모양으로 꼭꼭 눌러 본다. 이곳에서 보낸 짧지만 농밀한 시간도 지그시 눌러 담는다.

한 걸음 한 걸음, 소창체험관에서 동광직물까지

2023년 현재 강화에 남은 직물 제조업체는 일곱 곳 남짓이다. 기저귀 천으로 쓰던 소창은 1970년대 후반부터 일회용품의 등장으로 수요와 공급이 급감했고, 나일론 같은 합성섬유가 인건을 대체한 동시에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이곳의 직물 산업은 보다 빠르게 쇠락의 길을 걸었다. 소창의 영화로운 시절을 기록하기 위해 강화는 또 다른 공간 두 곳을 새로이 단장하고 있다. 1960년대 말까지 운영하던 강화의 대표 의료기관인 구세의원 건물에 직물 제품 판매 및 전시장을 들이고, 종업원

200여 명을 거느리던 대형 직물 기업 동광직물을 생활문화센터로 개조해 올봄 중 개장을 앞둔 것이다. 생활문화센터라곤 하지만 옛 건물의 흔적과 기물을 고스란히 보존한 전시실과 포토 존을 꾸며 여행자의 발길도 끌어당긴다. 소창 제조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실제 사용했던 기계를 제조 순서에 맞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둘러놓았는데, 그 위로 흰 소창과 실 여러 가닥이 조형적으로 드리워 있어 언뜻 하나의 설치미술 작품처럼 느껴진다. 과거를 되새기며 현재와 공명하는 근사한 풍경이다.





고 정착한 황해도 연백군(현재 연안군) 주민들이 그들의 생활 터전이었던 연백장을 재현한 게 지금 모습에 이른다. 복닥복닥한 시장 골목에 들어서자 채도 높은 물건들이 저마다 시선을 잡아 끈다. 꽃분홍색 순무와 순무섞박지는 물론이고 ‘교동산(産)’이라 적어둔 팻말 옆에 향긋한 봄나물이 줄지어 놓여 있어 자꾸 걸음이 더뎈다. 그런가 하면 시장 곳곳엔 말뚝박기하는 아이들이나 뽕튀기 기계 돌아가는 장면처럼 1960~1970년대 마을 풍경을 그린 벽화가 자리해 나 이 지긋한 이에게는 향수를, 청년들에게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시장 구경이 끝나 갈 즈음엔 노천 다방에 앉아 옛날식으로 초란 노른자를 동동 띄운 쌍화차 한 잔을 들이켜 본다.

허기를 달래고 숨도 돌렸으니 산을 오를 차례다. 섬 중심에 자리한 해발 259미터 화개산이 이 여정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오는 5월이면 21만여 제곱미터(약 6만 4000평) 부지에 테마 정원과 스카이워크 전망대, 모노레일을 한데 모아 놓은 복합 체험 공간 화개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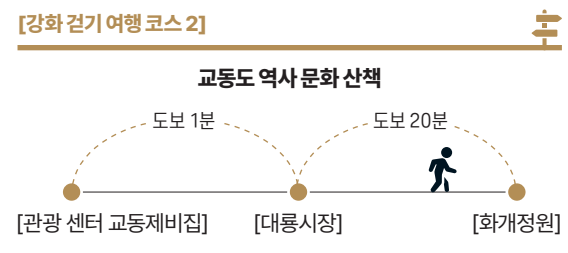
교동도 여행의 관문이었던 대룡시장에 이어 새로운 이정표 화개정원이 올 5월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다. 시장 골목을 살살이 누비고, 화개산에 올라 탁 트인 서해를 조망하는 즐거움을 두루 누리다.
문의 032-934-1000(대룡시장)
032-932-2336(화개정원)
032-933-3300(모노레일)

02 대룡시장 + 화개정원

다시 강화대로에 올라 이강교차로까지 달린다. 거기서 그대로 직진하면 인화로에 접어든다. 우리는 48번 국도의 시작점에 다다라 또 한 번 다리를 건넌다. 목적지는 교동도다. 좁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황해남도 연안군과 마주한 접경지대라, 교동대교로 진입하려면 간단한 출입증을 작성해야 한다. 이 수고로운 절차가 교동도를 아득한 미지의 섬처럼 느끼게 한다.

섬 건너 섬으로, 대룡시장에서 화개정원까지

교동도 산책의 첫 번째 즐거움은 대룡시장에 있다. 6:25전쟁 때 이곳으로 잠시 피란 왔다 돌아가지 못하



이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기 전인데도 이미 발 빠른 여행자들은 임시 개원 중인 이곳을 찾아 저마다의 방식으로 봄별을 즐기고 있다. 정교하게 매만진 다섯 가지 테마 정원과 탐승 시간이 20여 분에 달하는 모노레일 등 즐길 거리도 많지만 화개산이 발길을 당기는 이유는 이 자리가 왕들의 유배지였다는 역사적 사실, 그리고 저 너머가 바로 북녘이라는 실감이다. 여기 유배된 연안군과 광해군이 보았을 풍경을 상상하다가, 저어새를 형상화했다는 스카이워크 전망대에 올라 새의 눈으로 교동도를 바라보기로 한다. 고구려수지와 봉재산 너머 황해남도 연안군과 배천군이 손에 닿을 듯 아물거린다. 날씨가 맑은 날엔 예성강까지도 보인다고 한다. 호수처럼 잔잔한 서해와 꽃처럼 피어난 섬들을 마주할 때, 그저 섬처럼 서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어디 닿은 데 없이 훌가분해지고 싶은 순간마다 강화의 곱고 의연한 섬들을 떠올릴 것이다. **K**



기차 타고

서울



editor. 남혜림 photographer. 신규철



Korea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과거에서 현재까지, 서울

걷기만 해도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곳, 서울역 근처를 맴돌며 발견한 조각을 이어 본다.



© 문화역서울284



먼 곳으로 가야만 여행인 건 아니다. 늘 걷고 달리던 장소도 새로운 시선으로 마주하는 순간 여행지로 바뀐다. 어딘가로 떠나기 위한 '수단'이기만 했던 서울역. 오늘은 수단이 아닌 여행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선다. 흑백사진으로만 만나는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같은 자리를 지켜 온 서울역은 모든 순간을 기억한다. 알아차리지 못해서, 몰라서 지나쳤던 그때의 흔적을 찾아 역 주변 공간을 탐색한다.

기차와 우리의 과거, 문화역서울284

기차를 타러 역으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뒤로한다. 광장에 나와 오른쪽으로 몇 걸음 걷자 그림 속에 있을 법한 건물이 보인다. 푸른 돔과 붉은 벽돌이 눈길을 끌어 주변 빌딩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곳이 우리의 첫 번째 여행지, 문화 공간이자 구 서울역인 문화역서울284다.

문화역서울284의 시작을 알려면 약 100년 전으로 가야 한다. 서울과 인천을 잇는 한국 최초의 철도 경인선이 개통한 다음 해인 1900년, 서울역의 시초인 남대문정거장이 탄생한다. 소달구지가 덜컹덜컹거리며 길을 지나던 시절, 연기를 뿜으며 빠르게 달리던 기차는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과 신선함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소달구지와 비교할 수 없이 날쌔게 달리는 생활 속으로 조금씩 스며들었다. 경부선과 경의선이 차례로 놓이고 기차 이용객이 늘어나자 1925년에 경성역, 현재의 구 서울역 건물이 세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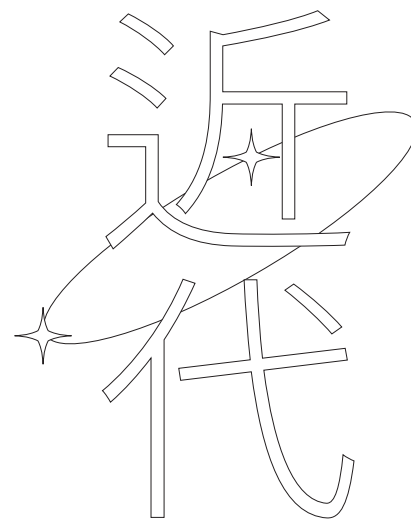
나라를 빼앗긴 시기였으므로 경성역 건축은 일본의 주도하에 이뤄졌다. 일본 무사의 투구를 닮은 지붕 모양, 조선 총독이 글씨를



문화역서울284 외부 투어에 참여하면 문화역서울284, 서울로 7017, 서울역 옥상정원을 해설과 함께 둘러볼 수 있다. 단, 외부 투어는 전시 준비 기간에만 운영한다. 문의 02-3407-3500



© 문화역서울284





새긴 정초석 등이 그 흔적으로 남았다. 구 서울역이 아픈 역사의 일부임은 분명하지만, 마냥 슬프지는 않다. 선조들이 저항한 시간도 함께 담겼기 때문이다. 문화역서울284 앞, 남대문정거장에서 신임 조선 총독을 처단하려 한 강우규 의사 동상과 정초석의 조선 총독 이름이 굽힌 자국은 나라를 위해 싸운 이들이 있었음을 알린다. 일제강점기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빛이 사그라들었을 때도 서울역은 민주화운동 거점지나 집결지로 굳건했다. 그렇게 긴 시대를 지나 2004년, 구 서울역은 지금의 역사에 그 역할을 물려주고 퇴장한다.

은퇴 후에도 옛 서울역에 대한 관심은 꺼지지 않았다. 100년 전 모습이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문화재로 지정, 사적 번호 제284번을 부여받을 정도로 가치가 높았기 때문이다. 지금의 문화역서울284는 원형 복원 공사를 거친 후의 모습이다. 역 건물 특성을 설명하거나 역사를 되새기는 전시 등 100년 전 공간에서는 여전히 문화와 예술이 샘솟는다. 1925년 경성역부터 현재의 문화역서울284가 되기까지 건물 정면에 자리한 거대한 시계는 6·25전쟁 시기의 3개월 정도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시계를 바라보는 이 순간도 훗날 누군가는 먼 과거로 기억할까. 역사 속에, 또는 누군가의 기억 안에서 지금 이 순간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만 같다.



現在

도시를 걷다, 서울로 7017

시간이 흘러 현대에 닿는다. 뿔뿔히 떨어진 옛 서울역 앞은 이제 빌딩 숲이 되었다. 수많은 사람의 땀방울로 일군 서울을 도로 위에서 조망한다. 서울로 7017 곳곳에 설치된 화분이 고개를 내민 새싹으로 열린 초록 빛이 돈다. 본래 이곳은 사람도 식물도 자리할 수 없는 고가도로였다. 1970년대에 건설되어 서울의 동과 서를 약 30분 만에 잇는 도로였으나, 노후화로 안전 문제가 불거져 폐쇄되고 만다. 쓰임을 잃은 도로가 새 이름을 부여받은 건 2017년이다. ‘1970년대 세워진 고가도로를 2017년에 사람이 다니는 길로 만들다’라는 의미를 담아 서울로 7017이라 이름 짓고 공중 보행도로로 닦았다. 햇살 좋은 오후, 산책하는 사람들로 서울로 7017은 북작인다. 구 서울역과 현재 서울역은 물론, 저 멀리 송례문과 1955년에 지은 남대문교회까지 보인다. 어딜 봐도 구경할 것이 가득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걷는다.

더 높은 곳에서 도심을 조망하고 싶다면 딱 맞는 공간이 있다. 서울역 옥상정원에 올라 역 근처 풍경과 서울로 7017 등 근방을 내려다본다. 구 서울역 돔과 가까워 건축물을 자세히 관찰하기도 좋다. 무엇보다 기차길이 훤히 드러난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옥상정원에서 오고 가는 기차를 바라보다 이런저런 생각에 빠진다. 저 기차 안 사람들은 어떤 기분으로 어떤 목적지를 향할까. 어디를 목적지 삼는데도 그 여정에 설렘이 함께하면 좋겠다고, 멀리 사라지는 기차를 눈으로 좇으며 마음으로 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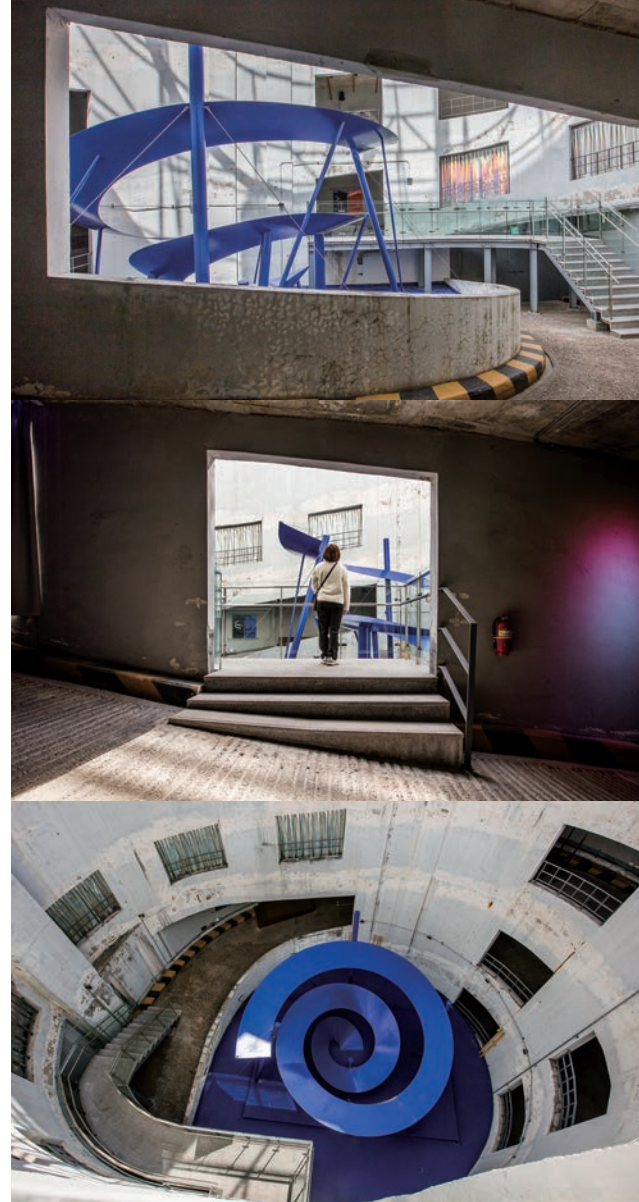
서울역 옥상정원은 구 서울역 돔과 기차길, 서울로 7017을 조망하기 좋은 숨은 명소다. 한쪽엔 비건과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하는 ‘알맹상점 리스태이션’이 위치한다. 문의 070-7777-1925(알맹상점 리스태이션)

모두의 우주, 도킹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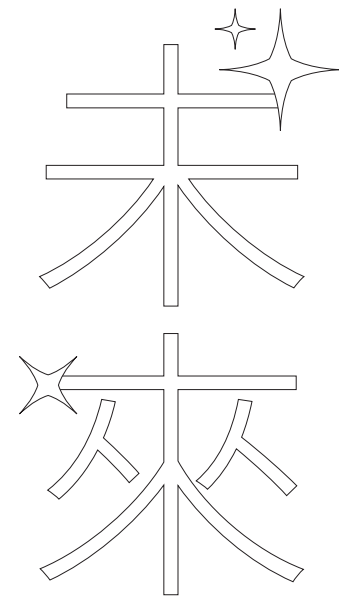
서울로 7017과 서울역 옥상정원이 만나는 곳에 특이한 조형물이 들어섰다. 가까이 다가가자 '도킹 서울'이라고 적힌 파란 표지판이 입구를 안내한다. 주차 램프를 따라 내려간다. 아래로 들어갈수록 점점 어두워진다.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둘러보던 찰나 끼익 소리가 귓가를 울린다. 소리의 근원을 찾아 고개를 드니 천장에 매단 나무 모빌이 시소처럼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오른쪽 벽에는 우주 정거장이 연상되는 조형물을 설치했다. 왼쪽은 벽을 창문인 양 뚫어 빛이 쏟아진다. 그곳으로 살며시 다가가 고개를 내민다. 소용돌이 조형물이 하늘을 향해 솟구치듯 눈앞을 채운다. 단숨에 시야가 파랗게 물든다.

신비로운 조형물을 한참 감상하다가 입구 근처로 돌아와 안내문을 읽는다. 도킹 서울, 이곳은 약 20년간 쓰이지 않던 주차 램프를 미술관으로 조성한 공간이다. 나선형으로 이어지는 미술관에는 일곱 작품이 놓였다. 천장에서 움직이는 나무판자, 파란 소용돌이 조형물이 모두 미술 작품이다. 작품은 우주와 과학 이야기를 담았다. 시민이 참여한 작품 '나의 우주색'에 다다르면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웅웅 소리와 보랏빛 조명이 우주 공간인 듯한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꼭 미래에 온 것 같다. 서울역 옆 지하에 이토록 작은 우주를 마련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서울과 미술,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그린 공간에서 유영하다 나온다. 서울역 근처를 걸었을 뿐인데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모두 만난 시간 여행자가 되었다. 걸음은 다시 앞을 향해 나아간다. 여행자의 눈에 비친 서울은 처음과 다른 모습일 것임이 분명하다. **K**



도킹 서울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와 과학자, 시민 등이 협업해 생겨난 공공 미술관이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문의 02-2133-2712





쉬어 가는 여행자를 위한 안내서

빠르지 않아도 괜찮다. 느릿하게 생각을 곱씹으며 소유했던 알맞은 여행지를 추천한다.

군위_사유원

자연과 건축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수목원을 거닐면서 깊게 사유한다. 모과 나무, 느티나무, 배롱나무 등 나무부터 쑥부쟁이, 진달래, 산수국, 참나리 같은 꽃까지 다채로운 식생이 자라 요정의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은 덤이다. 금오산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 등 승효상, 최옥, 포르투갈 건축가 알바로 시자가 설계한 건물들은 방문자가 마음에 오롯이 집중하도록 돕는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해 미리 신청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주소 경북 군위군 부계면 치산효령로 1150
문의 054-383-1278

제주_랄라 밀랍초 아틀리에 '축'

제주를 여행하며 만난 두 사람, 룰루와 랄라가 '초멍'이 주는 편안함을 알린다. 해가 진 후 어두컴컴한 돌 창고로 들어간다. 그리고 천연 밀랍초에 불을 붙인다. 두 사람이 직접 만든 천연 밀랍초는 인공 향료, 색소 등을 일체 넣지 않아 인체에 무해한 데다 태울 때 프로폴리스 등 꿀이 함유한 유익한 성분이 나온다. 초멍을 진행하는 돌 창고는 룰루, 랄라가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손수 다듬어 지었다. 자세한 주소는 예약자에게만 공개한다.

주소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문의 @lala_beeswax_atelier_chok

춘천_클랑 포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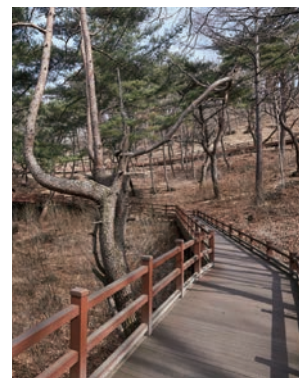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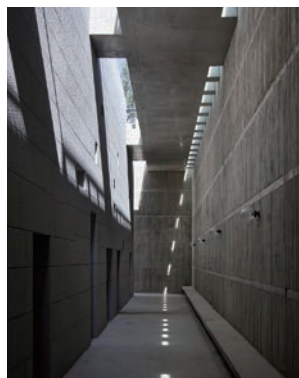
정적이 어색하지 않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공간이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의 소리와 조용한 음악을 들으니 마음이 잔잔해진다. 숲속에 자리한 클랑 포레스트는 독일 공인 음악 치료사가 운영하는 음악 치료실이다. 싱잉볼 연주를 들으며 명상을 하고, 하늘이 맑은 밤에는 밖으로 나가 쏟아지는 소리로 몸의 긴장을 푸는 사운드 바스, 시 낭독회, 싱잉볼 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주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금촌로 84-56
문의 033-261-8870

영주_국립산림치유원 다스림

초록이 가득한 숲속으로 들어가 몸과 마음을 돌본다. 반신욕, 최첨단 치유장비가 몸에 쌓인 피로를 풀어 준다. 소도구 운동, 수(水) 치료, 통나무 명상 등 일일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해 감각을 깨우는 방법도 있다. 건물 밖으로 나와 숨을 크게 들이마시자 신선한 공기가 폐에 가득 찬다. 소백산 자락에 놓인 덕분에 가볍게 숲길을 걷기만 해도 기분이 상쾌해진다. 숙박 시설을 운영하니 숲에서 하루 머물며 산과 교감해도 좋겠다.

주소 경북 영주시 봉현면 테라피로 209
문의 054-639-3400



청풍호 벚꽃길



비봉 하늘전망대

언제나 설레는 아름다운 도시 제천의 사계

언제 방문하셔도 아름다운 비경, 제천의 사계절을 당신과 함께!

자연치유도시 제천
HEALING CITY JECHON



옥순대교의 단풍



청풍호 실경



달리는 이야기, 교차하는 사람들

기차역은 인간사의 무수한 만남이 교차하는 운명적 장소다.
KTX 개통 19주년을 기념해 철도에서 삼썬은 이야기를 따라 시간 여행을 떠나 본다.

영화의 탄생과 동시에 스크린의 주인공으로 출연한 것은 다름 아닌 기차였다. 정거장에 들어서는 기차의 거대한 움직임을 촬영한 루미에르 형제의 <열차의 도착>이 그랬듯, 현존하는 한국 영화 중 가장 오래된 작품 <청춘의 십자로> 또한 기차역을 이야기 무대로 공들여 담았다. 철로를 따라 경의선 열차가 달리는 모습부터 1930년대의 복닥복닥한 경성역 광장 풍경까지, 당대의 첨단 문명과 도회적 정취를 보여 주는 수단으로 철도를 활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 철도의 구심점, 서울역으로 대변되는 기차역이란 공간은 시절을 불문하고 한 인간이 내던져진 세상이자 생애의 한 장이 시작하는 순간으로 표상된다. 1950년대 작품 <어느 여대생의 고백> 주인공 소영부터 1970년대를 풍미한 <별들의 고향>의 애달픈 연인 경아를 지나 2000년대 <친절한 금자씨>에서 막 출소한 금자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수많은 승객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이기도 한 서울역은 인물이 의미심장한 걸음을 떼는 무대로 등장하곤 했다.

Since the birth of cinema, the train has been a frequent protagonist. Just as the Lumière brothers captured the massive movement of a train entering the station in *The Arrival of a Train*, the oldest surviving Korean film *Turning Point of the Youngsters* uses the train station as its main stage. The railway was utilized as a means to showcase the advanced civilization and urban atmosphere of the time.

The train station is a space that symbolizes the moment when a person is thrown into the world and begins a chapter of their life. Here are a few examples of movie characters from different time periods. There is So-yeong, whose fate was reversed in the 1950s film *A College Woman's Confession*, Kyeong-a, the lovelorn protagonist of the popular 1970s film *Heavenly Homecoming to Stars*, and

공교롭게도 KTX가 개통한 2004년 전후 몇 년간을 흔히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기'라 부른다. 새 시대의 새로운 이야기가 탄생하기 시작한 까닭에 철도는 이전보다 다양한 역할을 도맡았다. 한국 영화사에 길이 남을 기차길 장면이 만들어진 것도 바로 이 시기다. <박하사탕>의 영호가 "나 돌아갈래"를 외치는 순간은 충북 충주 삼탄역과 제천 공전역 사이 터널에서, <살인의 추억> 마지막을 장식하는 추격과 격투 신은 경남 진주 개양역과 사천 사천역 사이 터널에서 촬영한 결과물이며,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에서 두 주인공의 운명을 주관하는 결정점은 현재 사라진 서울 용산역 구역사다. 이처럼 철길과 기차역이 알곳은 삶은 은유하는 예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가 하면 기차가 지닌 압도적인 속도감이 이야기를 추동하기도 한다. 영화 <라이터를 켜라>는 '기차 액션'을 표방한 활극이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오합지졸 사내들이 라이터 하나 때문에 벌이는 소동을 그린다. 주인공 일당은 천안역에서 들이닥친 경찰에게 진압되는데, 실제로는 울산역을 천안역으로 꾸며 촬영했다고 한다. 좀비 영화 <부산행>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철로 442킬로미터 길이만큼이나 압도적 스타일을 선사한다. 대전역에서 좀비들이 쏟아져 나오는 장면은 실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역에서, 기차가 동대구역에 닿아 가는 모습은 부산철도차량정비단에서 촬영했다는 뒷얘기도 영화만큼이나 흥미진진하다. 때론 배경을 넘어 배역까지 수행하고, 다른 역인 양 시침 똑 연기까지 해내는, 영화 속 놀라운 기차역의 목록은 다음 장에서 펼친다. ㉠

Geum-ja, who was just released from prison in the 2000s film *Lady Vengeance*.

Coincidentally, the years around the launch of the KTX train in 2004 are referred to as the Renaissance of Korean cinema. It was during this time that many memorable railroad scenes were created in Korean films. The moment in *Peppermint Candy* when Yeong-ho shouts "I want to go back" was filmed in a tunnel between Samtan Station in Chungju and Gongjeon Station in Jecheon, while the last chase scene *Memories of Murder* was filmed in a tunnel between Gaeyang Station in Jinju and Sacheon Station in Sacheon. In *Bungee Jumping of Their Own*, the two main characters are reunited at the now-defunct Yongsan Station in Seoul.

The overwhelming speed of the train is what drives the story in some films. The action-packed *Break Out* has a scene of men fighting over a lighter on a train from Seoul to Busan. In *Train to Busan*, the scene where zombies pour out of Daejeon Station was filmed at Bujeon Station in Busanjin-gu, while the arrival of the train at Dongdaegu Station was filmed at Busan Railway Vehicle Depot. ㉡





이곳에서 촬영했어요



MOVIE



<기적> # 삼척 도경리역

기차길은 있는데 기차역이 없는 마을, 주민들이 의기투합해 간이역을 세운다. 한국 최초 민자 역사인 경북 봉화 양원역을 소재로 한 영화이니만큼 주인공은 기차역 그 자체다. 산골짜기 간이역과 철로를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 제작진은 경북 상주와 영주, 강원도 정선과 원주 등 전국 각지를 누볐다. 극 중 승부역으로 등장하는 건물은 강원도 삼척 도경리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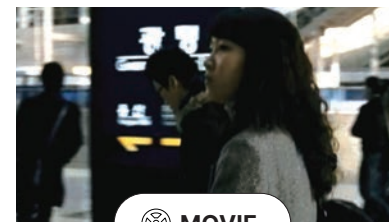
The village has a railroad track but no train station. The residents work together to build a makeshift station. The plot is based on the first privately-owned station in Korea, Yangwon Station in Bonghwa. The building that appears as Seungbu Station is actually Dogyeongni Station in Samcheok, Gangwon-do Province.



<미스진은 예쁘다> # 부산 동래역

부산 동래역에 귀여운 꼬맹이 하나와 노숙인 미스진이 등장한다. 불안 증세를 보이는 중독자 동진까지 합세해 잔잔했던 동래역의 일상은 순식간에 활기를 띤다. 철도 건설목 지킴이 수동과도 어울리기 시작한 이들은 특별한 우정을 쌓아 가며 연대한다. 영화의 주 무대인 옛 동래역은 1934년 동해남부선과 함께 영업을 시작한 유서 깊은 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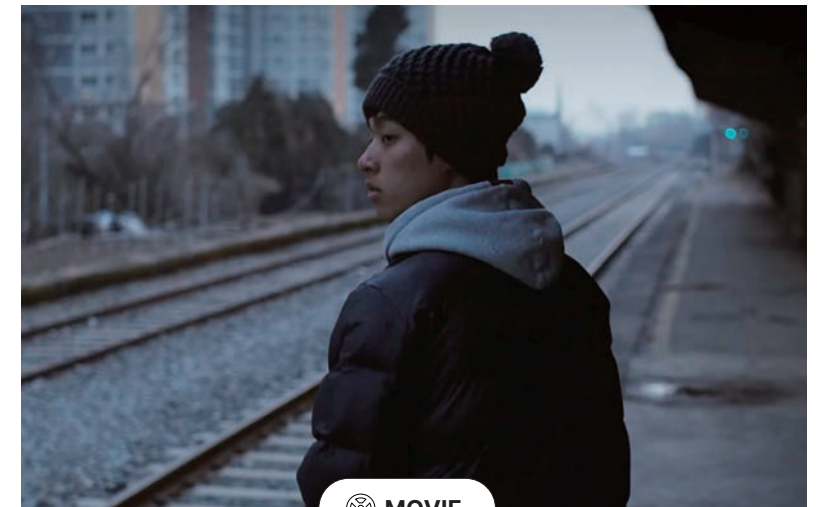
Homeless Miss Jin and an orphan girl appear at Dongnae Station in Busan, bringing a burst of energy to the lives of people at the station, including Su-dong, who is in charge of guarding the pedestrian crossing. The old Dongnae Station is a historic station that opened at the same time as the Donghae Nambu Line in 1934.



<가족의 탄생> # 광명역

미라는 남동생의 엄마뻘 연인과 낯선 아이를 집에 들인다. 그렇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들이 누구보다 애뜻한 가족을 이룬다. 영화의 에필로그에서 모든 인물은 햇살이 들이치는 경기도 광명역 곳곳에서 스치거나 엿갈리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광명역의 유려한 건축적 미감이 이야기의 여운을 조금 더 오래도록, 진하게 음미하도록 한다.

An unconventional family forms a special bond despite not being related by blood. In the epilogue of the film, the characters cross one another's paths at Gwangmyeong Station. The architectural beauty of the train station, where sunlight floods in, enhances the lingering emotions of the story.



<파수꾼> # 고양 원릉역



어리고 상처받기 쉬운 시절의 세 소년 기태, 희준, 동윤은 사소한 오해 때문에 서로를 핑계하고 배신한다. 한때는 틈만 나면 텅 빈 기차역을 배회하며 캐치볼을 하고 놀던 해맑은 아이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비극이 찾아온다. 경기도 고양시의 원릉역은 이야기 내내 흐르는 쓸쓸하고 위태로운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Three boys, Ki-tae, Hee-jun, and Dongyun, betray one another over trivial misunderstandings. Their favorite hangout was Wolleung Station, an unmanned station in Goyang-si, Gyeonggi-do Province. The bleak atmosphere of the station amplifies the film's precarious mood.



스케치 코미디 유니버스, 어렵지 않아요

<피식대학> <숏박스> <빵송국>... '스케치 코미디' 신드롬을 일으킨 유튜브 채널이다. 낱말하게 연결된 개그 설정, 그 세계를 파헤쳐 본다.

2020년 6월, 일요일 밤을 책임지던 TV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가 종영하고 정통 코미디 콘텐츠는 하락세로 접어든다. 일요일 밤 10시 즈음에 방 안을 울린 유쾌한 밴드 음악은 추억 속으로 사라졌다. 월요일이 다가옴을 실감하는, 웃음에 빠졌다가 현실로 돌아오는 그 오묘한 시간이 없어진 것이다. 그 많은 코미디언은 좀처럼 TV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개그 프로그램들이 종영해 설 곳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3년 후인 지금, 10분 내외의 짧은 영상으로 웃음을 주는 '스케치 코미디' 영상의 등장으로 코미디 콘텐츠는 호황기를 맞았다. 이제는 유튜브의 수많은 코미디 영상이 <개그 콘서트> 자리를 대신한다. 유튜브에서 유명해져 TV에 나오는 경우도 늘었다. TV에 출연하지 않아도 아이 디어와 카메라만 있으면 코미디 스타가 되는 시대다.

코미디 한 편 하세요

스케치 코미디 열풍을 일으킨 주역은 <피식대학> <너덜트> <숏박스> 등 구독자 수 1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채널들이다. 개그맨 유현규, 임재형, 전상협이 <너덜트>는 영화 같은 퀄리티에 공감과 유머를 적절히 섞은 영상으로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올랐고, <숏박스>는 누구나 겪어 봤을 법한 상황을 개그맨 김원훈, 엄지윤, 조진세가 자연스럽게 연기해 웃음을 자아냄으로써 약 247만 명(3월 20일 기준)의 구독자에게 애정을 받는 중이다. 스케치 코미디 이야기를 하자면 개그맨 김민수, 이용주, 정재형 세 명이 운영하는 <피식대학>을 빼놓을 수 없다. 일상에서 있을 법한 일을 소재로 하는 두 채널과 다르게 <피식대학> 채널은 깜짝 카메라, 헬스장 비로그 콘셉트나 복학생 콘셉트 개그 등의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러다 2000년대 초·중반 문화와 유행을 담은 '05학번 이즈 백'이 크게 유행하고, 중년 남성들로 이뤄진 산악회 콘셉트의 '한사랑산악회' 역시 인기를 얻자 <피식대학>은 그들만의 세계관을 꾸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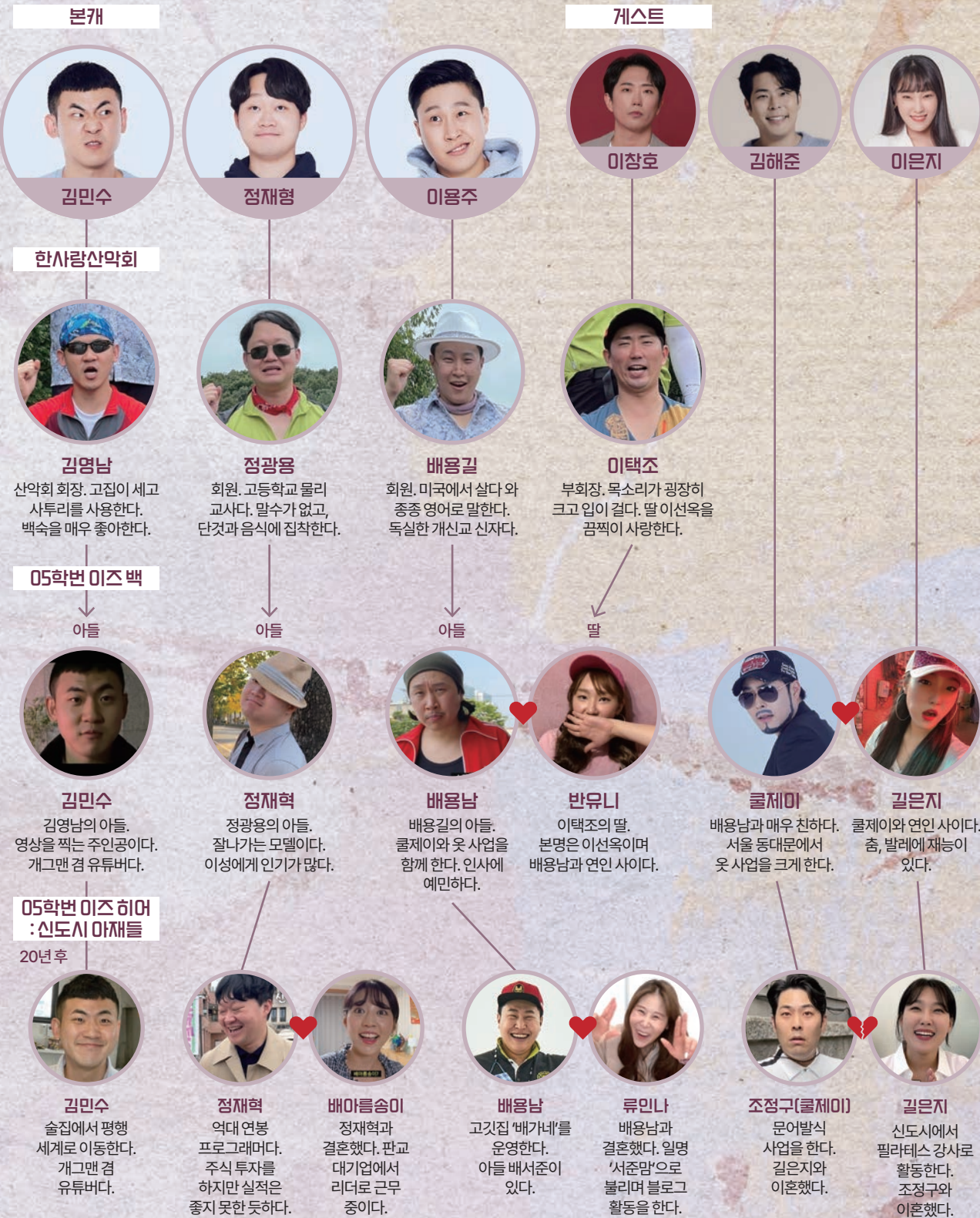
우리만의 유니버스, 코미디 세계관

결과는 폭발적이었다.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의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 그야말로 뱅 터지며 엄청난 화제에 올랐다.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방대하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막상 영상을 시청하면 그렇지 않다. '한사랑산악회'의 네 구성원이 '05학번 이즈 백'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부자 또는 부녀 관계고, '05학번 이즈 백'의 후속 시리즈 '05학번 이즈 히어'는 전 시리즈에서 20대였던 캐릭터들의 30~40대를 그린다. 단순한 설정이 웃음의 연결 고리를 만드는 순간, 시청자는 즐거움은 물론 콘텐츠에 대한 친근감과 애정까지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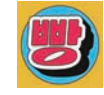
정체성과 세계관을 단단히 하려는 시도는 많다. 소리를 중심으로 하는 ASMR 콘텐츠에 역할극인 롤플레이를 섞은 영상으로 1인 다역을 펼치는 강유미가 운영하는 '강유미 좋아서 하는 채널', <숏박스>의 일등 공신 시리즈 '장기연애'와 현실적인 남매의 모습을 담은 '짘남매'의 콜라보, 2인조 보이 그룹 아이돌을 연기하는 <빵송국>의 '매드몬스터' 등 눈물 나게 웃기고 기발한 설정이 넘친다. 지금부터 재미만 세계관이 쏟아지니 안전벨트를 꼭 매시길. 웃음 가득한 코미디 세계로 출발한다. 1



<피식대학> 세계관 등장인물 관계도



유튜브 코미디 채널 세계관



빵승국



개그맨 이창호, 광범이 운영하는 채널로 카메라 앱 '스노우'를 사용한 꽃미남 2인조 보이 그룹 콘텐츠 '매드몬스터' 시리즈가 가장 인지도 높다. 멤버 탄(광범), 제이호(이창호)가 '내 루돌프' '다시 만난 누난 예뻐' 등 음원을 실제로 발매하며 아이돌처럼 활동한다. 이 세계관에서는 그들의 팬클럽 회원이 60억 명이다. <숫박스> 멤버 엄지윤이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 연습생으로 나와 매드몬스터의 곡 'H.H.I.'에 참여했다. 영상통화로 소개팅을 진행하는 <피식대학> 시리즈 'B대면 데이트'에서 이창호는 '김갑생활머니김 미래전략실 전략본부장 이호창'으로 분해 사랑받았다. 이를 이어 드라마 <재별집 막내아들>을 패러디한 '김재별집 막내아들' 시리즈를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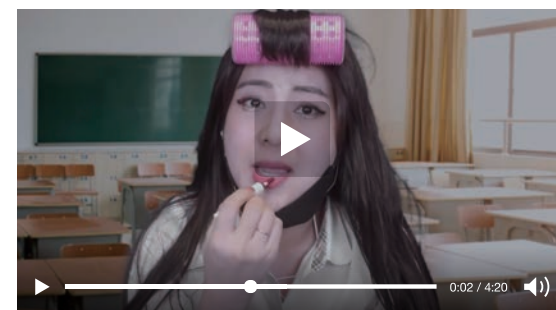


숫박스



대표 시리즈 '장기 연애'는 김원훈과 엄지윤이 10년 이상 사귀어 오려 된 커플이라는 설정으로, 연애 경험이 있다면 공감할 상황을 연출한다. 밥을 먹다 "어, 오늘 벌써 11주년이네"라고 하자 "그래? 그럼 뭐라도 하자"라며 심드렁하게 말하는 모습에 웃음이 터진다. 엄지윤과 조진세가 남매인 설정 '찌남매' 시리즈는 현실 남매 사이의 일을 다룬다. 두 시리즈의 통합 버전 '장기 연애 X 찌남매'가 백미다. 동생 조진세가 아르바이트하는 고깃집에 김원훈과 엄지윤이 손님으로 방문한다. 커플이 간죽거리며 조진세를 놀리는 장면에서 동생들은 눈물을 흘렸다는 후문이... '장기 연애' 시리즈 '막걸리집' 편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사랑산악회가 등장한다.

강유미 좋아서 하는 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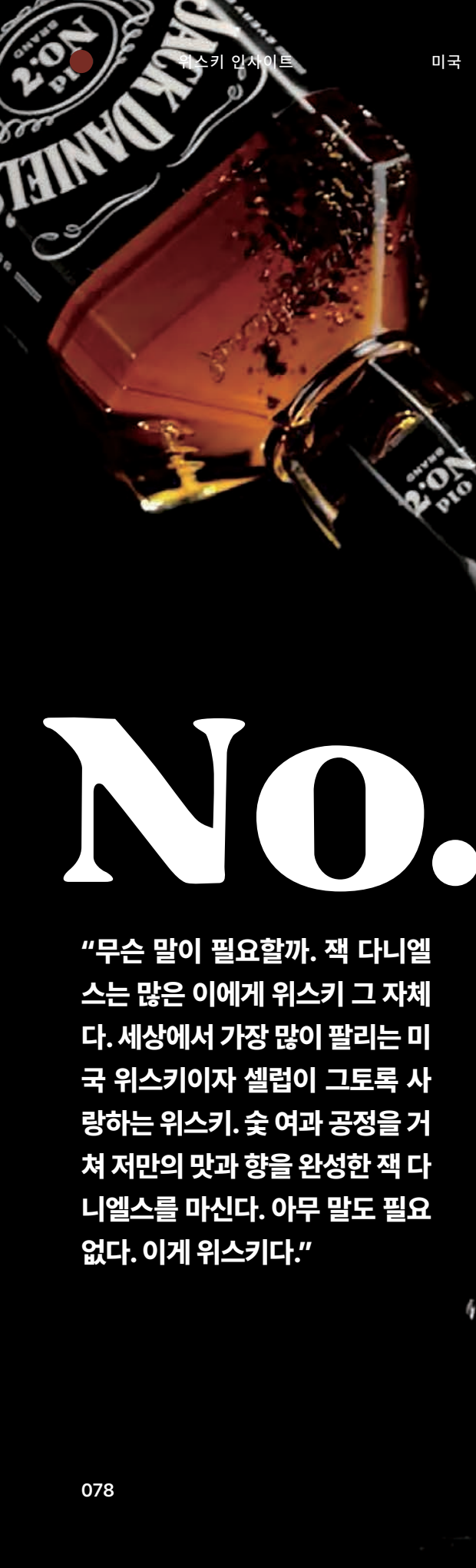


기획, 촬영, 편집 모두 강유미 혼자 운영하는 채널이다. ASMR을 활용한 롤플레이 콘텐츠에서 목욕탕 세신사, 미용실 사장님, 학습지 선생님 등으로 분해 주변 어디선가 본 듯한 캐릭터를 연기한다. 주축 캐릭터는 미용실 사장 경숙의 딸 유미, 문방구 아줌마의 딸 나은이다. 불량 청소년 유미와 뛰어난 외모로 아이돌 연습생이 된 나은의 인연은 고등학교에서 시작하는데, 훗날 메이크업 숍에서 직원과 손님으로 우연히 마주친다. 이 과정에서 강유미는 사이비 종교인, 성형외과 실장, 마케팅팀 직원 등 다역을 찰떡같이 소화한다. 각 영상을 천천히 보며 세계관이 이어지는 지점을 직접 찾아보는 재미를 느끼길 바란다.

이런 채널도 있어요



<킵서비스> 10년 뒤 세상을 보여 준다는 콘셉트의 영상을 올린다. 현재 유행이나 사회문제를 과장해 풍자한다. 꼬깃꼬깃 접히는 최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제트 제트제트 플립플립플립, AI 대학 교수님 등 설정이 기막하다. 멤버는 개그맨 정진하, 박진호다. '2032년 쇼미더머니' 편에서 <피식대학> 'B대면 데이트'의 캐릭터 임플란티드 키드가 출연하고, '2033년 한국 여행' 편에서 <숫박스>의 '장기 연애' 시리즈 촬영 장소를 외국인들이 성지순례 하듯 방문하는 연출이 나온다.



7

JACK DANIEL'S

No.

“무슨 말이 필요할까. 잭 다니엘스는 많은 이에게 위스키 그 자체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미국 위스키이자 셀럽이 그토록 사랑하는 위스키. 숯 여과 공정을 거쳐 저만의 맛과 향을 완성한 잭 다니엘스를 마신다. 아무 말도 필요 없다. 이게 위스키다.”

대중적. ‘수많은 사람의 무리를 중심으로 한’이라는 의미다. 뜻이 이리하기에 이 단어가 대중적으로 쓰이는 건 당연하다. 예를 들어 대중적인 제품이 있다. 사람들은 더 싼 가격에 보다 큰 만족을 얻으려 한다. 만족감에 열중해서 가격을 따지지 않는 이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가격 대비 성능인 가성비를 추구한다. 그래서 대중적이라는 단어를 가성비와 연관 지어 생각하는 이가 많으며, 거듭 강조하건대 가성비는 가격과 성능을 동시에 따지는 개념이다. 어렵게 설명한 것 같다. 한마디로 요약해, 대중적인 제품에 최고의 품질까지 기대하진 않는다. 그런데 이 문장은 틀렸다. 이거나 저거나 다 그르다는 말을 하지는 게 아니다. 지금부터 잭 다니엘스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대중적이면서 수많은 사람이 가장 맛있다고 손꼽는 위스키.

사각 병, 검은 라벨의 유혹

잭 다니엘스는 놀랄 만큼 팔린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위스키 가운데 독보적 1위다. 자체 브랜드 중 ‘올드 넘버 7’

만 연간 1억 5000만 병이 160개 나라에서 판매된다. 다른 브랜드를 모두 더해 2억 병에 이를 거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연매출이 39억 달러이고, 이는 5조 1070억 원이다. 지구 탄생 이래 최고로 흥행한 영화 <아바타>의 성적이 29억 달러로, 2009년 개봉 이후 14년간 수익을 합산한 수치다. <아바타>가 영화 산업에서 나아가 문화계 전반에 미친 영향을 떠올려 보자. 매출액이 전부는 아니나 한 가지는 남김없이 확실하다. 무슨 영화든, 문화 콘텐츠와 제품이든 잭 다니엘스는 그것을 가뿐하게 뛰어넘는 성취를 일궈고 계속 쌓아 가는 중이다. 궁금하다. 전 세계 사람이 즐기치게 찾고 마시는 잭 다니엘스는 대체 어떤 위스키일까.

위스키를 잘 몰라도 각진 병과 검은색 라벨을 어디선가 봐서 기억할 가능성이 높다. 어마어마한 판매량은 물론이고, 온갖 위스키가 범람하는 오늘날 역시 독특하다 느껴지는 디자인 때문이다. 병 모서리를 되도록 둥글게 만드는 여느 위스키와 다르게 잭 다니엘스는 사각에 가깝게 꺾었다. 게다가 온통 검은 라벨을 두르고 글자를 빼곡하게 채웠다. 강렬하다. 그리고 술한 이가 매혹되었다.

이게 바로 잭 다니엘스!

최고의 테네시위스키, 아니 어쩌면 잭 다니엘스는 최고의 위스키다.

앞에 놓으면 주변 분위기를 달라지게 하는 위스키는 적지 않다. 한 발 나아가 잭 다니엘스는 저만의 분위기를 창조한다. 영화 <여인의 향기>에서 배우 알 파치노와 등장하는 신처럼, 그저 잭 다니엘스를 옆에 뒀을 뿐이지만 나와 동등하게 분위기를 장악해서 결국에는 내가 돋보인다. 전설이 된 밴드 레드 제플린의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가 병째 입에 털어 넣는 너무나 유명한 사진도 그렇다. 내친김에 말해서 무수한 뮤지션이 잭 다니엘스를 떠받들었다. 너바나, 머틀리 크루... 프랭크 시나트라 경우 사후에 가족이 잭 다니엘스를 묘에 함께 묻었다. 잭 다니엘스가 대기실에 없어서 공연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정도였기에 그 결정엔 추모 이상의 의미가 담겼겠다. 잭 다니엘스는 시나트라 셀렉트를 출시해 자신을 숭배한 대가를 기렸다.

숯에 여과하는 위스키

매혹하는 디자인은 인기를 끄는 이유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누가 뭐래도 위스키는 맛과 향이다. 이쯤에서 짚어야 할 사실. 잭 다니엘스는 테네시위스키다. 잠깐, 미국에서 생산하는데 버번위스키가 아니라고? 버번위스키는 미국 연방 주류법을 지켜야 한다. 주재료인 옥수수 함유 비율, 오크통 사용 방법 등 까다로운 규정에 부합해야 버번위스키라는 이름을 쓴다. 2013년 미국 테네시주가 위스키 관련 법률을 공포했다. 테네시주에서 생산할 것, 링컨 카운티 프로세스를 적용할 것. 그래야 테네시위스키라고 명명하겠다는 내용이였다. 나머



잭 다니엘스는 링컨 카운티 프로세스로 독특한 맛과 향을 만들었다. 원액을 3일에서 5일 동안 숯에 여과하는 이 방식을 통해 위스키는 더 부드러워진다.



지는 버번위스키 규정과 동일하다. 와일드 터키, 포 로지스, 버펄로 트레이스, 우드포드 리저브를 비롯한 이름난 버번위스키 증류소가 켄터키주에 자리한다. 잭 다니엘스 증류소는 테네시주 린치버그에서 위스키를 빚는다. 위치가 다른 건 알겠고, 링컨 카운티 프로세스(Lincoln County Process)는 무얼까.


잭 다니엘스 증류소를 방문한 이는 아주 특별한 모습을 만난다. 사탕단풍나무 장작을 거대하게 쌓고는 모조리 불태우는 것이다. 활활 타오른 장작은 숯이 되고, 직원들이 이를 증류소 내부로 가져가 전용 통에 쏟는다. 잭 다니엘스의 모든 것이라 해도 충분한 링컨 카운티 프로세스의 정수가 이곳에서 시작된다. 숯이 가득한 수 미터 높이 전용 통 위에 기다란 파이프가 놓였다. 증류를 마친 원액이 파이프의 자그마한 구멍에서 떨어진다. 한 방울, 한 방울, 천천히. 장작을 태울 때 위스키를 부은 덕분에 숯은 이미 향이 스며든 상태다. 파이프에서 낙하한 원액이 향내 나는 숯을 통과해서 통을 빠져나가는 데 3일에서 5일 소요된다. 차콜 멜로잉(Charcoal Mellowing)이



레드 제플린 등 많은 뮤지션이 공연 중에 마실 만큼 잭 다니엘스를 애호했다. '뮤지션이 사랑하는'이라는 수식어 잭 다니엘스만큼 어울리는 위스키는 없다.

라고도 부르는 이 공정을 거쳐서 불순물이 사라진 원액은 더욱 부드러워진다. 이런 다음에야 원액을 오크통에 넣어 숙성한다. 잭 다니엘스 증류소는 "오크통이 몇 년 동안 하는 일을 우리는 며칠 만에 달성한다"라고 말한다.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링컨 카운티 프로세스는 분명 잭 다니엘스의 맛과 향을 결정짓는다.

잭 다니엘스를 즐길 시간

1866년, 애칭이 잭인 재스퍼 뉴턴 다니엘이 증류소를 세웠다. 어려서부터 주조 기술을 배워 온 그는 야망이 컸고 장사 수완이 빼어났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네이션 그린에게 숯 여과 공정을 전수해 적용했으며, 당시에 파격적인 사각 병을 디자인했다. 또한 밴드를 동원하는 요란한 방법으로 위스키를 홍보했다. 그가 완성한 공정, 디자인, 홍보 방법은 오늘날까지 유효하다. 매년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서 유지하는 링컨 카운티 프로세스, 변함없이 각지고 검어서 웬지 가지고픈 유리병, 한 뮤지션이 투여 기간에 아침마다 시리얼을 넣어 끼니로 마셨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 등. 160여 년 전 그때를 그대로 옮긴 듯 고고하게, 그보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여전할 듯 건실하게 잭 다니엘스가 우리 앞에 있다. 대량생산이 선물한 저렴한 가격의 혜택을 마음으로 먼저 음미하고, 자 이제 마실 차례다. 부드러이 올라오는 바닐라 향을 감상한다. 기분 좋게 거칠어서 더 달콤한 맛을 입안에서 굴린다. 여운은 나중에 느끼기로 한다. 다시 글라스에 코를 대고 입을 맞춘다. 잭 다니엘스를 앞에 둔 분위기, 이 맛과 향을 즐기지만 해도 지금은 짧을 것이니. 



낮과 밤이 즐거운

최명서 군수가 여행하기 좋고 살기 좋은 강원도 영월을 소개한다.

Q. 영월 하면 동강과 서강 풍경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만큼 자연이 아름답기로 이름난 고장이죠. 영월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A. 저는 영월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고즈넉하고 수려한 자연을 만끽하면서 성장했지요. 영월을 찾아 주시는 여러분도 저와 같은 감동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단종의 가슴 아픈 역사와 김삿갓의 풍류까지 흐르는 영월은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선물 같은 곳입니다. 최근에는 트렌디한 카페, 베이커리, 숙소가 늘어난 데다 청년들이 속속 정착해서 곳곳에 활기가 넘치고요. 영월군의 슬로건은 '변화와 도약, 살기

좋은 영월'입니다. 슬로건 그대로 정말 살기 좋은 고장이예요.

Q. 아름다운 자연은 '수도권 야외 정원 도시'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까. A. 맞습니다. 영월은 거대한 정원이 될 예정이예요. 2021년에 동서강정원 '연당원'을 개원했고, 현재는 동서강정원 '청령포원'을 조성 중입니다. 이를 수변 산책로 등을 짓는 동서강수질래 프로젝트와 연계해 영월을 전체를 정원 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뒤에는 수도권에서 조

금만 이동해도 크고 맑은 야외 정원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2026년에는 별마로천문대가 위치한 봉래산 정상부에 카페와 전망대, 모노레일을 만듭니다. 낮과 밤이 다 여행하기 맞춤형 도시, 편히 쉬러 왔다가 머무르게 되는 도시 영월을 기대해 주세요.

Q. 매년 봄 단종문화제를 개최하지요. 가을엔 김삿갓문화제를 열고요. 영월을 대표하는 두 축제는 올해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나요. A.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정상 개최하는 만큼 설레는 마음을 담아 이번 단종문화제의 주제를 '다

시 찾아온 영월의 봄'으로 정했습니다. 1967년에 지역 주민이 주도해 시작한 단종제의 의미를 되살려 군민이 함께하는 축제로 진행하려 합니다.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단종국장 야간 행렬, 정순왕후 선발 대회, 드론라이트쇼를 실시하고 국가표준영정 제100호로 지정된 단종 어진을 전시합니다. 단종문화제의 가치를 더욱 높일 것이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김삿갓문화제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열립니다. 김삿갓이라고 불리는 방랑 시인 김병연 선생의 자취가 남은 영월에서 시 낭송 대회, 해학의 길 걷기 체험 등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삿갓의 풍류와 해학을 녹인 프로그램을 선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Q. 4월에 단종문화제를 보러 오는 분들에게 어떤 여행지를 추천하시나요. A. 당연히 단종 관련 여행지를 먼저 권해 드립니다. 단종이 유배 와서 머무른 청령포, 단종의 능인 장릉에서 역사를 헤아려 보시면 보다 뜻깊은 여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청령포와 장릉은 영월답게 자연이 고와서 그 자체로 휴식을 안겨주는 여행지이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체험과 전시를 즐기는 영월관광센터, 강원도 첫 지방정원 연당원, 야경 명소 별마로천문대, 예술의 영감이 넘실거리는 젊은달와이파크 등 다채롭습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과 여행하는 분이 많아요. 영월관광센터, 젊은달와이파크, 연당원과 연당원 옆 별빛반려견놀이터에서 편하게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고즈넉함과 트렌디한 분위기가 공존하는 영월을 하루만 여행하기에는 아쉬우니 며칠 머무르면서 별빛이 수놓은 밤하늘까지 감상해 보세요. 만족스러우시리라 확신합니다.

Q. 영월에선 어떤 먹거리가 기다리고 있나요. A. 어수리를 아시나요? 깊은 계곡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식감과 향이 훌륭합니다. 영월군은 600여 년 전에 영월 백성이 단종에게 진상한 어수리를 주재료로 어수리나물 밥상을 개발했습니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영월과 어울리거니와 각종 매체에 소개돼 인기가 정말 높습니다. 두 번째는 면 요리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영월에는 면 요리 식당이 준비해 취향과 계절에 따라 골라 먹는 재미가 보통이 아닙니다. 봄에는 따뜻한 최국수, 여름에는 무더위를 잊게 하는 동치미국수와 초계

PHOTO PICK
영월 여기서 한 컷

yeongwol_hot

별마로천문대 연중 200일 가까이 쾌청한 하늘 덕분에 별이 잘 보이는 것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별마로천문대는 해발 799.8미터 봉래산에서 내려다보는 전망이 무척 황홀합니다. 또 2021년 12월부터 선보인 성당과 성운 주제의 미디어 아트는 놓칠 수 없는 즐길 거리입니다. 어디서 사진을 찍어도 별마로천문대에서는 작품이 됩니다.

국수, 가을엔 감칠맛이 예술인 막국수와 쫄면 감자옹심이칼국수, 겨울엔 얼큰하고 뜨끈한 장칼국수가 제격이지요. 마지막은 이미 맛있다고 입소문 난 메밀전병입니다. 메밀 소를 넣고 돌돌 말아 노릇노릇 구워 내 맛이 기막힙니다.

Q. 마지막으로 <KTX매거진>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영월과 충북 제천을 잇는 고속도로 공사가 끝나고 서울 청량리와 강원도 태백을 오가는 고속철도(EMU-150)가 정식 운행하게 되면 접근성이 지금보다 높아 집니다. 제천, 원주, 평창, 정선과 가까워 지나가다 들러 구경하기에도 아주 좋고요. 4월에는 영월역 맞은편에 여행자 라운지를 오픈합니다. 스마트 기기 충전, 캐리어 보관에서 여행 정보 안내에 이르는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편안하게 넘는다는 의미를 지닌 영월의 지명처럼 편안하게 머무르는 행복한 여행이 기다리는 곳, 영월로 놀러 오세요! 📷



Treasure of Korea



부처의 뜰

-청양 장곡사 괘불

사찰 마당에 높이 8미터 거대한 화폭 속 화려하게 꾸민 부처가 나타났다. 하늘에는 오색 깃발을 걸고 갖은 음식과 꽃, 향과 음악을 울리는 의식의 주인공이다. 첩첩산중 깊은 계곡, 절집 마당에 내려온 부처는 작은 뜰을 설법 도량으로 바꾸어 놓았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사찰에서는 돌아간 닢을 편안히 보내고 살아남은 자를 위로하는 불교 의식을 많이 거행했다. 이러한 야외 의식이나 큰 법회에 괘불을 걸었다. 거대한 부처는 존재만으로도 신비로웠고, 사람들에게 강렬한 영적 경험을 선사했을 것이다. 충남 청양 칠갑산 장곡사의 괘불이 박물관으로 걸음했다. 1673년 5월 어느 날 괘불을 완성한 지 꼭 350년 만의 일이다. 괘불이 펼쳐진 곳은 어디라도 부처님이 설법하는 청정한 땅이 된다. 산 자에게는 희망을 약속하고 죽은 이에겐 안식을 기원하는 부처의 뜰로 초대한다. 그림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부처의 뜰-국보 청양 장곡사 괘불>전에서 만날 수 있다.

Buddha's Courtyard

-Buddhist Hanging Scroll at Janggoksa Temple

The massive painting, eight meters high, in the courtyard of Janggoksa Temple features a splendidly decorated Buddha. This image of Maitreya Buddha transformed the courtyard into a sacred space. After the Japanese invasions of Korea during the Joseon Dynasty, many Buddhist rituals were held to comfort the souls of the deceased and to comfort the survivors. Large hanging scrolls called *gwaebul* were hung during such ceremonies. For the first time since its completion in May 1673, the *gwaebul* of Janggoksa Temple has made its way to the museum. Come admire it at *Buddha's Courtyard: Buddhist Hanging Scroll at Janggoksa Temple*, an exhibition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Puzzle

<쿠기런 킴덤 숲은 쿠기를 찾아라 모험의 시작>
매력 넘치는 쿠기가 가득한 쿠기런 킴덤의 세계로 떠난다. '쿠기런 킴덤' 게임 속 특별한 에피소드를 따라 공벨리 마을과 여행자의 집터를 차례로 방문한다. 아기자기한 그림에 숨은 쿠기와 친구들, 아이디어를 찾다 보면 집중력과 기억력, 관찰력이 쑥쑥 좋아진다. 숨은그림찾기뿐 아니라 퍼즐 조각 찾기 등 다양한 미션으로 재미가 두 배다. 유감한 쿠기와 함께 여정을 시작하자. 서울문화사 편집부 지음 서울문화사 퍼낸

editor. 남혜림 자료 협조 서울문화사, 데브스터즈



여행자의 집터

지친 여행자들이 모여 휴식을 취하며 즐겁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곳. 숨겨져 있는 쿠기와 친구들, 그리고 아이들과 몬스터들을 찾아보라!



쿠기런 에피소드	아이디어	몬스터
쿠기런의 스토리텔링	수정된 미법서	새로운 몬스터
쿠기런의 캐릭터	최고의 아이디어	공벨리

*정답은 10월 18일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타는 친구도 도전할 수 있게 눈으로만 찾아주세요.

여객마케팅처 예약발매부 철도 승차권 발매, 더욱 빠르고 보다 간편하게

이제 외국인도 자국 앱을 통해 한국 철도 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 여객마케팅처 이승복 부장에게 예약·결제·발권 시스템을 이야기해 들었다.



(왼쪽부터) 예약발매부 이영명 차장, 우현정 과장, 김경민 대리, 이승복 부장

Q. IT 기술이 존재하지 않은 과거에는 예약발매부 업무가 지금처럼 다양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약발매부의 탄생 배경과 업무를 소개해주세요.

A. 예약 발매 업무는 원래 예매 제도를 총괄하는 여객제도부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고객의 예매 패턴이 변화하고 온라인 발매가 증가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2020년 예약발매부가 신설되었습니다. 승차권 발매 업무와 결제 담당을 하나의 부서로 모은 것이지요. 설립 후 부서는 여정 조회에서 결제, 발권까지 승차권 서비스의 전 과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표적인 예매 채널인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보급에 맞춰 2010년 '글로벌코레일'로 출발한 모바일 앱 '코레일톡'은 지난해 전체 예매 건수 중 약 83퍼센트를 차지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판매 채널을 확대하기 위한 국내외 IT업체 협력 사업도 중요한 업무죠. 명절 기간 승차권 예매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고객님께 편의를 제공하고자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Q. 승차권을 예약하고 발권하는 현재 시스템에 많은 노력이 뒷받침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객이 실감할 만한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2021년 2월에 '네이버'와 '카카오톡'에서 승차권을 구매하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여전히 고객의 80퍼센트 이상이 코레일톡을 통해 승차권을 구매하지만, 더욱 간편하게 이용하시도록 코레일톡 외 앱에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2022년 7월에는 네이버 길찾기 기능과 연동해 예매 서비스를 보다 발전시켰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출발지와 도착지 경로를 검색할 시 동선에 철도가 포함된다면 예약 화면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해당 지도에서 예매가 이뤄지는 방식이죠. 또 하나는 코레일톡 자체의 혁신입니다. 과거에는 코레일톡에서 승차권을 구매할 때 카드 번호를 입력해야 해서 번거로웠습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카카오페이 등 여러 결제 수단을 도입했고, 지난해에는 BC페이북과 내통장결제를 추가해 고객들께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Q. 중국 모바일 플랫폼 연계 사업도 진행하신다고요.

A. 중국인 대부분이 결제 앱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스마트폰에 설치했기 때문에 두 앱의 중국 내 결제 점유율은 95퍼센트를 상회합니다. 쇼핑, 음식 주문, 대중교통 이용, 송금 같은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서비스에 관여하는 셈이지요. 중화권 고객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앱에서 한국 철도 승차권을 별도 환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매하는 기능을 구상해 2019년 해당 앱 업체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위챗페이는 2021년 12월, 알리페이는 2023년 1월에 예매 서비스 시범 운영에 나섰고요. 문제점 보완을 마치고 4월 정식 운영 전환을 앞둔 시점입니다. 정식 운영 뒤엔 한국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이 대폭 확대되리라 예상합니다. 나아가 철도 관광 연계 상품과 코레일 패스를 함께 판매하겠다는 계획이 실현돼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Q. 항공사와 협업한 승차권 연계 서비스 역시 선보인다고 들었습니다.

A. '항공+철도 승차권 연계 서비스'는 전 세계 항공사 홈페이지 및 앱,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예약할 때 KTX 승차권도 함께 구매하는 발권 시스템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운영해 왔으며, 오는 5월 1일 정식 서비스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 부산으로 가는

여정을 검색하면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항공편,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공항철도,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KTX가 표출되는 윈스톱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검색뿐 아니라 결제와 발권이 가능해서 한국인과 외국인 여행객 모두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아시아나, 싱가포르, 가루다 인도네시아, 카타르, 베트남항공 등 10여 개 항공사에서 시범 운영하고 추후 전 세계 100여 개 항공사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Q.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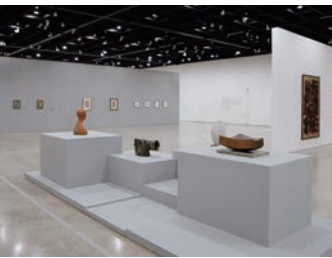
A. 열차 예매와 결제 관련 모든 시스템을 다룬다 보니 고객 민원이 많습니다.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 업체와 협력하고 소통하는 일이 종종 까다롭기도 하고요. 그러나 트렌드에 관심을 기울이고 IT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업무에 보람을 느낍니다. 서비스 개발에 도전하거나 트렌디한 IT업체와 협업하는 동안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 열린 시야를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우리 팀원들 또한 "IT 개발자시죠?"라는 질문을 자주 들을 정도로 열의를 다합니다. 중화권과 항공 연계 업무를 진행하면서는 서비스 마인드는 물론이고 해외시장 이해도를 넓히게 되었고요. 내딛는 걸음이 다 한국 철도의 첫걸음이기엔 쉽지는 않습디만, 오히려 그런 덕분에 자부심이 큼니다.

Q. 예약발매부는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A. 고객 편의가 최종 목표입니다. 조금이라도 편하고 트렌디하며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규 사업을 계속 선보이려 합니다. 우선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코레일톡과 홈페이지를 리뉴얼해 나가겠습니다. 코레일톡에서도 항공권을 구매하는 시스템이 그중 하나죠. 네이버, 카카오톡 승차권 예매 서비스는 각 플랫폼의 특화 기술과 시너지 효과를 거둘 방안을 머리를 맞대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행객이 자국 플랫폼을 통해 한국 철도 승차권을 예약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파트너를 찾는 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변화하고 발전하는 저희 예약발매부의 사업들을 지금처럼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리페이, 위챗페이 앱에서 한국 철도 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는 QR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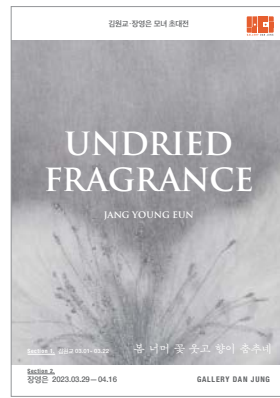


한솔미술관 대구관

Culture

<웰컴 홈: 개화>

고 이견희 씨가 기증한 한국 근현대 미술 대표 작가 44명의 작품 81점이 대구를 찾는다. 첫 번째 섹션은 전통화를 계승한 노수현, 변관식, 이상범부터 서양화의 구분용, 도상봉, 이쾌대 등 가슴 떨리는 라인업으로 시작한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박수근, 이응노, 천경자, 권진규까지 한국 미술계를 꽃피운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 '미술의 확장과 변용'을 주제 삼은 세 번째 섹션도 김환기, 유영국, 방해자 등 면면이 화려한 작가가 맞는다. 봄날, 예술이 만개했다. **기간** 5월 28일까지 **문의** 053-803-7900(대구미술관)



<봄 너머 꽃 웃고 향기 춤추네>

3월에 열린 김원교 작가전 바통을 딸 장영은 작가가 이어받는다. 수묵 작업을 하는 엄마 곁에서 묵향 맡으며 자란 작가는 광목에 전통 발목벌을 구사해 자연의 이미지를 그리고, 은색 바느질 선을 더해 빛을 표현한 작품으로 주목받았다. 그만의 '푸른 수목화'에서 한국화의 오늘과 내일을 본다. **기간** 4월 16일까지 **문의** 02-6104-0058(서울 갤러리단정)



<어딘가에는 살고 싶은 바다, 섬마음이 있다>

전남 신안의 '퍼플섬' 반월도·박지도, 순례자의 길로 '섬티아고'라는 별명을 얻은 기점도·소악도, 섬 전체가 미술관으로 변모한 고흥 연흥도. 누가 기획했을까? 통영 동피랑마을의 영광스러운 오늘을 낳은 저자의 작품이다. 소외된 섬을 '가보고 싶은 섬' '살고 싶은 섬'으로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한 그의 이야기를 듣는다. **윤미숙** 지음 **남해의봄날** 펴냄



<베스트 오브 코니 윌리스>

한 장 한 장이 재미있고, 한 편을 완독할 때마다 굉장하다는 감탄이 절로 나온다. SF 소설계 가장 큰 상인 휴고상과 네블러상을 휩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코니 윌리스의 수상 작품을 한 권에 모았다. 2006년 월드콘 주빈 연설문과 2011년 그랜드 마스터 수상 연설문도 함께 수록해 더욱 값지다. **코니 윌리스** 지음 **최세진, 김세경, 정준호** 옮김 **아작** 펴냄

<헌책 낙서 수집광>

옛 책을 오랜만에 펼치고는 메모를 보며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생소해하고, 맥락 없는 메모 앞에서는 '왜 썼지?' 되짚는다. 헌책방을 운영하는 저자는 지난 15년간 밀줄과 낙서를 수집했다. "헌책에서만 찾을 수 있는 특별한 보물"이기 때문이다. 감동적이거나 웃기고 기묘하거나, 낙서 속으로 상상 여행을 떠난다. **윤성근** 지음 **이야기장수** 펴냄



2023 익산 방문의 해

THE YEAR OF VISIT TO IKSAN

Culture

MOVIE



<라이스보이 슬립스>

학교에서 '라이스보이'라고 놀림당하는 소년 동현은 거울을 마주한 채 양쪽 눈 고리를 위로 당기며 엄마 소영에게 묻는다. "나 이상하게 생긴 것 같아?" 이내 이어지는 소영의 대답. "너 엄청 잘생겼어." 낯선 캐나다 땅에 정착하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두 사람은 오직 서로의 존재에 기대어 하루하루 살아간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저마다의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이야기의 무대는 황금빛 눈이 펼쳐진 한국으로 이동한다. 4월 19일 개봉. 감독 앤서니 심 출연 최승윤, 이든 황

<콜드플레이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

3면 스크린과 풍부한 음향으로 콜드플레이와 그들의 음악을 만난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콘서트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 공연 실황이 일반 상영관은 물론이고 특수 상영관인 스크린X, 4DX, 4DXScreen에 도착한다. 'Yellow' 'Fix You' 'Viva la Vida' 등 명곡이 실 새 없이 이어지고, BTS 진의 'The Astronaut' 첫 라이브 공연 등 이제껏 공개되지 않았던 특별한 콘텐츠가 펼쳐진다. 4월 19일 개봉. 감독 폴 더그데일 출연 콜드플레이



ENTERTAINMENT



<폴 카운트>

야구에서 공 하나가 스트라이카아웃 또는 볼넷을 결정짓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폴 카운트라 한다. KBO리그 10개 구단의 극적인 이야기를 담은 스포츠 다큐멘터리 제목으로 이만큼 적절한 단어도 없을 것이다. 지난 시즌 SSG 랜더스의 우승부터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의 마지막 경기 모습까지, 10개 구단 이야기를 10개 에피소드로 그려 낸다. 선수들의 모습은 물론이고 구단주와 응원단장, 야구 팬의 뜨거운 목소리를 생생하게 채록했다. 4월 공개. 제공 디즈니+ 감독 김중찬 출연 KBO리그 10개 구단

SHOWS



<2023 함께, 봄>

음악가를 꿈꾸는 장애인, 청소년 단원으로 이루어진 뷰티플마인드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윤한이 협연한다. 1부는 뷰티플마인드 오케스트라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 등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고, 사운드트랙을 중심으로 편성한 2부에서는 윤한이 가세해 분위기를 바꾼다. 일시 4월 15일 오후 3시 장소 서울 국립극장 문의 02-2280-4114



<분장실>

이야기 무대는 안톤 체호프의 <갈매기>를 상연 중인 공연장의 분장실이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네 여성 배우가 무대 뒤에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 예술에 대한 열정, 삶의 회한이 묻어난다. 일본 연극계 거장 시미즈 구니오의 대표작으로, 송옥숙·황석정·서영희 등 빼어난 캐스트가 힘을 실었다. 기간 3월 4일~5월 14일 장소 서울 서경대학교 공연예술센터 문의 02-3141-7500

DRAW YOUR HEALING SPACE

"예술이 즐거움과 치유가 되는 공간, 뮤지엄 원에서 새로운 봄을 맞이하세요."



SR KTX 공식 협력 여행사 ☎ 전화문의 1899-2550
TALK 카톡채널상담 '기차여행센터'

부산에 반하다 반할부산



더 자세한 사항은 QR CODE로 확인해 보세요

기차여행센터

ktx 왕복 + 뮤지엄 원 2인 패키지

여행일 2023년 04월 ~
포함 내역 서울-부산 2인 왕복 KTX 기차비, 뮤지엄 원 2인 입장료
*다른 행선지의 경우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불포함 내역 여행자 보험, 식대, 개인 기타 경비
상품가 **239,200원**

*기차 시간, 일정 변경 및 인원 조정 문의는 상담 부탁드립니다. *성수기로 인해 예약날짜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중 요금으로 이외 일정 요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차 운행조정, 기차 잔여좌석 사정으로 인해 기차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정을 추천해 드리는 자유여행으로 여행자의 편의에 따라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 기차여행 패키지입니다.



MUSEUM 1



Add.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20, 뮤지엄 원

부산 해운대 미디어 아트 전문 현대 미술관
약 700여 평 복층 형태의 구조
8000만개의 LED 디스플레이





Letters from Readers



<KTX매거진>을 보고 나서



광주는 언제나 축제

출장 일정이 끝난 후 KTX를 타고 서울로 향하던 중, 광주를 동서남북으로 나눠 소개한 기사를 봤어요. 멋과 맛을 두루 갖춘 광주를 즐기러 떠나 볼까 해요. 4월에는 광주의 봄과 예술을 만나러 갑니다.

kils****



요리조리 부산 골목 탐방

종종 여행 갔던 부산인데,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특히 수영구의 망미골목이 궁금해지네요. 다음에 부산을 가게 되면 여유롭게 골목을 돌아다니며 구석구석 숨은 공간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홍승진 경기도 시흥시 목감중앙로

독자 편지를 보내 주세요!

<KTX매거진>을 읽은 소감과 독자님의 여행 사진을 기다립니다. KTX@seoulmedia.co.kr로 독자 평가 들려주고픈 이야기,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내 주세요(사진은 600KB 이상). 메일에 이름, 연락처, 주소를 꼭 기재해 주세요. 마감은 4월 15일입니다.

기차로 여행하면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 KTX를 타고 전남 여수에 다녀왔어요. 추운 겨울이 가고 싱그러운 봄이 다가오고 있네요. 봄을 느끼기에는 너무 짧은 여행이라 아쉬웠는데, <KTX매거진>에서 진해군항제 기사를 보고 다음 봄 여행지를 정했어요. 최유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KTX매거진>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는 자연에서 온 100퍼센트 천연 유기물질 풀빅산을 함유해 두피 탄력 및 모공 관리,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약산성 풀빅 헤어샴푸 & 토닉 세트(7만 원 상당)를 선물로 드립니다. 허수오 뿌리, 병풀, 창포 뿌리, 어성초 등 식물성 원료 6종이 예민해진 두피 건강에 도움을 주어 가늘고 힘없는 모발을 튼튼하게 해 주는 기능성 제품입니다.



제품문의 1522-9158



Information



제13회 철도사진공모전 '봄을 이음'

© 박진우



- 094 한국철도 소식
- 102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 104 열차 이용 안내
- 106 비상시 행동 매뉴얼





비상 안전 경영 체제 선포

한국철도가 안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비상 안전 경영 체제에 도입했다. 지난 3월 대전 사옥에서 진행된 화상회의 내용은 사장 직무 대행 체제에 따른 절대 안전 준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개선 등 주요 대책에 관한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모든 임직원이 '중대재해 제로'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결의했다. 한국철도는 고객 신뢰 확립 및 안전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1



경춘선 신규 QR게이트 도입

경춘선 ITX-청춘 QR게이트가 바뀐다. QR게이트는 ITX-청춘 승차권의 QR코드를 전철 교통 카드 단말기 외에 별도로 설치한 QR리더기에 스캔하고 통과하는 방식의 개·집표기다. QR리더기의 위치 식별이 어렵다는 이용객 불만 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게이트는 QR코드 인식 화면을 넓혀 인식을 높였다. 또 태그를 편하게 하도록 게이트 상단에 리더기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를 변경할 예정이다.

2



봄철 해빙기 특별 안전 점검

한국철도가 전국 철도 시설을 대상으로 봄철 해빙기 특별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은 전국 8개 지역본부별로 중점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지난 5년간 발생한 철도 사고 등을 분석해 계절 요인을 감안한 취약 개소를 집중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봄철 황사·꽃가루에 의한 전자 기기 오작동 예방, 온도 변화로 인한 급전 장애 방지 점검 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철도 환경을 만든다.

5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출범

승강기 안전 점검과 이용 안내를 돕는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이 탄생했다. 한국철도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력해 유관 자격증·업무 경력 등을 고려한 다음, 60세 이상 단원 70명을 선발했다.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은 전국 8개 기차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안전 점검과 고령자 및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6



돌아온 KTX 특송 서비스

고속 열차로 기차역 간 물품을 배송하는 KTX 특송 서비스를 재개한다. 지난 3월 2일 서울역과 부산역에서 단계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4월에는 용산역·익산역 등으로 확대해 최종적으로 전국 14개 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역별 서비스 재개 일정과 이용 방법, 요금 등 세부 사항은 KTX 특송 홈페이지(www.zimcarry.net/pages/KTX.php)에서 확인하자.

3



수도권 전철 환승역에 이동 안내선 설치

수도권 전철역 환승이 더 편해진다. 한국철도가 혼잡도 관리를 목적으로 이용객의 동선을 정비하는 시설물 대책을 마련했다. 신도림역과 왕십리역 등 15개 주요 수도권 환승역에 이동 안내선을 설치해 동선을 명확히 구분한 것이다. 이어 올해 말까지 신도림역과 가산디지털단지역에 승강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출구를 신설하고, 원활한 이동에 지장을 주는 역 매장 등의 이전·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4



튀르키예·시리아 구호 성금 1억 원 기부

한국철도의 따뜻한 마음이 해외에 닿았다. 지난 2월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노사 공동으로 마련한 성금 1억 원을 기부한 것이다.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한 성금은 두 나라의 지진 피해 복구 활동과 이재민 생필품 지원에 쓰인다. 이 외에도 한국철도는 지난해 강원·경북 지역 산불 피해 복구에 3억 원을 지원하는 등 임직원 봉사와 기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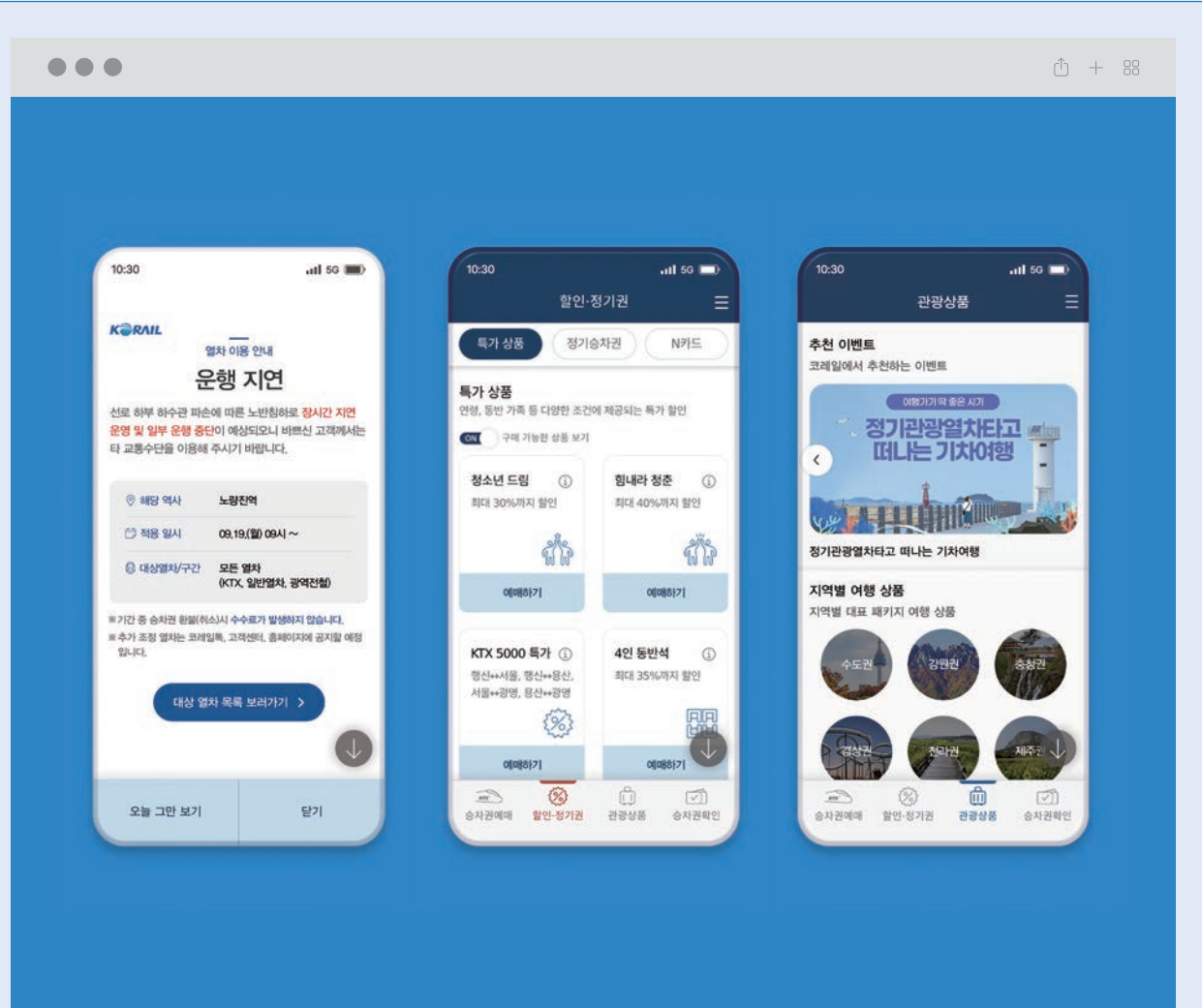
한국철도, 국제철도연수과정 해외 홍보

한국철도가 지난 3월 열린 국제철도협력기구 교육 분과 화상회의에서 '한국철도의 국제철도연수과정' 사례를 발표했다. 러시아, 중국 등 10여 개국 철도 기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국철도 국제 연수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주제로 한 초청 연수를 예시로 들며 교육을 토대로 한 회원국 간 교류 협력 의지도 밝혔다. 한국철도는 여러 국가와 교육 협력 경험을 공유하는 뜻깊은 회의였다고 말했다.

8



ALL THAT KORAIL SERVICE



디자인 개선으로 더 쉽고 편리해진 코레일톡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철도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출시한 한국철도 승차권 예매 앱 '코레일톡'은 간편하고 빠른 결제로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승차권 예매는 물론 각종 여행 정보 조회까지 가능한 코레일톡 앱이 디자인 개선으로 더욱 편리해진다. 이번 업데이트는 고객이 디지털 공공 서비스를 수월하게 이용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실현 과제 시범 적용 사업으로 진행했다. 먼저 긴급 공지 사항이나 주요 사항을 안내하는 팝업 창 디자인을 간결하고 일관성 있게 개선하고,

중요한 정보가 한눈에 보이도록 시인성을 높였다. 또 앱 하단 메뉴 아이콘에는 사용자가 현재 어떤 메뉴를 선택했는지 명확하게 보이도록 구분선 기능을 추가했다. 할인·정기권과 관광 상품 화면은 상품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재배치해 직관성을 강화했고, 상품별 대표 이미지를 추가해 탐색이 빨라졌다. 아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업데이트를 실행하자. 확연하게 달라진 코레일톡이 당신을 반갑게 맞이해 줄 것이다.



봄맞이 꽃축제

2023

| 3.3 - 4.30 |

KTX타고 벚꽃, 매화, 산수유 만나러 가요





친절 직원을 소개합니다



고객의 편지

지난 2월 설계 공모전에 작품을 제출하기 위해 KTX를 타고 동대구로 가던 중, 갑작스럽게 찾아온 심한 어지럼증으로 쓰러졌습니다. 겨우 정신을 붙들고 코레일톡 앱을 켜서 서비스콜을 요청했고, 열차팀장님이 바로 와 주셨지요. 열차팀장님은 제가 물을 마시도록 도와주고, 천안 아산역에서 하차해 휠체어를 타고 119 구급차 대기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게 조치해 주셨습니다. 또 공모전에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동대구역으로 잘 전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열차팀장님 덕분에 저는 무사히 회복했고, 준비한 작품도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쏟아부은 노력이 물거품이 될 뻔한 순간 열차팀장님의 배려는 저에게 구원과도 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철도는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이끌어 가는 공기업을 알았습니다.



부산고속철도열차승무사업소 김연희 열차팀장

광명역 출발 후 응급 환자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가 살펴보니, 고객님의 심한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정신을 잃고 119에 실려 간 경험이 있었기에 그 고통을 이해했고, 무엇보다 고객님의 건강이 염려되었습니다. 다행히 의식이 있어 시원한 물을 드리고 다음 정차역에 연락해 병원 진료를 받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부탁하신 작품도 어렵지 않게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열차팀장으로서 긴급 상황에 대처했을 뿐인데 글을 남겨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열차팀장으로서 모든 승객이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철도를 이용하며 기억에 남는 친절 직원이 있다면 한국철도 홈페이지(info.korail.com) 고객의 소리로 언제든 알려주세요.



코레일 사회적 기업 리브랜딩 제품 출시

간식차 여행미



DURIHANA DAUL 두리하나다울 **쿠키 세트(6종)**
옥수수, 오트밀, 크랜베리, 커피, 아몬드, 초코칩

두리하나다울은 발달장애인들이 수작업으로 쿠키를 만드는 업체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기를 꿈꾸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유기농 간식 세트 산골알밤, 산골꿀밤, 과일칩 3종(딸기·배·사과), 고구마양갱, 배즙 **산골이유식**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은 농가의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해 건강 간식, 이유식, 가정 간편식, 실버 푸드를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TRAVEL NEWS

한국철도소식

WWW.KORAIL.COM

미식대전



미식 도시 부산, 맛있는 여행을 만나다

지역의 유명 식당 또는 향토 음식을 찾아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떠나는 미식 기행이 여행 트렌드로 떠올랐다. 여행하기 좋은 봄을 맞아 한국철도에서 떡볶이 또는 커피 투어, 야시장 방문 등 부산에서 맛깔난 음식을 맛보는 '부산행 미식 대전' 기차 여행 상품을 출시한다. 한국철도와 부산시, 부산관광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상품은 부산의 맛을 테마로 한 철도 여행 상품 기획전으로, 해당 상품에 한해 KTX 승차권 반값 특별 할인을 적용한다. 프로모션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으로 열기가 더욱 뜨거워 이번 봄, 부산을 방문해 여행을 즐기고 군침 도는 먹거리도 맛보자.

축제



고래 보러 오이소, 2023 울산고래축제

울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는 실물 고래 골격을 전시하고 고래에 대한 역사를 확인하는 고래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 등을 마련할 정도로 고래를 사랑하는 곳이다. 예부터 바다에 고래가 자주 출몰해 관련 산업이 융성하는 등 연이 깊기 때문이다. 그런 울산이 2023년 5월에 고래 축제를 진행한다. 2023 울산고래축제는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고래문화특구 장생포 일원에서 열린다. '도약하는 장생포'라는 주제 아래 고래 페레이드, 수상 퍼포먼스, 뮤지컬과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흥미진진하다. 한국철도와 울산 남구청이 울산의 고래 문화를 알리는 '내일로 고래 홍보단'을 모집하기도 하니 고래와 여행을 좋아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 보자.

바다가 보이는 도시로 가요!

부산여행



숨은 부산 여행지 찾기, 절영마 영도 스토리 투어 버스

부산 여행지라 하면 해운대와 광안리를 가장 먼저 떠올리겠지만, 최근 급부상해 인기를 누리는 곳이 있다. 바로 부산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영도다. 절영마 영도 스토리 투어 버스는 영도 곳곳을 누빈다. 현여울문화마을과 영도해녀문화전시관,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등을 둘러보는 동안 전문 해설사가 동행해 각 여행지에 대한 설명은 물론, 그곳에 얽힌 역사와 문화를 감칠맛 나게 알려 준다. 투어 소요 시간은 7시간이다. 버스는 매주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운행하며, 영도구에 위치한 숙박업소 이용 시 한 사람당 1만 원을 지원한다. 이용 요금에 영도 카페 음료권도 포함되니 알뜰한 여행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향후 KTX 승차권과 연계한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기차타고 떠나는 여행

궁금한 점이 있다면



부산행 미식 대전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의 '여행 상품' 또는 코레일톡의 '관광 상품'에서 확인

문의 051-440-2513
(한국철도 부산역 여행센터)



절영마 영도 스토리 투어 버스

문의 051-440-2513
(한국철도 부산역 여행센터)

*영도구 내 숙박 이용 담당: 여행특공대 여행사



내일로 고래 홍보단

운영 기간 5월 11일~14일
모집 기간 3월 27일~4월 28일
결과 발표 5월 2일(화요일)

모집 인원 90명(개인 또는 2명 이상 팀 단위)

모집 방법 이름, 연락처,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 계정,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후 메일로 접수

수행 과제 고래문화특구 1개소 이상 방문 및 SNS 후기 업로드

혜택 내일로 바우처(6만 원), 여행 관련 판촉품

상세 일정 및 관련 문의 울산 남구청 공지 사항 내 게시물 확인 또는 내일로 고래 홍보단 담당자 메일(mijoser@kor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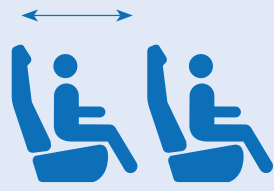
2030 *BUSAN* is Ready!
부산세계박람회

편의 시설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좌석 간격
Seat Space



KTX
930mm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



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용 콘센트&USB 포트
Socket&USB 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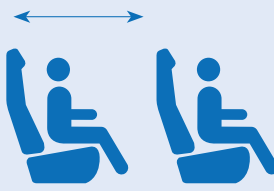


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실 서비스

First Class Service

좌석 간격
Seat Space



KTX
1120mm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식음료
Refreshment



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 4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에 있으며
특실 생수 자판기는 KTX 3, 4
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KTX 미니 도서관
KTX Mini Library



단행본은 KTX 4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잡지·신문은 KTX 3, 5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지정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열차 지연 배상 안내

천재지변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 귀책 사유로 KTX 및 일반 열차 (ITX-새마을,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해 드립니다(지연 승낙 승차권 제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연 발생 시 익일 자동 배상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국 역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코레일톡 계좌 이체 신청

KTX 및 ITX-청춘 N카드 이용 안내

구간과 횟수를 지정해 구입한 N카드를 적용하면 기본 15퍼센트부터 열차별 잔여석에 따라 40퍼센트까지(ITX-청춘은 30퍼센트까지) 승차권을 할인받을 수 있는 모바일 앱 할인 카드입니다.
KTX 및 ITX-청춘을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님의 해당 할인 카드로 교통비를 절감해 보세요!

구입 경로 및 이용 안내
코레일톡 앱 → 하단 할인·정기권 탭 → N카드(안내는 ①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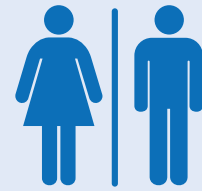
*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99-7878)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MENITIES

편의 시설

Amenities

화장실
Restroom



KTX 1, 2, 4, 6, 8, 11, 13, 15,
17, 18호차와 KTX-산천 3, 5,
6, 8, 13, 15, 16, 18호차와
KTX-이음 1, 6호차와
ITX-새마을 1, 4, 6호차와
ITX-청춘 3, 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



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 11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

수유실
Breast-Feeding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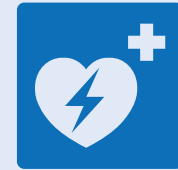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이
KTX 8, 16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4호차와
ITX-새마을 6호차와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

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



각 객차에 위치한
수화물 보관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자동심장충격기는
KTX 4, 10, 15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



음료 및 스낵 자판기가
KTX 5, 9, 11, 13, 16호차와
KTX-산천 2, 6, 12, 16호차와
KTX-이음 3, 4호차와
ITX-새마을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의약품
First-Aid Medicine



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

금연
No Smoking



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KTX 공항버스



6770번,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

운행 시간 오전 5시 20분~오후 8시
(광명역 기준, 30~40분 간격)

소요 시간 (T1 ↔ 광명역) 약 50분, (T2 ↔ 광명역) 약 75분
타는 곳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4번 정류장
(인천국제공항) T11층 8B번, T2 지하 1층 45번 정류장

승차권 구입
(인천국제공항 → 광명역) 인천국제공항 버스 매표소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 전국 기차역, 코레일톡 등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Rail+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종류



대중교통안심카드 하이패스 R+ 교통카드

철도 회원이 KTX 승차권을 Rail+카드로

구매 시 1퍼센트 추가 적립,
모바일카드는 KTX 마이리치 전환 사용 가능

교통카드 구매처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레일플러스' 스마트폰 앱 (Android, iOS)

사용처 전철, 버스, 기차, 택시, 유료 도로, 편의점 등

충전처 전철·기차역,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등

* 자세한 사항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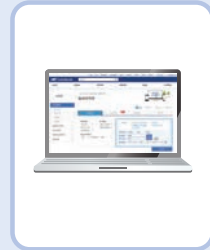
railplus.korail.com

QR코드를 스캔하면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열차 이용 안내

승차권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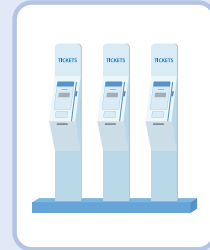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권할 수 있습니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letskor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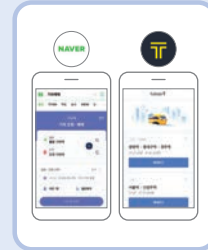
'코레일톡'
스마트폰 앱



승차권
자동 발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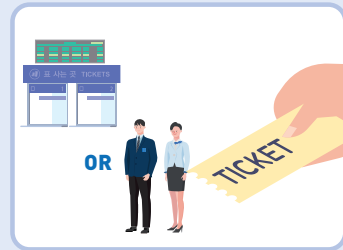
기차역 내 창구
또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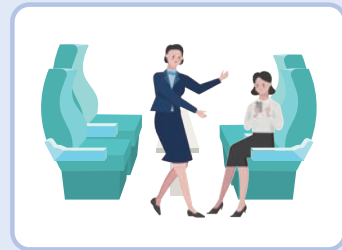
'네이버' '카카오'
스마트폰 앱

승차권 분실

-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금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입석과 자유석 승차권, 분실한 승차권이 변경 또는 반환된 경우, 재발행한 승차권을 반환 또는 변경하거나 도착역 전에 내린 경우 승차권 반환 불가능



역 창구, 열차승무원에게 운임·요금을 다시 지불하고 분실한 승차권 재발급



열차승무원에게 분실 승차권 미사용 확인 요청



역 창구에서 승차권 금액 반환
(최저 반환 수수료 제외)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각,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각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구분	출발 전		
	1개월~출발 1일 전	당일~출발 3시간 전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시각 전
월~목요일	무료		5%
금~일요일, 공휴일	400원(구입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5%	10%

구분	출발 후(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20분까지	20분 경과 후~60분	60분 경과 후~도착
월~목요일			
금~일요일, 공휴일	15%	40%	70%

PASSENGER GUIDE

Ticket Boo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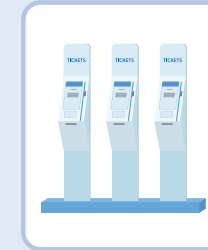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 (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Let's KORAIL Website
(letskorail.com)



KORAIL Talk
Mobile App



Ticket Vending
Mac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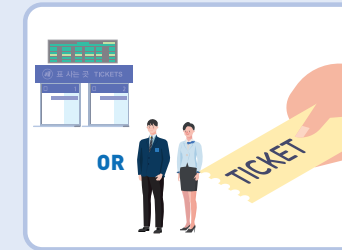
Ticket Booth
or Ticket Retai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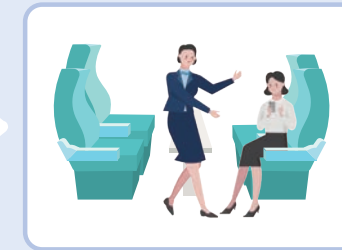
NAVER · KAKAO T
Mobile App

Ticket Loss

- Refunds may be provided for ticket purchases made using the KORAIL membership number or a credit card.
Not applicable to standing tickets, change of lost tickets, change of reissued tickets, and unused sections from alighting before the destination station.



Pay fees at the ticket booth
or to the on-board crew to
reissue your ticket.



Check with the on-board crew that
your lost ticket is unu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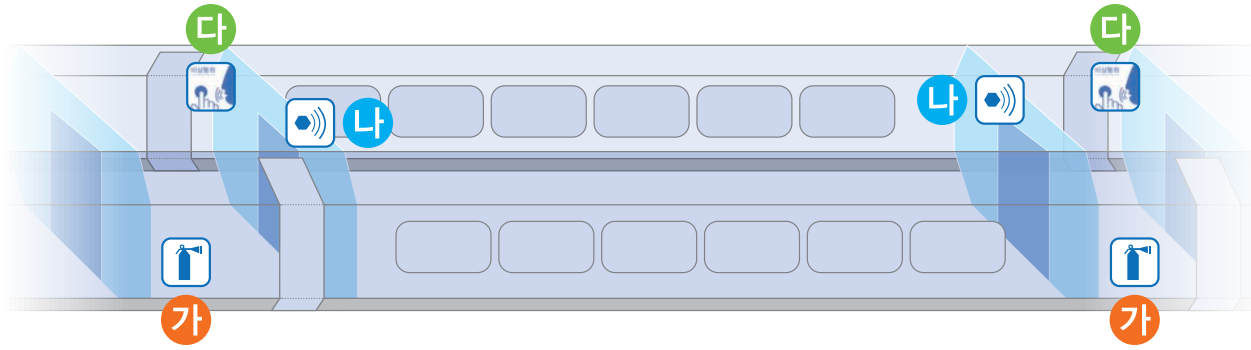
Receive a refund for your lost
ticket at the ticket booth.
(excluding service charge)

Ticket Refund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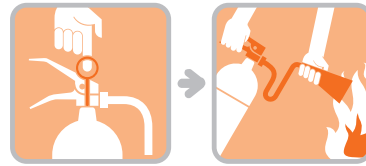
Classification	Before Departure		
	1 month-1 day prior to departure	Day of departure-3 hours prior to departure	3 hours-before departure time
Mon-Thu	Free		5%
Fri-Sun, holidays	KRW 400 (Free within 7 days from date of purchase)	5%	10%

Classification	After Departure (Request refund at ticket booth)		
	Up to 20 minutes	20-60 minutes	60 minutes-arrival time
Mon-Thu			
Fri-Sun, holidays	15%	4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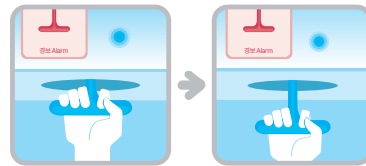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 승강문 옆 수화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나 비상 알람 장치
Emergency Ala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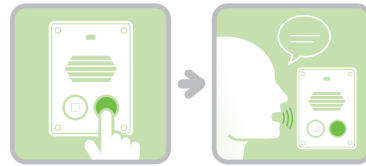
-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다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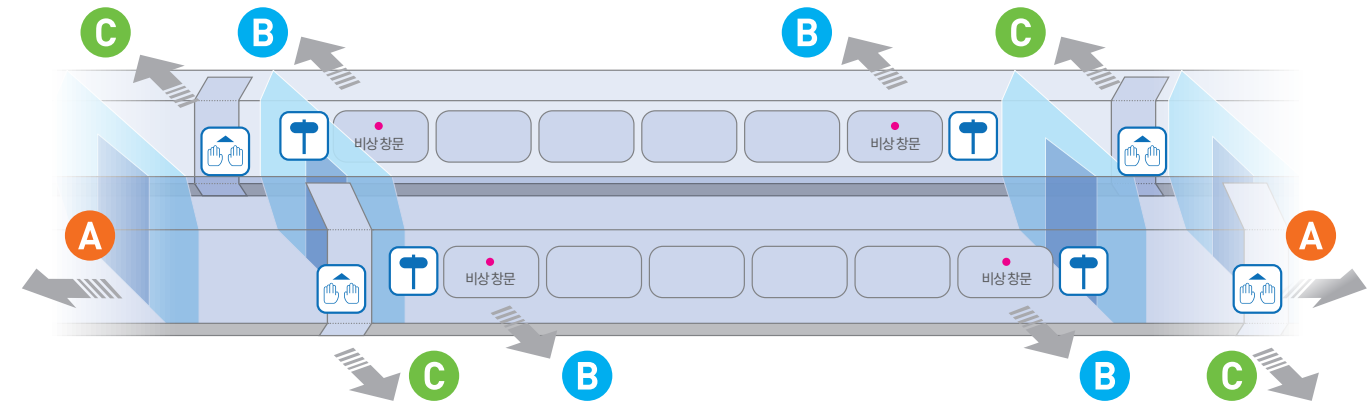
KTX | KTX 산천 | KTX 이음

-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ITX 새마을 | ITX 정호

-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산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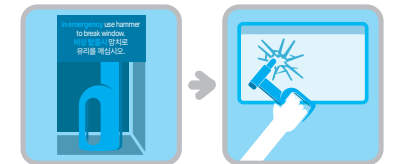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A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ITX-새마을: 4호차

B 비상 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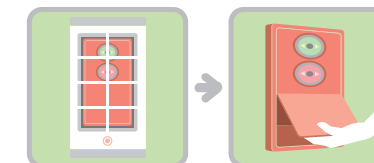
KTX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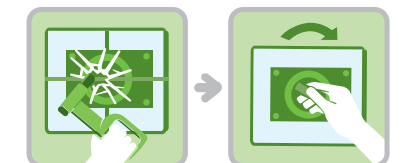
KTX 산천 | KTX 이음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정호

-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ever to the right.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Epilogue



벌써 그리움

너무 일이 많아 도대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할 때 아르바이트할 분을 급히 찾았다. 임시 요원은 복불복이라 어떤 분은 제 몫을 해 주지만 어떤 분은 손이 더 가기도 한다. 이번엔 어느 경우일까. 그는 두서없는 내 설명을 듣고도 맥락을 짚어 이해하고,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도 인상적이었다. 이 사람은 잡아야겠다 했다. 알바하러 왔다가 정규 기자로 채용된 김규보 씨 이야기다. 2018년 3월호부터 5년을 함께했다. 좋은 글을 쓰고 의미 있는 지면을 제작하기 위해 매 순간 진심을 쏟았다. 따뜻하고 겸손한 성격으로 선배배 모두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다. 부족한 나는 기동 같은 규보 씨 덕분에 한 달 한 달 버텼다. 떠나보내려니 미안한 일만 생각난다. 기동 역할 하느라 고생했어요. 앞으로 쓸 규보 씨 글을 응원하고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김현정**

안녕히

영월 청령포를 취재하다가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송림을 흔드는 소리만 들렸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땐 소리가 사라져 고요했다. 절벽에 올라 서강을 봤다. 강물이 얼마나 반짝이던지 밤하늘 별빛 같았다. 아름다웠다. <KTX매거진> 기자가 되고 얼마간 생각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다시 만나기는 힘들겠지.' 하지만 계속 만났다. 영광 낙월도 하늘에서 불타오르던 낙조, 하동 악양 산자락을 초록으로 물들인 차밭, 인제 공배령 가는 길에 흐드러지게 핀 야생초. 머릿속으로 아무리 예상해 봐도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에 닿지 못한다. 어느 순간부터 예상하지 않은 것 같다. 가서 보고 들었고 돌아와 글을 썼다. <KTX매거진>에서 마지막 글을 쓰는 지금도 헤아리진 않기로 한다.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괜히 다른 말만 주절거렸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여전히 모르겠지만... 모두 감사했어요. **김규보**

화문석처럼, 소창처럼

내 연인의 뿌리는 인천 강화군이다. 강화를 사랑하는 이유다. 계절이 바뀔 즈음이면 우리는 낙조봉과 외포항 중간쯤에 자리한 할머니 댁에 놀러 가 나물을 따서 먹고, 염치없게도 순무김치까지 얻어 온다. 철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할머니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 20년 전만 해도 할머니는 이 집에서 화문석을 찐다. 고된 일이었을 것이다. 8월에서 9월 사이 늦여름이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온 가족이 모여 왕골을 거뒀다고 한다. 소창체험관을 취재하면서 할머니와 가족들의 화문석을 떠올렸다. 마음 한편이 쓸쓸하면서도 충만해졌다. 이제는 강화에 소창과 화문석을 찌는 곳이 열 손가락으로 헤아릴 만큼만 남았다고 한다. 사라지고, 멀어지고, 이별을 감내하는 게 싫어라니 싶다. 규보 선배가 편집부를 떠난다. 화문석처럼 곱고 소창처럼 보드라운 선배의 문장이 한동안 아른거릴 것이다. **강은주**



달콤 주의

1. 초콜릿, 케이크, 마들렌, 푸딩... 제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커피는 항상 플라테를 마시고, 카페에서 처음 보는 음료를 주문할 때는 카운터에서 "이 메뉴 많이 단가요? 달면 더 좋아서요!"라고 말하지요. 맞습니다. 저는 단것을 사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 성수동은 저에게 천국과도 같았어요. 달콤한 커피는 물론, 여러 디저트까지 맛볼 수 있으니까요. '맛집 탐방' 취재에서 훌륭한 디저트들을 맛보고 감동의 눈물을 주르륵. '에디터 체험기'를 위해 막걸리를 시음할 때는 또 한 번 눈물이 주르륵. 막걸리가 이렇게나 맛있고 감미로운 술인지 진정 몰랐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다디단 커피를 마시는 저는... 곧 설탕 인간이 될지도 몰라요. 하하! 2. 규보 선배,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벌써 눈물이 주르륵. **남혜림**

Puzzle

85쪽 '퍼즐' 정답



2023 인동
낙동강변
벚꽃길
&탈춤공원
일원

벚꽃길만 걸어요

2023.4.5(수) - 4.9(일)
낙동강변 벚꽃길&탈춤공원 일원

인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